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현대불교신문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자동이체 신청 ●
대표 (02)2004-8211~2

현대불교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 연등제작사
031)792-6288/794-4055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11월 2일(음력 10월 1일) 수요일 (주간) 제 550 호

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지관 스님 당선

총 320명 투표 165표 얻어
정련 스님 146표, 월서 스님 사퇴
"종단안정 · 한국불교 도약" 다짐

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에 지관 스님이 당선됐다.

지관 스님은 10월 3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진행된 투표 결과, 총 320표 중 165표를 얻어 146표를 획득한 정련 스님보다 19표 차로 앞서 제32대 총무원장에 당선됐다.

기호 7번 장주 스님은 1표를 얻었으며, 기호 5번 대우 스님과 6번 각명 스님은 한 표도 획득하지 못했다. 무효표는 8표.

이에 앞서 기호 4번으로 입후보한 월서 스님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를 접수시켰다.

개표 후 지관 스님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도공 스님으로부터 당선증을 교부받았다.

이어 지관 스님은 선거대책위원회 스님들과 함께 조계사 대웅전을 찾아 부처님께 3배의 예를 올리고 총무원장 당선을 고했다. 이 자리에서 지관 스님은 법당 왼쪽에 마련된 제31대 총무원장 법장 스님의 영전에도 3배를 올렸다.

지관 스님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총무원장 집무실에서 열린 당선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를 통해 '종단의 화합과 안정'을 기대하는 종도들의 뜻과 의지가 모였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저에 대한 지지와 성원이, 특정 문중이나 교구의 지지가 아닌 25개 교구와 중앙종회의 고른 지지였던 점은 화합을 바탕으로 종단이 안정되고 한국불교가 도약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관 스님은 또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종단 지도자로서 이러한 종도들의 뜻과 의지를 겸허히 수렴해 종단 화합과 안정의 확고한 기틀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관 스님은 이외에도 "그동안의 경륜과 원력을 바탕으로 안으로는 수행 종풍을 진작해 위의와 질서를 확립하고 밖으로는 국민의 정신을 향도하고 도덕과 가치관을 이끌어 가도록 노력할 것"과 "대 사회적 자비행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이천만 불자와 국민들로부터 존경 받는 종단을 만들어갈 것"을 향후 종단 운영 계획으로 내놓았다.

지관 스님은 △종단 안정의 확고한 기틀 마련 △교구활성화 실현 △'자비와 나눔'으로 존경받는 종단 만들 것 △정보화 · 세계화 시대, 한국불교 미래를 준비할 것 등 4대 종단 운영기조와 10개 분야 종책공약을 제시했다. 관련기사 2 · 3 · 15면

남동우 · 조용수 기자

정련후보측 '이의제기'

기호 2번 정련후보측은 총무원장 선거가 끝난 직후인 31일 오후6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지관 스님의 후보자격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 등이 종헌종법에 맞지 않았다"며 "선거결과에 대한 승복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한편 선거가 실시되기 전 정련 스님은 다른 후보들과 함께 '결과 승복'을 서약하는 각서를 중앙선거관리위에 제출했었다.

조용수 기자

영문 포탈부다피아 eng.buddhapia.com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보도 관계로
금주 신문 하루늦게 발송됩니다



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에 당선된 지관 스님(오른쪽)이 선관위원장 도공 스님으로부터 당선증을 받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지관 스님은? 불교학계의 거목 · 율맥의 적통

지관 스님을 설명하는 단어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학승 그리고 율사. 지관 스님은 불교학계의 거목이며 한국불교의 율맥을 이어 율학을 정립하는데 일생을 바쳐 온 율사다. 스님의 학문적 업적은 (사)가산불교문화연구원을 중심으로 '함박눈'처럼 쌓여 왔다.

무엇보다 불교계에서 전인미답이라 할 수 있는 금석문 분야에 남다른 열정을 갖고 연구해 '역대고승비문총서(전7권)'라는 역작을 내놓았다.

일생의 원력인 '불교대백과사전'의 발간 작업도 지관 스님의 학문에 대한 열정 그 자체로, <가산불교대사림>은 15권을 목표로 현재 7권까지 발행했다. '가산 학보'를 통한 후학들의 학문 독려와 한국불교학의 지평 개척 역시 지관 스님의 원력을 반영하는 활동이다.

율사로서의 지관 스님은 <계율론>을 비롯한 율장에 대한 학문적 성과로도 대변되지만 근대 계맥의 중흥조 자운 스님의 율맥을 이은 장본인이다.

현대불교 신행수기 공모 동참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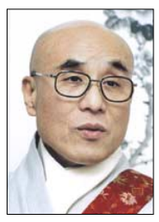
원고지 30매 … 마감 12월 17일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신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 주제 :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지 4장)
- 접수처 :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마감 : 2005년 12월 17일 ■당선작 발표 : 2006년 1월 1일자 본지 및 붓다뉴스
- 문의전화 : (02)2004-8239 ■이메일 접수 : bypark@buddhapia.com
- 시상 부문 · 대상(유마상) · 우수상(본사 사장상)
  · 특별상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상, 태고종 총무원장상, 천태종 총무원장상, 관음종 총무원장상, 총화종 총무원장상,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상, 신수회장상

태고종 총무원장 선거 운산 스님 단독 후보

10일 봉원사서 선출



태고종 제23대 총무원장 선거에 현 총무원장 운산 스님(사진)이 단독 입후보했다.

태고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총무원장선거 후보등록을 받은 결과 운산 스님이 단독 출마했다"고 밝혔다. 태고종 총무원장 선거는 11월 10일 서울 신촌 봉원사에서 실시한다.

선거는 총무원장선거법 제4조에 따라 중앙종회의원 40명이 중앙종회에서 투표 또는 호선으로 선출한다.

김원우 기자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
함께 가는
진리의 길
-설법제일 부루나
자광 스님 | 11월 2일 오후 7시
광주 동구 KT정보센터

'할'



그림 · 조태호

무진장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당 선 소 감 문

귀의 삼보하옵고,

존경하는 종정예하와 원로대덕 큰스님 이하 제32대 총무원장 선거가 여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모든 사부대중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에게 총무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겨주신 24개 교구본사주지스님과 군승교구장, 중앙종회의원을 비롯한 320명의 선거인단 스님들께도 깊은 감사와 존경의 예를 올립니다.

그리고 이번 제32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한국불교의 중흥이라는 대의를 몸소 실천하시며 끝까지 모범을 보여주신 정련스님과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종도 여러분!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 '종단의 화합과 안정'을 기대하는 종도들의 뜻과 의지가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에 대한 지지와 성원이 특정 문중이나 교구의 지지가 아닌 25개 교구와 중앙종회의 고른 지지였던 점은 '화합을 바탕으로 종단이 안정되고 한국불교가 도약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종단지도자로서 저는 이러한 종도들의 뜻과 의지를 겸허히 수렴하여 종단 화합과 안정의 확고한 기틀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정화 이념과 통합종단의 정신을 계승하고 1994년 개혁불사의 성과를 이어받고 있는 우리 종단은 제2의 중흥과 백년대계를 설계해야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있습니다.
이에 저는 미력하나마 그동안의 경륜과 원력을 바탕으로 안으로는 수행 종풍을 진작하여 승가의 위의와 질서를 확립하고 밖으로는 국민의 정신을 향도하고 도덕과 가치관을 이끌어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대 사회적 자비행을 적극 실천함으로서 이천만 불자와 국민들로 부터 존경 받는 종단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세계속에 한국불교의 위상을 심고 종단의 원융화합을 위해 헌신해온 인곡당 법장대종사의 원적을 추모합니다.

또한 종단의 과도기간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오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 오셨던 총무원장 직무대행 현고스님 이하 종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조속한 시일내에 종무 행정을 인수함으로서 종무행정의 공백과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 경책과 관심을 아낌없이 베풀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49년 10월 31일

대한불교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당선자 지 관 합장

“금강대 졸업생 군종사관후보생 인정돼야”

천태종, 국방부에 군종정책 형평성 문제제기

천태종이 국방부의 군종정책에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2~3년간 천태종립 금강대학생들의 군종파견을 추진해온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조계종과의 협의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초강경 수를 띄운 것.

천태종은 합당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도 강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천태종 사회부장 무원 스님은 10월 2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9월 9일자로 국방부 장관에게 ‘군종정책 형평성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며 “군종사관후보생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금강대에 선발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질의서를 공개했다.

천태종이 국방부에 보낸 질의서에 따르면 “한국불교가 통불교인 만큼 조계종이 주장하는 양종단간 교리 및 수행방법 종교의식의 차이가 전혀 문제되지 않으며, 현행 군승단의 의식과 복식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만큼 금강대가 군종장교 운영학교로 지정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2년 11월 국회에서 군인사법과 병역법이 개정돼 사실상 모든 종교에 군종장교 진출의 문호가 열렸음에도 조계종에 동의를 구한 뒤 합의서 가져오라고 요구한 국방부에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천태종은 “조계종이 모자라는 인원을 채우기 위해 일반대학 출신 승려를 군종장교로 임관하는 편법 군종파견을 중단토록 조치해달라”고 국방부에 요구했다.

병역법시행령에 따르면 군종사관후보생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신학대학, 불교대학이나 그밖에 성직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28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지난 1월 천태종에 보낸 공문을 통해 “조계종단에서 교리 및 의식, 행사의 차이를 들어 천태종의 군종장교 운영종단 지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회신을 했다”며 양 종단 대표자의 서명날인이 들어간 합의문을 작성하여 제출해 달라고 통보한 바 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전해준 기획호법과장은 “현재 군종파견을 희망하는 각 종단과 협의체 구성 대책을 마련하는 등 다같이 가는 길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조계종 제31대 총무원장 법장 대종사의 49재가 10월 27일 조계사에서 2천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됐다. 사진=고영배 기자

“유지 바로 받들고 계승할 것”

법장 스님 49재, 10월 29일 조계사서

조계종 총무원장 인곡당 법장 대종사 49재가 10월 29일 조계사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엄수됐다. 49재는 상단불공 영상 명종 개식 조사영반에 이어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 현산 스님의 죽비에 맞춰 추도 입정에 들었다.

49재에서 원로회의 부의장 보성 스님은 “상생의 원력에 원융종단이요 동체대비에 이익군생이로다. 불교 세계화에 한중일 유대를 이끌고 이와 사에 걸림 없고 마음과 경계가 하나로다. 법장 대종사여! 이제 빛과 어둠 서로 떨어지지 않음을 부촉하노니 걸림 없어 생사에 두려움 없도다”라고 법어를 내렸다.

이어 법장 대종사의 생전 활동 모습과 이를 회고하는 각계 인사들의 추모영상이 특설무대에 설치된 대형화면에서 방영됐다.

총무원장 권한대행 현고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스님의 유지를 받들고 이를 계승하는 것이 진정한 49재의 의미”라고 말했다.

49재에는 원로의원 보성 도원 녹원 원명 천운 동춘 지관 초우 스님 등과 중앙종회의장 법등, 교육원장 청화, 포교원장 도영 스님, 운산 태고종 총무원장, 회정 진각종 통리원장,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이명박 서울시장, 황우석 서울대 교수 등 2천여 대중이 참석했다. **남동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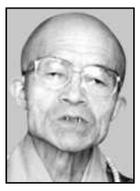
법상종 총무원장 해월 스님 재선출



법상종 13대 총무원장에 현 총무원장 해월(사진) 스님이 재선출됐다. 법상종은 10월 21일 평택 유가사에서 중앙종회를 개최하고 해월 스님을 만장일치로 제13대 총무원장에 재선출했다. 총무원장 취임법회는 11월 13일 오전 10시 송탄 이충문화체육관에서 봉행될 예정이다.

한편 법상종은 이날 룸범 린포체의 마정수기 친견법회와 축하공연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031)653-1250 **강유신 기자**

태고종 승정 벽산 스님 입적 10월25일 다천사서 다비



태고종 승정 벽산(사진) 스님이 10월 23일 다천사에서 입적했다. 세수 84세 법랍 70세.

1922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난 벽산 스님은 1936년에 부안 내소사에서 해안 선사를 은사로 동진출가한 이래 금강산 유점사, 양산 통도사 등의 강원과 선방에서 공부했다.

이후 세 차례나 태고종 전북교구 종무원장을 맡았고, 중앙종회 의장도 두차례에 걸쳐 역임했다. 다비식은 25일 다천사에서 열렸다.

김원우 기자

금강대 김유혁총장 해임 직무대행 조성환 교학처장

학교법인 금강대학교(이사장 도용)는 10월 4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김유혁 총장을 전격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진충달 기획처장은 “해임의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현재 금강대는 교학처장 조성환 교수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유혁 前 총장은 10월 25일 전화통화에서 “재단 차원에서 그렇게 정해진 것으로 안다”며 “학교의 장기발전계획과 관련, 재단과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대답했다.

금강대 한 관계자는 “2학기부터 금강대가 추진한 학사제도의 개편과 관련해 총장과 재단의 갈등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조용수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7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선거-후보들 어떤 공약 내놨나?

‘안정과 화합’ 한목소리…교구권한 강화에도 무게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제시되는 ‘공약’은 ‘실현과제’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한다. 조직이나 단체가 장단기적으로 우선 해결해야할 숙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던 후보자들의 공약도 현 상황에서 조계종이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관, 정련, 월서, 대우, 각명, 장주 스님 등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공약은 종단 안정 · 교구권한 강화 · 비구니스님 중용 등. 최근 들어 부쩍 강조되고 있는 종단 이슈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지난 몇 차례의 선거에서 심각한 후유증을 겪어서인지 ‘안정과 화합’은 후보자들의 공약 1순위다. 지관 스님은 “종단의 화합과 안정은 종단 모든 구성원의 바람”이라고 강조했으며 정련 스님 또한 “안정과 화합은 백번을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교구 자치권한 강화도 주요 공약 중 하나. 인사와 재정권을 교구에 실질적으로 이양해 명실상부한 교구자치제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월서 스님은 “종법 개정을 통해 교구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대우 스님은 “본사 주지가 말사 주지를 임면하며 신행단체 대표가 사찰 운영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선거 투표일인 10월 31일 조계사에서 만난 입후보자들. 가운데가 당선자 지관 스님, 왼쪽으로 장주 · 대우 스님, 오른쪽으로 정련 · 각명 스님.

환경 · 대북교류 · 포교 등 전분야 언급 비구니스님 종단 참여 확대도 약속

전임 법장 스님 재임 당시 처음 이뤄졌던 비구니스님들의 종단 참여 활성화 공약도 눈에 띈다.

지관 스님은 비구니부 신설을, 정련 스님은 수행과 포교 지원, 월서 스님은 모든 분야 문호 개방, 각명 스님은 수도권 1곳과 지역 2곳의 비구니 사찰을 교구본사로 승격시키겠다고 역설했다.

이외에 각 후보자의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지관 스님은 △자비의 나눔운동 전개 및 불교시민사회센터 설립 △중앙종무기관 순환 근무제 도입 △국제 불교 네트워크 구성 등을, 정련 스님은 △국제 간화선센터 설립 △생태 수행 등 특성화 사찰 육성 △복지시설 종합관리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

월서 스님의 △수행 포교 환경의 전문화 △해외 북한 불교의 활성화 △외부 훼불 행위의 예방화 등과 대우 스님의 △비구니스님 종회의원 20석으로 확대 △사부대중의 참정권 실현 △교구별 상설 불교대학 개설 등도 시선을 끈다.

각명 스님은 △스님 무상교육 실시 △북한과 중국에 대표부 설치 △중앙종무기관 부서별 1인 이상의 비구니 임명 등과 장주 스님은 △청정승가 확립 △사찰 경제 혁신 △비구니 특별교구청 설치 등을 내세웠다.

이번 선거에서 또 하나 눈여겨 볼 것은 불교계 환경단체들이 각 후보들에게 환경종책을 제안했다는 점. 단체들은 “조계종이 환경과 생명의 가치를 귀중히 여기는 불교의 모습을 구현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10월 27일 최종 확정된 불교환경의제 21 중 총무원이 실천해야 할 5개 분야 중 40개 항목을 종책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에 대해 청정선거실현 승가운동본부 정책국장 원명 스님은 “각 후보가 제시한 공약들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며 “진정한 종책 대결을 위해서는 공약을 실질적으로 상호 검증하는 자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大韓佛教 法相宗

봉행

제13대 총무원장 해월종사 취임 및 룸범 린포체 마정수기 친견법회



제13대 총무원장 해월스님

귀의삼보 하옵니다.

한국불교의 미래를 준비하는 **대한불교법상종은 제13대 총무원장 해월스님의 취임식과 룸범 린포체 마정수기친견법회**를 통해 종단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각 사암 주지스님, 법사, 포교사, 신도분들께서는 수희 동참하시어 법좌를 빛내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전 종도님들께 제불보살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스님들께서는 가사, 장삼을 필히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05년(불기 2549) 11월 13일(음, 10월12일) 오전 11시
■ 장 소 : 송탄 이충 문화 실내체육관
■ 행사내용
- 1부 : 총무원장 취임식 (오전 11시)
- 2부 : 룸범 린포체 마정수기, 국제보살계 법회 (오후 2시 - 오후 4시)
- 3부 : 축하공연 (오후 4시 - 오후 5시)
- 축하공연 세부내용

총무원장님 초청인사, 규정부장 축하노래
남 진 : 나에게 애인이 있다면, 가슴아프게, 저리가, 둥지 등
이태원 : 솔개, 고니, 타조 등
김혜연 : 서울대전대구부산 찍고, 유일한 사랑, 간큰 남자 메들리, 어쩌나, 유리구두, 남행열차, 아파트 메들리 등

■ 문 의 : 총무원 031)653-1250 ~ 1 / Fax 031)653-1253
경기 평택시 세교동 569-8 구운빌딩 4층

大韓佛教 法相宗 總務院長 就任法會準備委員長 道 一 합장

인 터 뷰 조계종 32대 총무원장 당선 지관 스님

수평적 의사결정 구조로 화합 모색



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에 당선된 지관 스님은 10월 3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1994년 종단개혁과 98년 종단 사태 과정에서 징계를 받은 스님들에 대해 "절차를 밟아 문제를 풀 것"이라고 밝혔다. 지관 스님은 또 본지에서 실시한 종책 질의에서 "'비구니부' 신설을 통해 참여의 폭을 넓혀낼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음은 기자회견과 종책 질의서에서 밝힌 지관 스님의 향후 종단 운영 계획.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종단의 최우선 과제는?

-화합과 안정이다. 이를 위해 승가의 전통인 '공의'에 입각해 '공평무사한 인사제도와 시스템'을 정착해 능력 있는 사부대중이 종단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원로대덕 큰스님과 중진스님, 사부대중의 공의를 모으는 '수평적 의사 결정 구조'를 만들어 종단의 화합과 안정에 힘쓸 것이다. 또한 선거법 등 이번 선거를 통해 드러난 제도상의 미비점을 중앙종회를 비롯한 종무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보완해 나갈 것이다.

▲종단 안정과 화합을 위한 방안은?

-조계종은 1962년 통합 종단 출범 이후 1994년 개혁과 98년 사태 와중에서 멸빈을 당한 스님들이 있다. 당시 종단을 위한 생각과 입장이 달랐지만 이제는 10여년이 흘렀다. 이 분들의 징계를 풀어 종단에 참여토록 해 힘을 합치자는 것이다. 종도들의 중지를 모으고 중앙종회의 절차 등을 밟으며, 반대하는 분들의 이해를 구한 뒤 별다른 잡음 없이 이 문제를 풀도록 하겠다.

▲출마 기자회견에서부터 수행과 전법을 강조했는데?

-우리 종단은 대형 불사에 치우친 감이 있다. 하지만 이제는 수행이나 성보문화재 등 정신적인 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해외에 한국불교를 더 많이 알리는 길이고, 국위를 선양하는 길이다. 앞으로 외형 불사를 줄이더라도 수행 분야를 확충할 계획이다.

▲교구별 자치권한을 강화할 구체적 실현 방안은?

-우선 중앙종무기관의 권한을 교구본사의 상황에 맞게 이양함으로써 중앙기관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교구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겠다. 중앙종무기관은 교육과 포교, 문화, 사회분야 등 중앙기관의 업무를 보다 집중화해 교구 특성에 맞는 종책안을 개발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각 교구가 점차적으로 행정의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각 교구는 전통과 지역적 특성 등 장점을 최대한 살려 교구를 활성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분권형 종무행정의 기틀을 확보해가야 한다.

▲포교정책 비전은?

-기존의 낡은 관행과 사고를 벗어버리고 '현대와 전통'을 조화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종단의 포교전략이 필요하다. 수행과 전법 교화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1천만 신도 조직을 대표하는 중앙신도회 강화 등 현실에 기반한 신도정책을 수립할 것이다.

또한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맞게 온라인 포교를 활성화할 것이며, 해외 교구 신설의 전 단계로서 총무원내에 해외 불교 담당 전문 부서를 마련해 세계 곳곳에 있는 한국불교사찰 등 포교현황과 관련 인력을 파악해 '국제불교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이다.

또 불교사상에 입각한 사회운동을 펼쳐 보다 많은 대중의 참여와 성과를 가져올 것이다. 국민의 고통을 나누기 위해 동체대비사상에 입각한 '자비의 나눔' 운동을 전개해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이끌어냄으로써 대사회적 위상을 제고해 나갈 생각이다.

대 사회적 '자비나눔' 전개 국제불교 네트워크 형성

▲비구니스님들의 종단운영 참여정도와 참여폭에 대한 구상은?

-우리 종단은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로 구성된 사부대중의 공동체이다. 최근 비구니스님들의 참종권에 대한 문제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종단은 기존의 관행화된 운영 방식으로 인해 종헌종법에 정해진 제도를 취지에 맞게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구니스님들의 종무행정 참여를 독려하고 '비구니부' 등의 신설을 통해 참여의 폭을 넓혀나갈 것이다.

▲재가불자의 종단운영 참여정도와 참여폭에 대한 소신은?

-중앙종회 등 중앙종무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능력 있는 전문 재가자들을 종단의 유관 부서에 대거 등용해 이들의 종책안을 종무행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 사찰운영위원회를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찰의 사례를 홍포함으로써 전국 사찰에서 재가자들의 참여를 확대해나갈 생각이다.

우리 사회는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종단 역시 이러한 사회적 현실에 부합하면서 민족 종교 본연의 전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열린 종단'을 구현해야 한다.

▲장기기증운동에 대한 견해는?

-법장 스님 열반 후 장기기증을 하면서 다비식 없는 장례가 치러졌지만 장기기증과 다비가 배치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아직 장기기증서약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장기기증을 권장해나갈 생각이다.

▲그 동안 해 오던 학술관련 사업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총무원장 자리는 조계종 뿐 아니라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자리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은 여러 직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없더라도 <가산불교대사림> 등을 편찬하는데 큰 차질은 없을 것이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10대 분야 주요종책

능력중심 인사제도 확립 · 종무행정 표준화
비구니부 신설 · '불교시민사회센터' 설립

1. 수행종풍 진작

△종지 종통의 수호와 전승 △종단 수행체계의 정립 △종단내 위계질서 확립 △선사상 연구원 설립 및 학술대회 개최

2. 교구본사 역량 강화, 교구활성화 실현

△각 교구본사 특성에 맞는 분권종무행정의 기틀 마련 △말사주지 인사권 이하 주요 종무 권한 교구본사 상황에 맞게 이양 △중앙 종단 예산과 지방교구 예산의 균형편성 △현안 (경제, 문화, 환경 등) 에 따른 권역별 사찰 네트워크 운영 △교구문화재 관리를 위한 국고지원 확충 △본말사 교역직, 일반직 종무원 교육 강화, 중앙종무기관 종무원 순환 근무제 도입

3. 열린 중앙종단, 효율적인 종무기관 실현

△능력중심의 공평무사한 인사제도 정착 △종무행정의 전산화 및 표준화 관리 △교육원, 포교원 위상강화 및 중장기 전략수립 △종단 자산의 효율적 관리(종단 재정 확대 기획단 구성) △분담금 정책 현실화 △비구니부 신설(교역직 인사 등용) △호법부의 체계적 운영(사건 유형분석 재발방지 및 건전한 승풍 확립) △종합민원센터 실질적 운영(각종 민원 one-stop service 및 on-line 시스템 구축)

4. 수행 및 교육

△강원 및 선원 등 수행기관 지원 확대 △승랍과 법계에 따른 교구별 재교육 시행 △역경사업 기반 조성 (한문경전, 범어원전의 역경, 각종 사전 편찬) △역경사업의 전산화 지원 △상설 행자 교육원 설립 △해외 유학승려 지원 방안 마련 △종립학원 위상 강화 및 전문교육기관 지원 △불자 온라인 교육 시스템 구축, 인터넷 불교대학 설립 △미래사회의 리더십 고취와 전략 수립을 위한 '불교지도자교육과정' 개설

5. 전법 및 포교

△수행과 전법교화 활동의 체계적 지원 (지원예산안 편성) △현실에 기반한 신도정책 수립 (중앙신도회 지원 강화) △온라인 활성화 (불교허브사이트 개설) △권역별 국제 교류 지원과 외국인 포교 거점 마련 △계층별 포교 활성화 (각 계층별 사회시설 등과 네트워크 구축)

6. 문화

△민족문화의 전통 계승과 보수에 대한 국가예산 확충 △폐사지 복원과 전통사찰 복원에 대한 국가예산 확대 △미지정 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국가차원의 제도방안 마련 △템플스테이 기능 및 국가 지원 강화 (권역별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개발) △불교문화원형 콘텐츠의 생산과 활용안 마련 △불교무형문화재 제도 도입 △불교문화 예절 대중화

7. 승가 및 재가종무원 복지향상

△정부 및 각종 기금 등과 연계한 '승려 노후복지 사업안' 마련 △승려노후복지기금 마련 △교구별 승려노후복지원 설립 추진 △승납별 종단 차원 연금식 보시 지급 추진 △승려 다비장 신설 및 다비식 지원 △중앙종무기관 재가 종무원에 대한 복지제도 강화 △사찰 일반직 종무원의 처우개선 및 각종 복지 혜택 부여 △종단 의료 및 복지기관 이용시 혜택 부여

8. 대사회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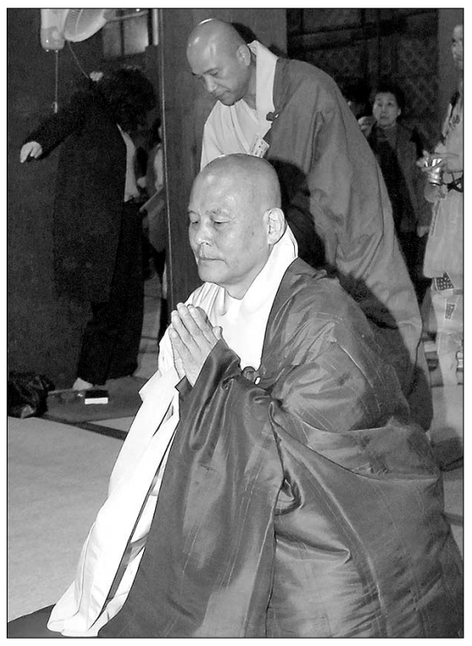
△'불교시민사회센터' 설립 지원 (불교 인력풀로서의 역할) △'자비의 나눔' 운동 전개,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인권 및 생명환경분야에 대한 종단적 대책 및 지원 △'불교시민사회단체 지원법(가칭)' 법제화 추진 △북한 지역 사찰과 문화재 원형 파악, 복구지원 강화 △남북 불교 학술 교류 및 연구 △남북 사찰간 결연 추진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산하 '북한불교연구소' 설립 및 체계적 연구 강화

9. 국제 불교 교류 및 협력

△해외 불교 담당 전문 부서 마련 △스리랑카, 캄보디아 등 조계종 산하 복지시설 지원 △'국제불교 네트워크' 구성 및 '세계불교대회' 유치 △해외 포교전문지 발간

10. 국가정책 및 대정부 관계

△현안 '불교관계법' 개정을 위한 대정부 교섭력 강화 △정부 및 각 정당과의 불교협력 간담회 정례화 추진 △대정부 공약과 정책 이행 추진 △국립공원 제도 개선 추진



10월 31일 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에 당선된 지관 스님이 조계사 대웅전에서 부처님께 삼배를 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 주요 이력

▲학력

1963. 7. 30 경남대 졸업

1969. 8. 30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석사학위 수여

1976. 9. 4 동국대 대학원 철학박사학위수여

▲수행경력

1947. 10. 3 해인사에서 자운성우 율사를 계사로 사미계 수지

1953. 5. 24 통도사에서 자운성우 율사를 계사로 비구계 수지

1965. 11. 25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2선 역임

1968. 8. 7 동국학원 이사 취임

1970. 11. 25 동국학원 감사 취임

1970. 11. 20 해인사 주지 취임

1972. 7. 20 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 취임

1973. 1. 25 조계종 총무부장 취임

1980. 8. 7 동국대 불교대학 학장 취임

1980. 8. 11 사회정화위원회 부위원장 취임

1984. 1. 30 동국대 교육대학원 원장 취임

1986. 1. 16 동국대 11대 총장 취임

1987. 4. 26 문화공보부 문화재위원 취임

1993. 12. 20 해인사 주지 취임

▲수상경력

1969. 8. 23 조계종 종원교육공로표창 수상

1982. 11. 24 서울시 정의사회구현 표창 수상

2001. 10. 20 문화관광부 은관문화훈장 서훈

2001. 11. 20 조계종 포교대상 수상

2005. 8. 12 만해대상 학술부문상 수상

▲현재 활동 상황

조계종 원로의원,동국학원 이사, 동국대 명예교수, (사)가산불교문화연구원 이사장

▲불교학연구

1982. 5. 11 불교대백과사전편찬발원 하여 현재 총 7권 발간

1991. 6. 16 한국불교학연구를 통한 한국불교 중흥을 발원해 '가산불교문화연구원' 개원

1991. 12. 5 소장연구자 육성을 위해 '가산상' 제정, 전문학술지 <가산학보> 창간

1992. 4. 14 해인사1000년의 역사를 <가야산해인사지>로 엮다.

1992. 12. 5 회갑을 기념하여 한국불교학연구자 100인의 연구성과를 총집성한 <한국불교 문화사상사>상하 출간

2000. 10. 25 한국불교고승들의 400여기행장을정리한<역대고승비문총서>(총7권)출간

1991~현재 국내외연구자 초청 '수행동행포럼' 연례 개최 한국불교학 진흥

▲저서

<치문경훈> <대혜서장> <도서> <선요> <절요> <한국불교 소의경전 연구> <요경서설> <남북전육부 율장비교연구> <비구니 계율 연구> <불교교단 발달사> <계율론> <조계종사> <가야산해인사지> <역대고승비문총서> <가산불교대사림>

수안사 삼동결제 큰스님초청 자비도량참법 100일정진 및 일체영가천도기도법회

귀의삼보 하옵고 불자님의 가정에 불은이 함께 하여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기를 축원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우면산 수안사에서는 삼동결제를 맞이하여 수안사 삼동결제 큰스님초청 자비도량참법 100일정진 및 영가천도기도법회를 봉행합니다.

참회는 이미 과거에 지은 묵은 업장을 녹여, 맺힌 것은 풀고, 푼 것은 더욱 원만하게 함으로서 참된 행복을 열어가는 묘법입니다. 대집경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백년 묵은 때묻은 옷도 하루아침에 세탁해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백겁 중의 쌓인 모든 악업도 참회하면 불법의 힘으로 한 날 한 시에 모두 능히 소멸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비도량참법』은 중국의 황제 양무제가 생전의 업보에 의해 구렁이로 태어난 황후 치씨를 위해 지공스님의 권고에 따라 편찬한 참법(懺法)으로, 참회문의 총서라고 할 만큼 여러 경전들에 들어있는 참회의 방법과 내용들을 일정한 체계로 엮어낸 최고의 참회의식법입니다.

이 참법(懺法)을 닦은 사람은 영험을 얻어 죄가 없어지고 복이 생겨나며, 유주무주 고혼을 천도하여 길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 참법에 의하여 원결을 풀면 곧 원수가 없어지며, 이 참법은 병을 낫는 참다운 양약이며, 어두움을 깨뜨리는 밝은 등불이며, 뭇 중생을 이롭게 하며, 그 은혜는 사바세계에 가득 차 헤아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수안사에서는 참회정진을 통해 묵은 업장을 모두 소멸하고, 조상영가 및 유주무주 영가를 천도하여 행복을 열어나가기 위한 삼동결제 큰스님초청 자비도량참법 100일정진 및 영가천도기도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오니, 무루 동참하시어 업장과 액난을 소멸하시고, 복덕이 구족하여 마음속으로 염원하는 일들을 모두 성취하시고, 구경성불하시길 바랍니다.

• 입재 : 2005년 11월 5일(음10. 4) (토) 오전 10시 무진장 큰스님
• 1 재 : 2005년 11월 14일(음10.13) (월) 오전 10시 지 관 큰스님
• 2 재 : 2005년 11월 24일(음10.23) (목) 오전 10시 지 성 큰스님
• 3 재 : 2005년 12월 4일(음11. 3) (일) 오전 10시 성 타 큰스님
• 4 재 : 2005년 12월 14일(음11.13) (수) 오전 10시 홍 교 큰스님
• 5 재 : 2005년 12월 24일(음11.23) (토) 오전 10시 월 운 큰스님
• 6 재 : 2006년 1월 3일(음12. 4) (화) 오전 10시 묘 허 큰스님
• 7 재 : 2006년 1월 13일(음12.14) (금) 오전 10시 밀 운 큰스님
• 8 재 : 2006년 1월 23일(음12.24) (월) 오전 10시 정 휴 큰스님
• 9 재 : 2006년 2월 2일(음 1. 5) (목) 오전 10시 근 일 큰스님
• 회향 : 2006년 2월 12일(음 1.15) (토) 오전 10시 세 민 스님

● 법회주관 : 수안사 회주 세 민

※ 자비도량참법은 총10권(장)으로 이루어져있으며 매일 1권씩 읽으면서 10일간 참회정진하여 자비도량참법 전체를 한번 독송과 동시에 큰스님을 모시고 영가천도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렇게 큰스님초청법회와 천도법회를 100일간 10번 봉행하게 됩니다.

※ 영가천도재는 친가와 외가의 5대조 영가까지 위패를 모시고 열흘마다 봉행하오니 영가 명단을 미리 수안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전화 : (02)587-4677, 3213 / 팩스 : (02)522-5666

계좌번호 • 외환은행 108-18-51234-7 (예금주 : 박 경열)

오시는길 • 전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3번 출구 → (도보 7분) 두번째 GS 칼텍스 주유소 뒤 3층 건물입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38-12

대한불교조계종 우면산 수 안 사 회주 세 민 · 주지 현 종 합장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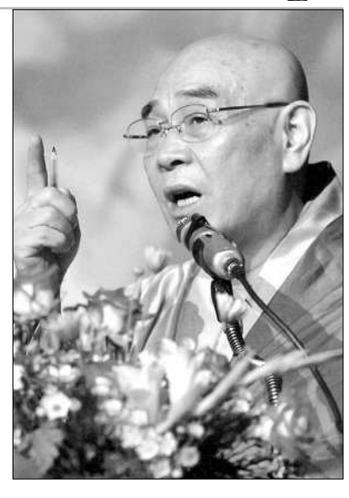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

제4강 : 텅빈 충만, 空-해공제일 수보리

강사 : 혜거 스님 (금강선원장)

공동주최 : 광주 동구불교협의회-현대불교

일시 : 2005.10.26 / 장소 : 광주 KT정보센터



베풀고도 베풀었다는 마음없이 복 짓자



10월 26일 열린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네번째 법회에 참가한 불자들이 혜거 스님의 거침없는 법문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있다.

조계종 소의경전인 <금강경>은 부처님이 설하신 600부 반야부 법문을 요약해서 편집된 경전입니다.

이 경은 부처님의 십대제자 가운데 해공제일(解空第一) 수보리(須菩提) 존자가 부처님께 법문을 청하여 설해진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45년간 법을 설하셨는데, 그 가운데 반야부 법문을 21년간이나 설하셨습니다. 그러니 법을 청한 수보리 존자는 어느 제자보다도 큰 제자였습니다.

<금강경>을 독송하다보면 '기수급고독원(祇樹給孤獨園)'이 나옵니다. 급고독 장자가 건립한 기원정사로 부처님은 이곳에서 가장 오래 머무시며 반야부 법문을 설하십니다.

자애선정 이뤄 무쟁삼매

수보리는 바로 급고독 장자의 동생인 수마나의 아들로 사위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수보리는 급고독 장자가 건립한 기원정사에서 첫 법회를 여는 날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발심 출가합니다.

그런데 수보리는 부처님께 귀의하기 전에는 성격이 모질고 포악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싸우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뭐든지 눈에 부딪치면 싸움을 했습니다. 이런 수보리에게 부처님은 '자애 선정' 공부를 시킵니다. 수보리는 자비심을 닦아 아라한과를 얻고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증득해서 부처님 십대제자 가운데 가장 우수한 해공제일(解空第一) 제자가 됩니다.

수보리는 자애선정을 닦아서 시비가 뚝 끊어진 이후부터 모든 이로부터 존경을 받게 됩니다. 남방 팔리어 경전에 보면 '공양을 받는 데는 수보리가 제일이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십대제자들이 공양을 얻지 못할 때도 수보리 존자가 가면 시주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자애선정을 닦아 성취하고 나니 모든 사람들이 수보리 존자에게 서로 공양을 바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수보리 존자가 젊었을 때 일이고, <증일 아함경>에서는 중년기 이후에 들어선 수보리 존자를 '무쟁삼매 제일(無諍三昧第一)'이라고 했습니다. <금강경> 제9장에서도 '무쟁삼매 제일'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무쟁은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이 수보리에 대해 입증하시기를 '해공제일'이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초기경전에서 '자애선정 제일'이라고 하고 <금강경>에서는 '무쟁삼매 제일'이라고 하고 또 <아함경>에서는 '해공제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질이 못된 이가 부처님으로부터 자애선정 가르침을 받아 선정에 들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자애선정 제일이라고 했고, 자애선정이 이뤄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시주를 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수보리에게만 시주를 하려고 하여 공양제일이라고 했고, 그 뒤로부터 수보리에게는 마음속에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남아 있지 않아 무쟁삼매 제일이라고 했습니다.

"마음 어떻게 써야 할까?"

그런데 다툼이 없어진 근원을 찾아보니 공(空)의 이치를 가장 잘 이해했던 것입니다.

사실 <금강경>에는 공이라는 글자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금강경>만 보면 공의 도리를 설명한 경전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수보리를 한문으로 번역하면 선현(善現) 선업(善業) 선길(善吉) 등으로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하고 위대하게 사신 분이며, 가장 청정한 업을 가지신 분이고, 이 분을 만나기만 하면 좋은 일만 쏟아지는 분이란 뜻입니다. 오늘 <금강경> 설주이신 수보리 존자에 대해 공부하게 되었으니 모두에게 이후부터 좋은 일이 선근이 되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무의식속 아상 없어야 보살

그런 수보리가 <금강경> 첫 장에서 부처님께 청합니다.

"이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되며, 마음은 어떻게 써야 됩니까(應云何住 云何降伏其心)"

첫째 이 세상을 어떻게 살고, 둘째 마음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간단하게 두 가지를 묻습니다. 수보리의 물음에 부처님은 32장에 걸쳐서 설법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사는 법과 마음 쓰는 법 두 가지를 가르치는 경전입니다.

부처님은 세상사는 법에 대해 '응무소주 행어보시(應無所住行於布施)하라' 합니다. 마음을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하라. 베풀면서 살아라, 복을 지으면서 살라는 뜻입니다.

잘 살고 싶으면 복을 지어야 됩니다. 복은 지으면 잘 살게 됩니다. 이 세상 누구를 막론하고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복을 짓지는 않고 잘 살겠다고만 합니다.

다음으로 마음을 어떻게 쓰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에 대해 부처님은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起心)'하라고 했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 공 도리가 뭐냐? '먹은 마음 없이 마음 쓰는 것' 이것이 공 도리입니다.

<금강경>에서 '먹은 마음 없이 베풀고, 먹은 마음 없이 상대와 더불어 사는 이 사상이 다름 아니라 공 사상'입니다.

금강경 좋아하면 운명 바뀌어

<금강경>에서는 아상(我想) 인상(人相) 중생상(衆生相) 수자상(壽者相) 네 가지 상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상이 없으면 보살이고, 가지면 중생입니다.

행자시절 공양주하던 때였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자기 밥그릇은 한 번 더 행궈요. 자기하고 남과의 차이가 이렇게 나더군요. 그래서 행자 때 그것을 느끼고 나서는 똑같이 했습니다. "아, 인간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나 아상 없애기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일본사람들이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그 중 하얼빈 731부대에서 생체 실험한 것이 있습니다. 어린 아기 안고 있는 엄마에게 총을 쏘았습니다. 모성애가 얼마나 강한지 보려고요. 총을 쏘니 자기가 총을 맞고 아기를 보호하는 엄마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성애는 의식이 작동해야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일 불난 집에 자기 아들이 있으면 그것을 보고 의식이 작동합니다. 그러니 불난 집 속으로 어머니가 뛰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날아오는 총알에는 의식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무의식입니다. 무의식에서는 자식도 못 도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무서운 것이 아상입니다.

나는 고집도 없고, 양보도 잘하고, 그런 것 같이 생각되지요. 그렇지만 무의식 속에 그 무서운 아상, 이것이 없어야 보살입니다. 단순한 데서부터 마지막 무의식에까지 아상을 없애야 진짜 아상이 없는 것이 됩니다.

참사람되면 인류가 행복

태교가 중요하다는 것은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태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죽음입니다. 잘 죽어야 합니다.

수복강녕(壽福康寧)은 지금이나 삼천년 전이나 똑같아요. 오래살고, 복 있고, 건강하고.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갖췄어도 좋아하는 것이 없으면 그것이 무슨 복이겠습니까? 좋아하는 것이 있어야 복입니다.

우리가 좋아해야할 복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수보리 존자에 대해 살펴봤으니 수보리 존자가 일으킨 <금강경>을 하루에 한번 읽기를 '좋아하는 것'으로 삼으세요. 이 좋아하는 놈이 우리 업을 바꿔줍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건강상태가 달라지듯이 무엇을 좋아했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바뀝니다. <금강경> 좋아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업이 바뀌지고 운명이 바뀌집니다.

그다음에 잘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임종 직전에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염불하다가 임종하면 최상입니다.

서울에 있는 보현사라는 절을 지은 비구니 스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평생 '지장보살'을 염하다가 입적했습니다. 그런데 숨이 멈춘 뒤에도 손에서 단주가 그냥 돌아갔어요. '딸각 딸각…' 실제로요. 그런 정도로 염불삼매에 빠져야 됩니다.

이보다 더 잘하는 임종이 뭐냐 하면 앉아서 '이뭣고' 화두 들고 있다가 삼매상태에서 임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조사열반으로 최고의 임종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앉아죽고 서서 죽느냐' 하는데 방법은 삼매에 있습니다. 삼매 속에서 임종하기 때문에 앉아서 이 몸뚱이를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삼매가 아니면 죽는 순간 앉은 채로 몸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삼매라야 앉은 채로 몸이 지탱 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죽을 때는 '삼매 속에서 죽어야지'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죽을 때 최선의 힘을 발휘해서 삼매에 들려고 온갖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삼매에 들어서 임종을 하게 되면 최상의 임종이 되겠지요.

아상이 없어지고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지고 수명에 대한 집착이 없어지면 이것이 바로 참다운 사람입니다. 진짜 사람이 되면 한사람 공덕으로 동네가 평안해지고 나라와 인류가 행복해집니다. 그러니 다 함께 발심합시다.

질의응답

문 : 생활 속에서 '마음 비우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수행법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답 : 일전에 틱낙한 스님이 오셔서 한걸음 발을 들면서 화를 내리고, 한걸음 발을 들면서 평화를 생각하라고 하였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화를 내리고, 항상 평화를 생각하고, 항상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땅히 불자로서 일과가 있어야 합니다. '일일일경 수지독송(一日一經 受持讀誦)'. 경전을 읽으세요. 더불어 참선을 한 시간씩 하기를 권합니다.

생활 속에서 불자가 꼭 해야 될 일로 '일일일선(一日一善)'. 하루에 한 가지 선을 실천하자. 무슨 일이라도 하루에 하나의 선을 실천하는 이런 좌우명을 설정해 놓으면 생활 속에서 좋은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삼매 속에서 임종하는 것이 최상입니다. 그러려면 살아있을 적에 빠지지 않고 하루에 한 시간씩 참선을 하는 습관이 들어야 합니다. 평소에 하지 않다가 그때 가서 앉으려하면 앉지 못합니다. 그러니 참선이 되든 안 되든 이것은 상관하지 마세요. 언제 되느냐하면 진짜 발심이 되면 참선은 그냥 됩니다. 발심이 안됐을 때는 억지로 하는 참선이라도 한 시간씩 꼭 하세요.

정리=이준엽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제20기 「전생요법 · 빙의 치유」 특별강좌



상담학 박사 임재형

심리상담 전문가 / 한국생활최면 실천학회장
한국최면지도사협회 회장
한국치유목회대학원 겸임교수
KBS 무한지대큐, MBC TV특종 놀라운세상,
SBS 백만불 미스터리, Vj세상 속으로, iTV, 방송 등 출연
인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청주대학교,외 다수 대학과
공무원 연수원 기업체 등 에서 강의

개강안내 11월 10일 10:00~18:00까지

출석교육과정 매주 목요일 본원출석 7회과정

통신교육과정 전체 교육 내용을 녹화한 비디오테잎 발송(2시간용 총20개)

▶과정별 교재 및 실습테잎 제공

▶교육 참가비 : 200만원
입금계좌 : 조흥은행591-01-008086
(한국의식개발원)

▶특전 : 전생상담사 이수증 발급 및 회원 가입 후 정기적 보충교육 실시

전생(前生), 사주팔자(四柱八字),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본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빙 의 치유법	빙의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왜 들어왔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를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빙의된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영가와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영가가 떠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전생요법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 업장을 해소하고 현세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한다.
사 주 명리학	사주 로 조상영가 보는법... 귀문관살은 정신병이 오기쉽고, 백호대살은 횡사, 악사로 저승사자가 따라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전생에 남의것을 많이 빼앗은자는 이생에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사주 군겁쟁재요....
최면학	최면의 원리, 자기최면, 타인최면 최신기법, 심리치료, 자율훈련, 성격개선, 자신감 고취, 열등감 극복, 공포증 소거법, 집중력, 기억력 초증강법, 슬픔, 번뇌 집착에서 벗어나는 후최면 건망법, 자연치유력 활성법 등

▶1만원을 송금하시면 안내자료 및 공개특강 비디오를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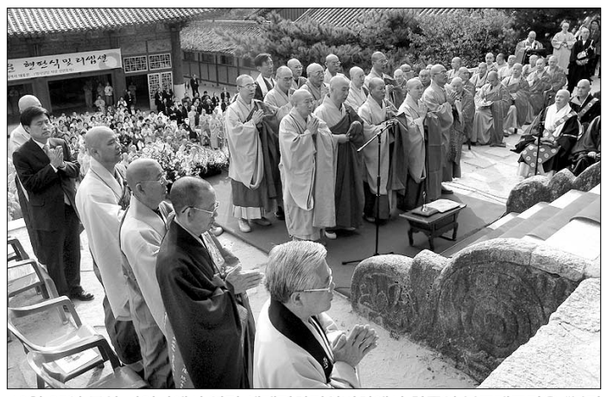
驚異 강의를 마치는 즉시 현장에서 바로 활용됩니다.

•전 화 : (042)255-0734~5
•주 소 : 대전시민회관 후문 청운빌딩 (2층강의실) 대전역에서 5분거리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주최 : 한국전생 · 빙의 연구원
주관 : 한국최면과학원 www.HYPNOS114.COM

“평화·나눔 통해 인류 행복 기원”

한·중·일 불교우호교류 부산대회 성료
각국대표 500여명 참석… ‘황금유대’ 다짐
세계평화기원법회, 국제학술강연 등 열려


10월 25일 부산 범어사에서 열린 세계평화기원법회에서 한중일 불교대표단은 “불자의 힘으로 분쟁 해결에 앞장서자”고 다짐했다.

“한중일 불자들은 힘을 모아 세계평화와 인류화합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기원합니다.”

10월 25일 부산 범어사. 산사의 고요함을 깨는 명종소리가 5번 울려퍼진 후 500여 불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삼귀의례를 올리는 모습은 장관을 이뤘다.

이날의 행사는 한중일 불교의 ‘황금유대’를 위해 열린 제8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 부산대회의 둘째 날 일정인 세계평화기원법회. 법회에 참석한 불자들은 평화기원문과 공동발원문을 채택, 각국의 전통방식으로 예불을 봉행한 후 평화기원문과 공동발원문을 낭독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직무대행 현고 스님은 평화기원문에서 “평등심과 나눔을 통해 인종차별과 사상의 차이를 극복하고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겸 비서장 쓰웨청(學誠) 스님은 “불교도의 이타적 소양을 널리 펼쳐서 다함께 인류의 내일을 창조해나가자”고 말했다.

일중한 국제불교교류협의회 이사장 고바야시 류쇼우(小林隆彰) 스님도 “3국 불교도의 화합은 세계평화를 희구하는 인류 궁극의 이상이다”고 강조했다.

‘제8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 부산대회’는 10월 24~26일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부산 범어사 등지에서 열렸다.

첫째 날에는 한중일 불교우호교류위원회 본회의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초청 환영만찬 등이 열렸다. 한중일 불교우호교류위원회 본회의에서는 제9차 일본대회와 제5차 불교수행체험행사의 일정 등을 내년 3월 30~31일로 예정된 예비회의에서 논의키로 결정했다.

둘째 날 열린 국제학술강연회에서는 동국대 정각원장 진월,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성휘 스님 등이 ‘인류사회의 발전과 삼국불교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발제하고, 태고종 사회부장 법현, 천태종 교육부장 용암, 진각종 문화사회국장 향덕 정사를 비롯한 8명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세째 날에는 통도사.운문사 등 성지순례가 이어졌다.

글·사진/부산=강유신 기자

“10·27 법난 특별법 제정 필요”

국회 공청회 참가자들 ‘진상규명’ 촉구

우리나라 대표적 종교 탄압이자 훼불사건인 10 · 27법난의 진상규명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국대 법대 연기영 교수는 10월 27일 국회 의원식당에서 열린 ‘10 · 27법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주장했다.

연 교수는 “법난은 특정 종교단체에 대한 인권유린행위이며, 종교탄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 교수는 이어 특별법은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자들의 자유와 행복, 화해를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하며 △법난 조사와 관련한 자료 및 물건 등의 제출명령을 받은 기관은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법률안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증언자로 나선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10·27법난의 진실’ 채환규 PD도 “당시 가해자들이 여전히 진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10 · 27법난의 정치사회적 배경과 국가폭력의 정당성 문제’를 발표한 중앙승가대 유승무 교수 역시 “법난은 정당하지 못한 군부세력이 국보위라는 폭력적 국가기구를 통해 불교계 정화란 미명하에 자행된 국가폭력”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한편 공청회에 앞서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이해동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12월 말이나 내년 1월초부터 법난에 대한 진상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며 “법난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철주 기자

진각종 내년예산 160억

‘진각60, 비전27’ 사업에 집중

진각종의 2006년도 예산이 160억원으로 확정됐다. 진각종 종의회(의장 진산)는 10월 20일 총인원 내 무진설법전에서 제 345회 정기종의회를 열어 중앙종무기관 각 부의 내년도 예산안 160억원을 승인했다.

진각종의 내년도 예산배정의 주안점은 창종 60주년 기념사업 준비비를 포함해 소리 통일화작업 등 ‘진각60, 비전27’ 사업구현을 위한 각종 불사부문에 집중시켰다는 것.

유지재단 이사회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한 이날 종의회는 또 12월 5일자로 유지재단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진성 정사와 이행정 전수의 유임을 결의하고, 임기만료와 더불어 정년을 맞이한 현봉 정사의 후임 이사로 경정 정사를 선출했다. 이와 더불어 종의회는 내년 3월 16일과 4월 2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학교법인 회당학원 감사 혜인, 증광 정사를 재추천키로 결의했다. 김원우 기자

백진순·박재현·김귀주
연구기금 수여 대상자로

소장불교학자 지원을 위해 지난해 설립된 ‘한국불교학연구기금(상임대표 법상)’은 제2회 연구기금 수여 대상자로 백진순·박재현 박사와 김귀주씨 등 3인을 선정하고, 27일 수여식을 봉행했다.

백진순씨는 ‘성유식론의 가설에 대한 연구 : 은유적 표현의 근거에 대한 고찰’(연세대 철학과 박사논문)로, 박재현씨는 ‘한국불교의 간화선 전통과 정통성 형성에 관한 연구’(서울대 철학과 박사논문)로 각각 ‘불교관련 박사논문 지원’ 분야에 선정됐다. 김귀주씨(한국학 중앙연구원 박사과정)는 균여의 <일승법계도원통기>를 번역한 공을 인정받았다. 박익순 기자

“간화선 통한 수행·종학체제 정비 시급”

조계종 정체성 확립 위한 워크숍
재가자 포용한 접근 전략 제안

조계종의 정체성은 어떻게 확립해나가야 할까? 조계종 포교원이 이를 주제로 10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포교연구위원회 워크숍을 열었다. 조계종이 종단 정체성 확립을 놓고 공식적인 논의를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조계종 총무국장 만초 스님은 “간화선을 중심으로 수행체계, 종학체계를 정비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으며 수덕사 포교국장 지오 스님과 포교원 신도국장 원철 스님 역시 이에 동의했다.

“조계종은 선불교인 동시에 통불교적인 성격도 지니고 있어 이것이 정체성 형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짚은 지오 스님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종단 차원에서 조계종 수행을 정리하고 간화선 체계를 세울 것 △재가신도들이 지속적으로 점검·지도 받을 수 있는 수행체계를 세울 것 △신행을 넘어 사회환원을 위한 자원봉사 통로를 종단이 열어줄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일부 참석자는 “신도 정체성을 간화선으로만 제한할 경우 대다수의 불자가 종도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생긴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정웅기 사찰경영연구소 부소장은 “조계종 신도는 크게 사찰법회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20%의 핵심층과 신행활동에 무관심한 80%의 잠재적 불자층으로 양분돼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자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개선전략을 수립하는 2차원적 접근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김응철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 이상근 중앙신도회 총무부장, 정우식 조계사 청년회장은 △종단과 승려정체성의 우선적 확립 △80%에 이르는 잠재적 불자층을 끌어안을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접근전략 수립 △입교에서부터 재교육에 이르기까지의 신도교육 체계 재구축 △신도교육의 통일성 및 전략적 접근방안 재수립 △조계종 신도의 소속감을 높이기 위한 1수1입1행(1修1入1行, 하나의 수행을 하고 한 개의 재적사찰을 가지며 하나의 신행을 꾸준히 하는 것) 운동 실천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이은비 기자

“양성평등 직장 만들자”

조계종은 10월 25~26일 교역직 및 일반직 종무원을 대상으로 ‘양성평등한 직장문화 만들기’ 교육을 실시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됐지만 이번에는 의무적으로 전 직원이 교육을 받도록 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이날 강사로 나선 국무총리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종합지원센터 김영란 소장은 △양성평등의 의미 △직장내 성희롱 규정 수위 △성희롱 예방 및 대처법 등에 대해 강의했다. 이은비 기자

범어사, 선문화 체험타운 조성

2010년까지 명상Zone
지유 스님 강의 프로그램도

‘선찰대본산’ 범어사가 명실상부한 선(禪) 중심지로 거듭난다.

부산 범어사(주지 대성)는 10월 26일 ‘세계선문화체험타운 기획단’(단장 윤석진) 현판식을 갖고 선문화체험타운 건설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2010년 완공되는 선문화체험타운에는 7만여평의 부지에 명상체험 존(Zone)과 심신수련 존, 전통문화 체험 존 등의 각종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범어사는 보제루를 중심으로 사찰 내 12개 암자를 하나로 묶는 선수행 종합도량으로 탈바꿈된다.

범어사는 이를 위해 올해 12월경 1차로 참선 최고지도자 과정을 개설해 명상, 요가, 다도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장기적으로는 범어사 조실 지유 스님의 강의를 기초로 한 간화선 프로그램을 개발해 국내 불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불자들에게도 보급할 방침이다.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은 “세계선문화체험타운은 불교 정신문화를 이끌어 갈 인재양성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나아가 한국의 정신문화와 세계인의 정신문화를 주도하는 중심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판식에서 범어사 조실 지유 스님은 법어를 통해 “화엄경, 법화경 등 수 많은 경들이 따로 있는 것처럼 알고 있으나 그 모두는 부처님의 마음”이라며 “깨달음을 얻기 위해 밖에서 헤매지 말고 그 마음을 버리는 것으로 깨달음을 얻으라”고 설했다.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불교 환경의제 21’ 확정

내년 상반기 선포식 예정

‘불교환경활동의 지침서’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불교환경의제21’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정념)는 10월 27일 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지난 2003년부터 공식적으로 추진해온 ‘불교환경의제21’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현안대응에 급급했다”는 지적을 받아 온 불교환경활동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불교환경의제21은 △불교환경 기본의제 △환경친화적인 생활과 수행 △생태사찰 만들기 △수행환경 지키기 △사찰과 지역공동체 등의 5개 분야와 31개 행동목표, 종단 179개, 사찰 133개, 사부대중 110개 등의 행동계획으로 구성돼 있다.

조계종 환경위원장 정념 스님(총무원 사회부장)은 “불교환경의제21을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조만간 종단과 환경단체 등으로 ‘불교환경의제21 실천협의회’를 구성할 방침”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에 불교환경의제21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10월 27일 현재 조계사를 제외한 전국 23개 교구본사중 14개 본사에 환경위원회가 구성됐다고 밝혔다. 유철주 기자

2006 e-불교정보 발간 예정
불교방송 문화사업단

불교방송 문화사업단(단장 구기범)은 불교정보의 현대적 구축과 서비스의 대중화를 위해 ‘2006 e-불교정보’를 발간한다. 기존의 불교전화번호부를 개정·증보한 ‘2006 e-불교정보’는 단체명과 주소, 전화번호부외에 우편번호와 홈페이지 주소까지 추가됐다.

한편 불교방송 문화사업단은 11월 3일 오후 2시 본사 16층에서 출판계약 입찰 설명회를 실시한다. (02)705-5301 노병철 기자

"치솟는 난방비용 이제 마음껏 쓰세요"

난방비의 획기적인 절감 및 균일난방 효과로 현재보다 따뜻하게 쓰면서도 난방비는

최저 20% 최고 50%까지 절감됩니다. (최저 15% 법적보장)

저렴하고 간단한 설치로 한여름처럼 보낼 수 있습니다.

EPS밸브를 설치하게되면

- 내 방은 내 마음대로 원하는 난방온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침실 22℃, 거실 18℃, 공부방 20℃, 할머니방 26℃)
- 시공과 운전조작이 간편함
- 불필요한 보일러의 가동시간을 줄여 세대 내 모든 공간을 한여름처럼 난방을 하면서 난방비를 20~50%까지 절감시켜줍니다
- 아파트의 가격상승 및 선호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EPS밸브는 이런곳에 사용 됩니다.

- 난방비가 부담스러워 보조난로, 전기장판을 사용하면서도 쾌적한 난방효과가 없는 집(화재요인감소)
- 터무니 없는 난방비에 비해 추운집(안방은 덥고 할머니 방은 추운 곳)
- 방마다 온도조절을 따로 하거나 별도의 난방시공을 해야 하는 집
- 심야전기용량이 부족한 집
- 한여름 처럼 난방을 하면서 난방비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집

※ 전국사찰, 개별보일러, 심야전기보일러 등

(주) 이플러스세이버 TEL. 02)470-0400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제5차 공청회

우리 위원회는 불교대학발전에 대한 사부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일련의 공청회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금번 공청회는 “불교대학과 대학원의 편제 및 운영에 관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개최되며, 그동안의 공청회를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주 제 : 불교대학·대학원의 편제 및 운영에 관한 개선방안

■일 시 : 2005년 11월 11일(金) 오후 1시

■장 소 : 동국대학교 다향관 세미나실

○사회 : 학담 스님(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

○발제 및 논평(오후1시 ~ 3시 30분)

⊙. 발 제 : 불교대학·대학원의 편제 및 운영에 관한 개선방안
/조용길 교수(동국대 불교대학 학장 겸 대학원장)

◎제1논평 : 불교대학·대학원의 편제 및 운영에 관한 개선방안
/우제선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김호성 교수(동국대 인도철학과)
/종호 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

◎제2논평 : 불교대학·대학원의 편제 및 운영에 관한 개선방안
(동국대학교 불교대학·대학원에 대한 기대와 요구)
/장익 교수(위덕대 불교문화학부)

○종합토론(오후3시40분 ~ 5시)

○지정토론 : 동국대 불교학과·인도철학과·선학과강사

○방청토론 : 참석대중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불교대학발전위원회

문의 : 02)2260-3768

단풍보다 진한 산사의 추억

세계국술원 회원 300여명 백담사서 사찰 체험

아침 햇살 속의 단풍은 불꽃이었다. 10월 26일 아침. 붉고 누른 불꽃으로 빛나는 내설악 백담사 계곡에 때 아닌 탑 쌓기 불사(佛事)가 벌어졌다. 300여명의 외국인들이 5인 1조로 나뉘어 15분 동안 '보다 높게 보다 크게 보다 아름답게' 탑을 쌓느라 왁자지껄 했다.

10월 22일과 23일 부산에서 세계국술원 선수권 대회 및 시범경기 행사를 치르고 백담사(주지 일문) 사찰 체험에 참가한 세계 국술원 가족들의 탑 쌓기 경연이었다.

25일 오후 백담사에 도착해 백담사 회주 오현 스님의 환영법어로 입제식을 갖고 1박2일의 사찰 체험에 든 국술원 가족들은 계룡산 무상선원의 무심 스님으로부터 한국불교에 대한 강의를 듣고 참선 지도를 받았다.

또 25일 저녁 백담사 대웅보전에서 봉행된 전통제례의식을 관람하고 26일 새벽예불에도 동참했다. 탑 쌓기 경연은 한국사찰에서 하룻밤 동안 체험하고 배운 것을 마음속 깊이 갈무리 하는 이벤트였다.

"참선 하듯이…참선 하듯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온 마고 헥스트라(26) 양이 이끄는 팀은 지난밤에 무심에게 배운 참선하는 마음으로 탑을 쌓으라고 동료들을 독려했다. 자신들의 키만큼 높게 쌓는 것이 목표였고 중간에 한 번도 허물어지지 않고 키 높이의 돌탑을 쌓았다. 마고양은 "상은 못 받았지만 탑을 쌓는 즐거움은 오래 기억될 것"이라며 흡족해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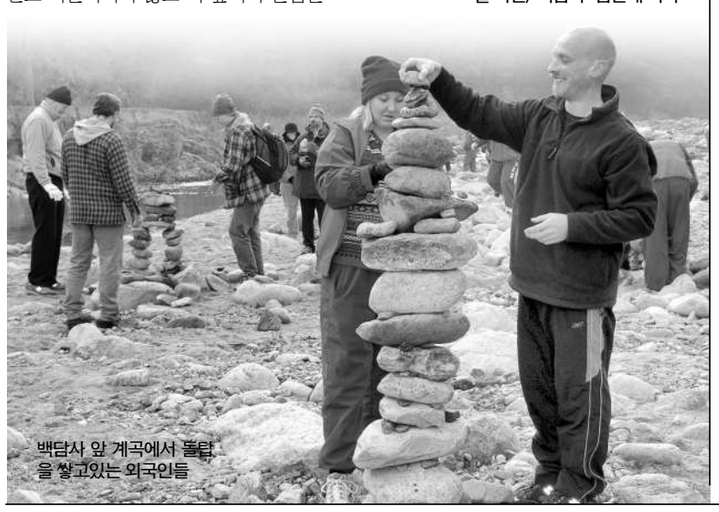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밥 베더(48)씨 팀은 '산과 절 그리고 가을'을 주제로 탑을 쌓았다. 큰 바위를 산으로 삼고 그 위에 탑을 쌓고 탑 층계마다 낙엽을 장엄해 4등을 차지했지만 심사 도중에 "회장님 잘 봐주세요. 점심 사 드릴께요"라고 청탁성 아부를 떨어 '팔굽혀 펴기 5회 실시'의 벌칙도 받았다.

맨 위에서 묵묵히 탑을 쌓는 마이크 스미스(34)씨 팀. "서부 텍사스 국술원 가족의 명예를 걸고 최고의 탑을 만든다"는 게 이들의 각오. 큰 돌들을 모으느라 이마에 땀이 맺혔고 차곡차곡 20여개나 쌓아 올리느라 등에 진땀이 났지만 웅장하게 솟은 탑으로 최고 점수를 받아 1등을 차지했다.

참선실수·전통제례의식 관람
새벽예불 동참·돌탑 쌓기 등
"고국에 돌아가서 자랑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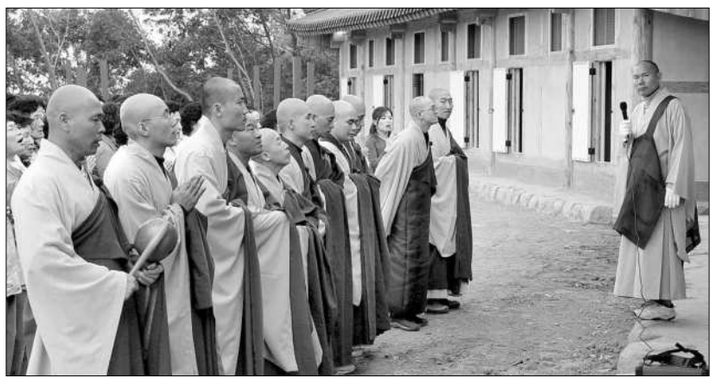
1박 2일의 산사체험을 마치며 서인주 회장은 "세계의 국술원 가족들은 150만 명인데 모두 한국의 전통무술을 배우는 사람답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며 "회원들은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서도 한국의 산사체험을 자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술원 가족들은 설악산 단풍보다 진한 사찰 체험의 추억을 가슴에 새기고 서울을 거쳐 28일 각자의 나라로 돌아갔다.

글 사진/ 백담사=임연태 기자


백담사 앞 계곡에서 돌탑을 쌓고있는 외국인들

감포에 '문 없는 문' 열어

영남불교대학 무문관 무일선원 개원, 18명 입방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는 10월 24일 경주 감포에 무문관 선방 무일선원을 낙성했다.

영남불교대학 관음사(회주 우학)는 10월 24일 경주 감포도량(주지 연봉)에서 무문관 선방 무일선원 낙성식을 봉행했다.

회주 우학 스님, 감포도량 주지 연봉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5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거행된 낙성식은 현판식, 육법공양, 축하음성공양, 우학 스님 인사, 테이프 절단식, 관세음보살 정근, 선방 안내로 진행됐다.

회주 우학 스님은 "진실한 자성자리 찾는 참선 도량을 찾아 2001년 감포도량을 개원하고, 지난해 백담사 무문관에서의 수행체험을 통해 무문관 건립 의지를 굳히게 됐다"고 밝혔다.

무일선원 무문관은 이번 동안거부터 가방부를 들인 승납 10~20년 비구 200명 가운데 특별히 선발된 18명의 눈 푸른 납자가 입방해 생사를 건 용맹정진에 들어가게 된다. 무일선원은 약 4평 정도의 선방 18칸, 2층 규모의 요사채를 갖췄다. 글 · 사진/경주=배지선 기자


10월22일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금산사 주지로 취임한 원행 스님이 취임사를 하는 모습.

"미륵십선운동 활발히 전개할 터"

금산사 13대 주지 원행 스님 취임식 및 1406주년 개산대재

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 13대 주지 원행 스님 취임식이 10월 22일 오전 10시 대적광전 앞뜰에서 봉행됐다.

금산사 산문이 열린지 1406주년을 기념하는 개산대재를 겸한 이날 취임식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은해사 주지 법타, 월정사 주지 정념, 대흥사 주지 몽산, 백양사 주지 두백 스님 등 각 교구본사 주지와 영담 학담 월우 설송 스님 등 중앙종회의원, 김완주 전주시장, 유성엽 정읍시장 등 지역 기관장, 김백호 전북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주지 원행 스님은 취임사에서 "미륵십선운동을 활기차게 전개해 나가겠다"며 "이를위해 정유재란 때 소실된 봉천원 선방과 역경의 산실인 광교원을 복원해 포교와 전법교화, 복지에 혼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글 · 사진/김제=이준엽 기자

광주 · 전남 불교합창제 성황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혜향)는 지난 10월 26일 5 · 18 기념 문화관 민주홀에서 '광주, 전남 불교합창 예술제'(사진)를 개최했다.

9회째를 맞는 이번 예술제에는 향림사 백양사 원효사 증심사 원각사 무각사 한마음선원 광주불교사암연합회 합창단 등 8개 합창단이 참석해 경연을 펼쳤다.

혜향 스님은 인사말에서 "찬불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또 다른 정진이자 포교의 방편"이라고 말했다. 예술제는 정보 스님의 지장보살 찬탄가와 시타르 연주자의 죽헌산고, 대중가수 오목대의 초청무대도 함께 펼쳐졌다.

글 · 사진=이준엽 기자

공주 갑사 영규대사 추모재



공주 계룡산 갑사(주지 장곡)는 10월 22일 갑사 표충원에서 '제6회 기허당 영규대사 추모대재'(사진)를 봉행했다.

추모대재에는 조계종 군종교구장 일면 스님, 갑사 주지 장곡 스님, 심대평 충남지사, 오영희 공주시장 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했다. 갑사는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기허당 영규대사와 800여 의승군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매년 추모대재를 열어왔다. 한명우 기자

천태종 의정부 정화사 봉불식

경기북부지역 유일한 천태종 사찰인 의정부 정화사(주지 탄성)가 10월 22일 오전 10시 '상월원각대조사 진영 및 관음조상 봉불식'을 녹양동 새 가람에서 봉행했다.

천태종 총무원 부원장 춘광 스님의 증명으로 열린 이날 봉불식에는 종단 스님 20여명과 의정부사암련 회장 종명 스님, 열린우리당 강성종의원 등 사부대중 500명이 참석했다. 조용수 기자

호국영령 위한 합동 위령제



남양주 · 구리시 불교사원연합회(공동회장 철안 · 금담) 산하 수동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혜원)는 최근 원적사 충혼탑에서 6 · 25전쟁 당시 산화한 이 지역 애국선열들의 넋을 기리는 '제2회 호국영령을 위한 합동위령제'(사진)를 봉행했다. 이날 위령제에는 지역 스님들과 관내 각급 기관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불교사원연합회 산하 천수천안 자원봉사단(단장 금담)은 남양주 자원봉사센터와 청년회의소 후원으로 10월 11일부터 11월1일까지 청소년 사회문제를 주제로 전문자원봉사교육을 실시했다. 한명우 기자

대구지하철 2호선 26개역 부처님 법음 게시판 설치

풍경소리 대구경북지부(지부장 류병구)가 10월 26일 대구지하철 2호선 26개 전 역사 상행선과 하행선에 각 1점, 역마다 2개씩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는 게시판을 설치했다. 류병구 회장은 "대구지하철 2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부처님 법음을 전하게 돼 기쁘다"며 "지하철 2호선 주변사찰들의 협찬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풍경소리는 수도권 전철을 비롯해 대구, 부산, 광주, 인천 지하철 주요 역사 639곳에 총 1849개의 게시판을 설치해 부처님 법음을 전하고 있다. 배지선 기자

백양사, 박정자 전통불화·그림엽서展

장성 백양사(주지 두백)는 백양단풍축제를 기념해 10월 2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성보박물관에서 '박정자 전통불화 및 그림엽서 특별전'을 개최한다.

불화에 대한 이해와 생활 속에 불교문양을 활용하도록 하기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회에는 불화가 박정자(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후보)씨의 불화작품 50점, 그림엽서 20점이 전시된다. 이준엽 기자

광주 혜룡사, 교도소 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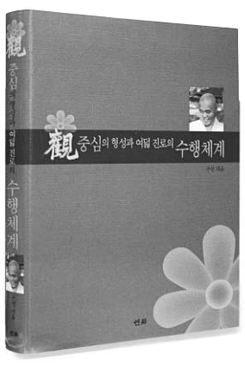
광주 혜룡사(주지 혜우)는 10월 20일 순천 교도소에서 '수용자 위문공연'을 개최했다.

이날 공연에는 1000여명의 재소자가 참석한 가운데 배소연, 허연이씨 등 대중가수와 4인조 댄싱팀 등이 출연해 수용자들을 위로했다. 매달 전국 교도소를 방문해 교화활동을 펼치고 있는 혜우 스님은 인사말에서 "죄업은 참회하고, 참 마음을 찾아 더 이상 업장을 짓지 않도록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준엽 기자

대승불교 최고의 수행체계

觀 중심의 형성과 여덟 진로의 수행체계



한 경계에 집착하면 그 죄가 수미산 같고,
한 경계를 저버리면 아비지옥에 떨어진다.
이러할 때 그 한 경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 순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한 경계를 절실하게
대할 줄 아는 사람만이 깨어 있을 수 있으며
그로써 나와 경계가 되는 경지를 맛볼 수 있다.

수행자라면 한 경계를 통해 여덟 진로의 수행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한다.

여덟 가지 진로의 수행은 서로 맞물려 있어서 어느 하나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수레바퀴에 비유된다.
바퀴의 살이 하나만 빠져도 바퀴 전체가 찌그러지듯이, 여덟 가지 진로의 수행은 어느 한 가지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여덟 진로의 수행체계는 필자가 직접 수행해 온 경험이며, 또한 팔 년 동안 후인들을 지도하면서 얻어진 결과들이다. 때문에 누구라도 닦아서 체득할 수 있는 법들이다. 수행자가 비록 자성의 공(空)함을 인식했더라도 이처럼 여덟 가지 진로로 자기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를 제도하는 것과 주변 경계와 조화를 도모하는 것이 여덟 가지 일로서 원만해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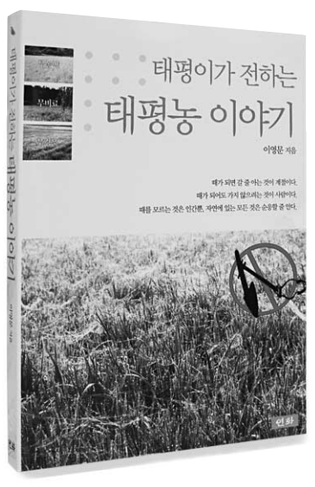
여덟 가지 진로의 수행

• 첫째는 자기 중심을 통해 조견을 행하는 일이다.
자기 중심이란 기슴바탕에 세워진 마음거울, 즉 조견의 주체이다. 한 경계를 놓고 중심을 통한 조견을 행하는 것은 안으로는 중심의 진보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밖으로는 경계와 의식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이다.
• 둘째는 자기 근본의 일이다.
자기 근본이란 의식의 발원처를 말한다. 한 경계를 통해 근본의 일을 행한다는 것은 경계를 중심에 비추어서 근본을 인식하는 척도로 삼는 것을 말한다.
• 셋째는 자기 면모의 일이다.
자기 면모는 자기를 이루는 의식체계를 말한다. 생명의 내부의식은 '색, 수, 상, 행, 식'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 경계를 통해서 자기 면모의 일을 행한다는 것은 한 경계를 중심에 비추어서 좀더 깊고 넓게 내부의식이 발현되도록 하는 것이다.
• 넷째는 각성을 증득하는 일이다.
각성이란 자기를 주시하는 의지적인 힘이다. 각성은 조견의 행을 통해서 키워진다. 중심을 주체로 해서 조견이 이루어질 때 의지가 경계와 근본 그리고 중심 사이를 넘나들며 키워지는 것이 각성이다.
• 다섯째는 자기 존재목적을 실현하는 일이다.
자기 존재목적이란 세상이 아름다워지는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말한다. 경계를 놓고 보면 경계가 아름다워지는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곧 자기 존재목적이 된다. 경계와 자기간의 조화가 실현되었을 때 이때를 일러 '자기 존재목적을 실현했다.'라고 말한다.
• 여섯째는 좀더 넓은 교류성을 갖추는 것이다.
사람은 스스로가 갖고 있는 의식의 역량과 근본을 주시할 수 있는 각성의 정도, 그리고 중심을 활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서로 다른 차원의 교류성을 갖게 된다.
• 일곱째는 자기 인식의 틀을 넓히는 것이다.
자기 인식의 틀이란 자기 인식이 활용되는 범주를 말한다. 존재는 자기 인식의 틀에 입각해서 세상을 보고 자기를 활용한다. 자기 인식의 틀을 바로 보아서 그것을 넓혀 갈 줄 아는 사람은 삶을 발전적으로 이끌어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정체된 삶을 살아간다.
• 여덟째는 자기를 제도하는 일이다.
자기제도란 자기의 습성과 관념을 제도하는 것이다. 이는 몸의 제도와 마음의 제도로 나뉘어진다. 본성의 공함을 증득하기 이전에는 방편이나 중심을 통해 자기제도를 행하고 본성을 증득한 이후에는 성품의 공한 자리와 거기에서 생성되는 기운을 활용해서 자기제도를 행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깨달음만을 추구하고 그 이외의 삶들을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해서 따가운 질책을 가한다. 특히 수행한다는 명복을 내세워서 또 다른 존재와 원만하게 어우러지지 못하고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통렬하게 비판한다. 한순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한 경계를 절실하게 대할 줄 아는 사람만이 깨어 있을 수 있으며 경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경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경지를 맛볼 수 있다고 말한다. 목전에 처해진 한 경계를 그냥 도외시 하지말고 그를 통해 여덟 진로로 자기를 발전시켜 갈 것을 주장한다.

▌구선 지음 / 312쪽 / 값 18,000원

태평이가 전하는 태평농 이야기



'때가 되어 갈 줄 아는 것이 계절이고
때가 되어도 가지 않으려는 것이 사람이다.
때를 모르는 것은 인간 뿐,
자연에 있는 모든 것은 순응할 줄 안다.'

이 책은 농사를 통해 자연과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경상도 외딴 곳 별학섬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이 시대 최고의 태평꾼 이영문이 전하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만나본다.

태평농법!!
이것은 단순한 농사법이 아닌 인간과 자연이 서로 교감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영문 지음 / 368쪽 / 값 10,000원

그는 이미 태평농법을 삶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흙이 살아야 사람이 산다' 라고 주장한다.
적게 먹는 즐거움도 이야기하고 있다.
자연과 삶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사람과 자연, 아니 자연 속에 있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알고 있는 것이다.
그가 어찌 농사짓는 법으로 만족할 사람인가?
그에게 모든 것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기에 외부로부터 단절당한 섬이라는 문화권에서 새로운 문명을 열어 가려고 하는 것이다.

- 최진룡(국립경상대학교 농대 교수)

도서출판 연화 TEL 02)302-8145, 054)682-7770 / FAX 054)682-8155 http://www.kwan.or.kr

나눔단체-릴레이 탐방

수원 서호노인종합복지관 화요급식팀

도시락보다 더 따뜻한 마음으로…

수원포교당(주지 성관)에서 운영하는 수원 서호노인종합복지관(관장 성보) 주방. 10월 18일 아침부터 부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 수원포교당 신도들로 구성된 '화요급식팀'이다. 급식팀의 하루 첫 활동은 도시락 70여 개를 마련하는 것. 도시락에는 복지관에 나오기조차 힘든 어르신들을 위한 급식팀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있다.

"난 도시락 쌀 때가 제일 기쁘더라구요. 아무래도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바로 전달이 되는 것이니까요."

한 보살이 정겹게 이야기하자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인다. 모두 공감하기 때문이다.

봉사팀은 40~60대의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돼 있다. 젊은 축에 속하는 40대 그룹은 항상 궂은일을 자처한다. 설거지, 뒷정리 등을 도맡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을 내세우기 보다는 조금 더 연배가 있는 분들이 앞장서서 화요팀의 얼굴이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60대 그룹도 결코 힘든 일을 마다않는다. 노보살들의 의지가 젊은 보살들의 힘이 되기에 60대 봉사자들은 그 존재 자체가 소중하다.

각자 연령도 천차만별, 봉사 경력도 가지가지인 사람들 10여명이 화합의 힘으로 벌써 4년 이상 활동을 해왔다니, 무슨 비결이라도 있는 것일까. 비결을 알려달라는 질문에 급식팀은 서로 마주 보면서 빙그레 웃고 만다. 그러고는 여기저기서 하는 말한다.

"봉사는 정말 자기 자신에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주어진대로 열심히 할 뿐이에요"

이는 봉사 현장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흔한 말이기도 하지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도 힘든 말이다. 그만큼 봉사가 삶의 일부로 자리 잡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서호 화요급식팀 보살들은 자신들만 좋은 일을 하고, 보람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주위 불자들에게도 봉사활동 시작 방법을 일러주고 있다.

"봉사하고 싶어도 길을 몰라 못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주위의 가까운 도반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세요. 나눔의 손길을 원하는 곳은 생각보다 훨씬 많이 있답니다." 글 · 사진/수원=김강진 기자


서호노인복지관 '화요급식팀'이 복지관 식당에서 배식하고 있다.

식재료 · TV 후원 기다립니다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서호노인복지관에서는 영양가 높은 식사를 만들 수 있는 식재료 후원을 기다리고 있다. 부식, 쌀 등 무엇이든 마음을 내서 보시할 수 있다. 여기에 화요급식팀 보살들은 "무의탁 어르신들에게 가정에서 쓰지 않는 텔레비전 같은 가전제품을 전달할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031)291-0911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투병하는 아이들의 힘이 돼 주세요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소아암환자돕기 합창제 열어


10월 30일 열린 '소아암환자돕기 한마음 합창제'에서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합창단이 공연하고 있다.

10월 30일 울산문화예술회관, 사바세계에 와서 미처 다 자라기도 전에 소아암을 앓고 있는 어린이와 그 아이를 지켜봐야 하는 부모의 아픔 마음을 선법가로 녹이는 아름다운 공연이 열렸다.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지원장 혜안)의 사부대중들은 '소아암 환자돕기 한마음 합창제'를 열고 소아암 환우와 그 가족들의 고통이 소멸되길 염원하는 '마음의 불씨'를 지폈다. 마음과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고 자유인의 길을 걸을 수 있길 기원하며 열린 이날 무대는 <삼세심을 전달하니> <돌 장승 우는 소식> 등의 선법가와 조혜영, 성채영 여성 2중창, 테너 장원상 독창, 꽁트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꾸며졌다.

한마음선원주지 혜원 스님, 울산 사암연합회장 눌암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어머니합창단, 거사 합창단, 어린이, 청년합창단을 비롯 한마음선원 중부경남 지원, 진주지원 어머니 합창단까지 150여 명의 단원들이 지펴 올린 '마음의 불씨'는 관중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고 우주 법계를 울리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바쁜 직장, 가정 생활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소아암 환자들의 고통을 한마음의 도리로 녹이겠다는 마음 하나로 달려온 6개월의 정진이 있었기에 가능한 무대였다.

1996년 어머니 합창단을 시작으로 활동을 시작한 울산지원 합창단이 주최가 돼 이처럼 큰 무대를 마련한 것은 처음. 이연숙(보만.47) 단장은 "선법가를 부르면서 느꼈던 감사함을 소아암 어린이를 돕는 일로 회향할 수 있어 무엇보다 기쁘다"고 말했다.

공연 당일 모금된 보시금 전액인 3천만원은 10월 31일, 혜자 스님, 윤건우 신도회장, 이연숙 단장 등이 박맹우 울산 시장을 만나 전달했으며 향후 소아암 환자들을 돕는데 쓰여지게 된다. 글 · 사진/울산=천미희 기자

도와주세요

생명나눔 11월의 환우
모야모야병 양필모씨



생명나눔실천본부가 11월의 환우로 선정한 양필모(31)씨. 현재 양씨의 오른쪽 머리는 사선으로 잘려나간 모양을 하고 있다. 올 6월 모야모야병으로 진단받은 후 뇌혈종제거수술, 뇌부종에 대한 두개골 절제술을 연달아 받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언어장애까지 겪게 됐지만 양씨는 적극적으로 재활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양씨는 어린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마저 가출해 갖은 고생을 다해왔다. 20대에 다시 어머니와 재회하고 성실히 살아오던 중 갑자기 병마가 닥친 것이다.

양씨는 자신보다 어머니가 더 걱정이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투병생활을 하게 된다. "어머니를 편하게 모셔야 될 텐데…. 빨리 일어서야죠." (02)734-8050 김강진 기자

2005년 나눔 캠페인 어떻게 진행되나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2005년에도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근접하며, 나눔과 봉사가 사회의 아젠다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사는 부처님의 동체대비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고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되도록 나눔운동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 **나눔의 법보시 운동 전개** 군부대나 교도소, 대학, 어린이 청소년 법회가 열리는 사찰이나 복지시설 등에 신문을 보내는 법보시 운동을 전개합니다. 또 농어촌이나 낙도 그리고 불우 이웃들에게 신문을 보내 마음의 풍요를 주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월 1천원 1구좌로 보시처를 지정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나눔단체를 소개합니다** 나눔단체를 탐방하고, 주요사업으로 벌이는 봉사 현장을 소개합니다. 또 각 단체가 소개하는 후원이 필요하는 곳도 제보바랍니다.

♥ **나눔의 성금 모으기** 나눔성금 모금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합니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금' '독거노인 우유보내기 기금' '시설아동 지원기금' '장애우 돕기 기금' 등에 전달할 기금은 본사 나눔의 손잡기 계좌(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로 접수하면 됩니다. 또 전화 한통화로 3천원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본사 ARS(060-700-1080)를 통해 성금을 기탁해주세요.

♥ **협력종단 및 단체 지원사업** 올해 협력 종단 및 단체들과도 계속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합니다. 또 대원정사및 우리는 선우와 나눔의 등달기 행사를 공동개최합니다.

♥ **어려운 이웃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 소개**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또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에서 벌이는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도 제보해주십시오.

일허 스님 달마도 구입안내

백혈병을 앓고 있는 민수돕기에 일허 스님(밀양 영천암 주지)이 달마도 100장을 보시했습니다. 달마도(사진)는 35×45(㎝)규격이며, 작품 가격은 장당 5만원입니다. 판매 수익금은 전액 민수의 치료비로 사용됩니다.

달마도 구입 문의: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39

영천암 (055)356-2040, 일허 스님 011-867-4747

계좌번호: 006001-04-095472, 국민은행 예금주: 김강진 (현대불교)



완치되는 그날까지 민수돕기 모금운동 계속됩니다

현대불교 나눔의 손잡기에서는 골수성 백혈병을 앓고 있는 민수돕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민수가 완쾌되는 그날까지 각 사찰 단체 개인 불자들의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문의: 나눔의 손잡기 (02)2004-8234

도움주실 곳: 927-12-838466(농협 예금주 김형찬). 016-547-8672

hompy.buddhapia.com/homepy/helpminsu

나눔의 손잡기 <동참문의 및 제보> 전화 (02)2004-8234 / 인터넷 홈페이지buddhanews.com '나눔의 손잡기'/ 동참계좌 :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 김원우 / ARS 060-700-1080(한통화 3천원) 나눔의 손잡기

제 1회
미주 한국 불교 포교 40주년기념 HONOLULU, HAWAII
한·미 불교인 심포지움과 친선 체육대회
천혜의 자연! 하와이에서 불자님 여러분을 초대 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하와이 정법사에서 미주 포교 40주년을 맞이 하면서 한국불교 미국속의 역할과 뿌리를 내리기 위한 방법과 모색을 위하고 불자님들의 한•미간 교류를 통하여 정체성을 다지고 나아가 상호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심포지움을 개최 하오니 많은 불자님들의 배전의 성원과 많은 참석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와이 불교 심포지움 & 골프 및 관광 6일 2005년 11월 30일 출발
제 1일 (11월 30일) 하와이 호놀루루, 한미 불교인 축하 만찬법회 참석
제 2일 (12월 1일) 한미 불교인 친선 골프대회장 이동(Prince Golf Course Rounding), 시상식 및 만찬
골프장 미참석시 관광(바람산, 주정부청사, 이올리니 왕궁, 가메하메하대왕 동상 관람, 호놀루루 시청등 관광
제 3일 (12월 2일) 오하우섬 일주관광
제 4일 (12월 3일) 자유시간(와이키키해변 해수욕등 해양스포츠 선택관람)
제 5일 (12월 4일) 호텔 체크아웃 호놀루루출발 인천국제공항 도착
심포지움
일 시 | 2005년 11월 30일 (수요일) 하와이 현지시간
장 소 | 힐튼 하와이안 빌리지 호텔 코랄 볼룸(호놀루루 하와이)
주 제 | 1) 한국불교 미국속의 동포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2) 한국불교 미국속에 뿌리를 내리기 위한 방법 모색
토 론 | 휘광 스님 (뉴욕 불광사 주지 스님)
총진행 | 성원스님(웨스트 대학 교수)
친선체육대회(Golf)
일 시 | 2005년 12월 1일 (목요일) 하와이 현지시간
장 소 | 하와이 프린스 골프코스
특별참가자 | 불자님중에 현역 여자 프로골퍼와 가수, 탤런트등 다수 참가 예정입니다.
시상식 및 저녁만찬 | 가) 하와이 프린스 골프코스 클럽하우스
나) 홀인원상 과 3홀 3곳에서 상금 각 US $10,000 1곳에서는 벤츠승용차 제공. 우승, 메달리스트, 준우승, 롱기스트, 니어리스트, 행운상등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경기는 샷건과 켈러웨이 방식입니다.
1인 149만 5천원 선착순 80명한
▪ 축하만찬법회 참가비 ($100), 골프대회 참가비($150), 팁과 중식 (1회)요금은 별도입니다.
▪ 항공료, 호텔 숙박비 및 식사, 차량, 안내원, 여행자보험(1억원),공항세, 유류 할증료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접수처 (주)미문여행사 : 02)722-8111 | 투어오픈여행사 : 02)736-2000 | 시티여행사 : 02)737-4757

현불 프리미엄 불교성지 순례 | 부처님의 땅, 인도 - 불교의 원류를 찾아서…
불교를 잘 아는 현대불교신문 여행사업팀이 엄선한,
수준높은 인도 불교 성지순례
'프리미엄 인도 12'
인도 불교 성지순례
제1일 인천국제공항 출발 델리 도착
제2일 간디 화장터, 자마마스지드(회교사원) 시크교사원, 인도문, 인도정부빌딩
제3일 갠지스강 보팅 녹야원 싸르나트박물관 중국사원
제4일 부다가야 금강보좌 니련전하
제5일 나란다 대학, 라지기르 도착 왕사성, 영취산 영산회상, 죽림정사
제6일 유마경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바이샬리 순례
제7일 부처님의 열반지 쿠쉬나가르 열반지 순례 열반지, 다비터
제8일 부처님 생장지 카필라성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 네팔 관광 | 마야데비사원, 구룽족 순례, 아숙필러 순례
제9일 사헤트/마헤트 방문 앙굴리 마라터, 간다쿠티/ 보리수 참배
제10일 아그라 타지마할, 더알박사원
제11일 델리투어 연꽃사원 차탈푸르 흰두교사원, 쿠툽탑
제12일 델리 출발 인천국제공항 도착
11월 28일 출발 | 접수마감 : 11월 15일
동참금 : 235만원
■ 전일정 특급호텔 투숙
■ 불교를 잘 아는 현대 불교신문 여행사업팀의 수준높은 불교성지 순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지마할 아그라 성 싸르나트 마메크탑 부다가야 대탑 쿠쉬나가르 열반당
현불 현대불교신문 여행사업팀 THE HYUNDAE BULKYO TRAVEL TEAM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
접수처 : TEL 02)2004-8295~6 | 사업팀 최언규(원각) 팀장 : 018-366-1002
협력사 미문여행사 02)722-8111 / 인솔 법사 : 이선행 스님
■ 지사 / 지국 안내 : 부산지사 051)632-0064 / 대구지사 053)768-8008 / 호남지사 062)375-9986 / 대전 · 충북지사 043)732-5560 / 울산지사 052)272-0909 / 경남동부지사 055)353-1196 / 경남서부지사 055)547-3469 / 영주지국 054)634-3429



중국 호북성 황매현에 위치한 사조사 앞에 한국의 선원장 스님들이 섰다. 왼쪽부터 수련, 지현, 원타, 철산, 불산, 원각, 혜국, 형기, 현산, 고우, 무여, 인각, 일오, 일수, 영진, 설우, 신룡, 상설 스님.


사조사 안의 도신 스님 좌상과 영진 스님.


도신 스님의 진신상이 모셔진 사조탑.

묶은 이가 없으니 이미 해탈자 아닌가

선원장, 禪의 원류를 찾다

- 중국 선종 초조에서 8조까지

4조 도신 : 영진 스님 (전국선원대표자회의 의장)

쌍봉산 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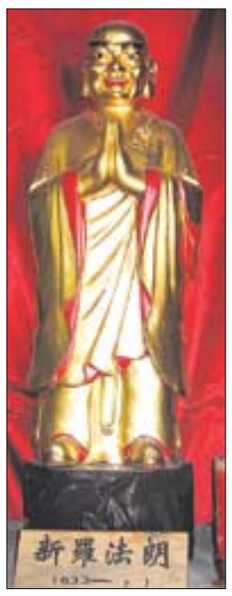
호북성 황매현 쌍봉산에 접어들자 눈앞에 펼쳐지는 전경이 낯설지 않았다. 웅장한 산을 배경으로 자리한 사조사(四祖寺)는 30여 년 전 처음 발심하고 들어섰던 금산사와 다름이 없었다. 사천왕문을 지나 대불전으로 향하는 발걸음도 행자시절 예불시간에 맞춰 법당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인 듯했다. 아마도 전생 어느 땐가 여기서 이렇게 걸었던가 보다.

더웠다. 가사를 수하고 나니 땀을 화두삼아 용맹정진 하는 듯했다. 그나마 대불전 뒤편 조사전을 향하는 길은 나은 편이었다. 도량 옆으로 난 오솔길을 오르다보니 탁석천(卓錫泉)이 나왔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모두가 약수 한 모금으로 열기를 식혔다.

사조사의 옛 이름은 정각선사(正覺禪寺)다. 당 무덕 7년 (624) 도신 (道信.580-651) 조사가 창건했고, 나라에서 정각선사라는 편액을 하사했다. 창건 당시 사조사는 800칸에 1000명의 수좌들이 수행하던 대찰이었다. 1400년 세월동안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 조사전과 몇몇 석조물만 남았다. 근래 들어 천왕전, 대불전, 관음전, 지장전, 화엄전, 조당, 장경루, 종고루 등 30여개의 전각이 복원되었고, 아직도 중창불사가 한창이다.

조사전 안에는 각종 편액과 도신 스님의 상이 모셔져있다.

"지심귀명례, 머나먼 해동의 제자들이 조사님 전에 예를 올립니다."



사조탑 안에 모셔진 신라 법랑 스님 상. 도신 스님의 제자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그동안 도신 스님에 대해서는 단지 '조사법맥을 이은 스님'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부끄럽게도 바랑메고 수십 년 간 전국의 제방선원을 다니며 '참마음'을 찾았지만 도신 스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식견뿐이었다. 초조 달마와 6조 혜능에 묻혔던 것이다.

그렇지만 중국 현지에서 만난 도신 스님은 불교선종사 뿐 아니라 해동의 선불교에 굵직한 획을 그은 매우 중차대한 스승으로 다가왔다.

도신 스님이 법을 펴던 때는 시기적으로 수나라가 멸하고 당나라가 새롭게 들어선 어수선한 때였다. 폐불법란과 전쟁으로 명맥이 쇠약해진 선종 교단은 정각선사(사조사)가 건립되면서 새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4조 도신 스님을 중심으로 납자들이 모여 집단수행을 시작한 것이다.

당시 3조까지만 해도 중국선종은 걸식하며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두타행이 주류를 이루었다.

해동 선불교에 한 획 그어

이번 중국 만행길에서 만난 초조 달마대사의 소림굴도 작은 동굴이었다. 실제 이조, 삼조가 주석했던 사찰도 당시에는 작은 암자에 불과했다.

그렇지만 사조사를 참배하면서 대찰의 위엄을 찾을 수 있었다. 대중이 무리를 지어 수행했다는 것은 농사를 지으며 자급자족했다는 것을 뜻한다.

도신 스님은 상단법문을 통해 이렇게 설하고 있다.

"노동하면서 좌선하고 좌선을 근본으로 하되 15년은 해야 한 사람이 먹을 것을 얻어 주린 배를 채울 수 있느니라."

이렇듯 도신 스님은 선농일여(禪農一如)를 주창했다. 선원의 청규로 내려오는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백장선사의 청규보다 1백년 앞선 가르침이다.

도신 스님의 속성은 사마(司馬)이다. 지금의 하남성 심양현에 있는 하내(河內)에서 태어나 동진 출가했다. 어려서 두 분의 스승을 모셨지만 특별히 공부에 진전은 없었다. 아직도 사미로 있던 14살(592)에 천주산에 은거하고 있던 3조 승찬 스님을 만났다.

첫 만남은 달마와 혜가의 만남만큼이나 역사적이다.

"청하옵건데, 자비를 베풀어 해탈 법문을 들려주소서."

"누가 너를 묶어 놓았단 말인가?"

"저를 묶어 놓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묶은 이가 없으니 이미 해탈인이 아닌가, 어째서 다시 해탈을 구하는가?"

사미 도신은 이 한마디에 크게 깨닫고 승찬 스님 밑에서 좌선수행을 했다.

9년째 되던 해에 가사와 발우를 받고 4조가 됐다. 이후에도 열여섯 해 동안 삼조사에 머물며 후학들을 제접했다.

도신 스님은 강서성 길주를 거쳐 황매현 쌍봉산에 주석하며 30여 년 간 중생교화에 직접 나섰다.

황매산은 사공산, 천주산과 더불어 '선의 황금 삼각지'로 불린다. 서로 백여리 간격을 두고 있는 이 지역에서 2,3,4,5조가 100여 년 간 선을 중흥시켰기 때문이다.

현지에서 도신 스님은 '서산(西山) 4조' 스님으로 불린다. 스님이 주석했던 곳이 황매산 서쪽에 있기 때문이다. 오조 홍인 스님은 황매산 동쪽에 주석했다하여 '동산(東山) 스님'으로 불린다.

3조까지 개별적으로 전하던 법은 도신 스님에 이르러 수행자뿐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까지 널리 퍼지게 된다.

도신 스님이 길주에 머물 때였다. 어느 날 도적들이 성을 포위했다. 성안의 우물도 말라 모두 죽게 될 지경에 이르렀다. 이것을 본 도신 스님은 성안으로 들어가 백성들에게 '반야심경'을 독송토록 했다. 그러자 신병(神兵)들이 나타나 성벽 위에서 도적들을 내려다보았다. 도적들은 두려움에 떨며 도망갔다. 더구나 말랐던 우물에서 물이 솟아 성안의 백성들이 살게 되었다. 이후 민중들은 불법을 생명과 같이 여기며 수지했다.

약서 '초목집성' 저술

도신 스님은 당 태종으로부터 '대의선사(大醫禪師)'라는 시호를 받은 의왕(醫王)이기도 하다. 사찰이 건립되고 대중이 모이자 자급자족은 물론 승단의 병(病)도 해결해야 했던 것이다.

도신 스님은 직접 산에 나는 약초를 모아 '초목집성(草木集成)'이란 약서를 저술했으나 아쉽게도 현존하지 않는다. 다만 '본초강목'에 명저로 소개되고 있어 도신 스님의 의술을 짐작케 한다.

어느날, 당 태종이 병이 났으나 백약이 무효였다. 이때 도신 스님이 약방문을 써서 장안으로 보내 태종의 병을 치료했다. 일찍이 도신 스님의 법력을 들은 태종은 세 번에 걸쳐 법문을 청한 바 있다. 그러나 도신 스님은 병을 핑계로 모두 거절했다. 도신 스님의 약방문으로 병에서 쾌차한 태종은 더욱더 도신 스님과의 만남을 간절히 원했다.

네 번째 도신 스님을 찾은 대신이 "이번에도 스님을 모시지 못하면 목이라도 베어다 황제께 보여드려야겠습니다"며 간청했다. 그러자 도신 스님은 얼굴색하나 변하지 않고 "자, 목을 베어가시지요"했다. 대신은 뽑았던 칼을 도로 넣고 돌아가 태종에게 사실대로 알렸다. 태종은 화를 내기는커녕 그 대신을 다시 보내 조사전을 건립해 스님에게 공양토록 했다.

이 대목에 이르면 선덕여왕의 부름에 "차라리 하루라도 계(戒)를 지니고 죽을지언정, 백 년을 파계하고 살지 않겠다"며 목을 베라고 했던 신라 자장율사를 보는 듯 하다. 모두가 당당하고 힘찬 수행자의 기상이다.

세월을 건너뛰어 바로 그 조사전에 서 있다. 흩어진 가사를 추스르니 "수행에 게으르지 말라"며 등신불마냥 앉아있는 조사상이 눈으로 말한다.

사조사에서 도신 스님을 가깝게 만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성지가 있다. 도신 스님의 진신이 모셔졌다고 전하는 비로탑이다.

비로탑은 사조사를 오른편에 끼고 계단을 따라 30여분을 걸어야 한다. 높이 11m, 사방 11m 단층 정방형으로 된 비로탑은 현존하는 당나라 탑 가운데 가장 보존이 잘 되어있다고 한다.

내부에는 도신 스님과 좌우로 6명의 수제자 진영이 돌에 음각으로 새겨져있다.

가까이서 비문을 살펴보니 오조 홍인은 물론 우두종의 초조 법융에 이어 '신라 법랑(法朗)'이란 글귀가 눈에 띄었다. 뜻밖이었다. 머나먼 중국 땅에서 신라 선인을 만나니 마음이 설렜다. 황급히 한발짝 물러서 합장 배례했다.

법랑 스님은 불교를 공부하고자 당나라로 유학했다. 도신 스님 문하에서 마음공부하고 신라로 돌아가 법을 전했다. 법랑 스님에 의해 신행-준범-혜은-지선 스님으로 이어진 법은 후에 구산선문의 하나인 봉암사 희양산문을 열게 된다. 최초의 산문인 가지산문을 연 도의 선사보다 백년가까이 먼저 4조 도신 스님의 법맥이 해동에 전해졌던 것이다.

법랑 스님이 받은 법은 무엇일까? 도신 스님의 가르침 가운데 정수는 '하나를 지켜 움직이지 않는다(守一不移)'는 것이다.

도신 스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텅 비고 맑은 눈으로 한 물건을 주의 깊게 바라보아 밤낮으로 끊임없이 오로지하여 항상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그 마음이 흩어져 달아나려하거든 급히 다시 거두어 껴잡을 것이니, 마치 새의 다리를 잡아매어 날아가려 하면 다시 당겨서 붙드는 것과 같다. 종일토록 쉬지 않고 보면 모든 것이 사라져서 마음은 저절로 안정될 것이다."

신라 법랑 스님도 제자

도신 스님은 공부가 익은 수행자뿐 아니라 초심자에 대해서도 자상한 가르침을 폈다.

"처음 좌선하여 마음 보기를 배우는 경우 홀로 한 곳에 앉아 먼저 몸을 단정히 바로 앉을 것이며, 옷과 띠를 헐렁하게 하고 온몸을 느긋이 놓아버리고 몸을 일곱 여덟 번 쓰다듬은 다음, 뱃속의 공기를 토해내 버리면 물이 차오르듯 하여 맑고 비어서, 고요하고 몸과 마음이 잘 조절되어 마음과 정신을 능히 안정시킨다"

비로탑 안의 도신 스님이 좌우에 자리한 제자들에게 법문을 들려주는듯 하다. 그것은 마치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일러주듯, 직접 자리에 앉아 설명하듯 조목조목 상세하고 자애롭다.

비로탑에서 내려다보이는 전경은 한국의 모악산에서 금산사를 내려다보듯 했다. 산 아래 사조사가 보이고 툭 터진 시야가 시원하다.

그렇지만 사조사로 내려오는 계단 길은 지친 몸만큼이나 마음도 착잡했다. 이번 중국 만행길은 살아있는 4조 도신 스님의 법을 보고자 했다. 하지만 문화혁명 때 파괴된 사찰은 천편일률적으로 복원되어 관광지화되고 살아있는 '조사가풍'은 찾기 어려웠다.

안내를 맡은 사조사의 젊은 스님에 따르면 "사조사에 30여명의 스님이 하루 4시간씩 정진한다"고 한다.

그 스님은 수행자라는 것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진 듯 했다. 젊은 수좌의 강렬한 눈빛에서 새롭게 살아나는 중국불교의 기상을 느낄 수 있어 다행이다.

인연이 있어 사조사를 다시 참배한다면 그때는 저 수좌와 도반이 되어 다리 꼬고 한 철 나고 싶다.

정리=이준엽 기자

사진제공=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

영진 스님은 1972년 김제 금산사에서 현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을 은사로 출가. 용봉 스님으로부터 사미계를, 석암 스님으로부터 비구계를 받았다. 출가이후 봉암사 해인사 통도사 백담사 무금선원, 은해사 기기암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에만 몰두해오고 있다. 99년부터 3년간 조계종 기초선원장 겸 동화사 금당선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조계종 전국 선원대표자회의 의장을 맡고 있다.

자급자족하며 집단수행 시작… 禪農一如 주창

불치병 걸린 당 태종에 처방전 보내 치료한 명의

대구불교방송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공양 받으시고 맑은 세상되도록…

은해사 거조암 나한재 봉행 현장

10월 22일, 영천 은해사(주지 법타) 산내암자 거조암에서 고려 말 이래 700년 동안 단절됐던 나한재가 복원 봉행했다. 정법의 시대에는 불교를 지키고, 말법의 시대에는 불자들의 복전(福田)이 되어 열반의 과보를 얻게 한다는 나한 사상이 현대와 같이 복잡하고 혼란한 시기에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거조암 원주 현소 스님은 "소임을 맡은 후 성불의 인연 지어지기를 발원했을 뿐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었다"며 "조금이라도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고자 나한대재를 복원, 봉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영천 은해사 거조암이 700여년만에 나한재를 복원, 10월 22일 전국의 사부대중 7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했다.

700여년의 세월을 넘어 나한대재가 처음 봉행된 10월 22일, 이른 아침부터 거조암 영산전을 찾는 불자들의 발길이 분주하다. 오색천이 드리워진 영산전은 유난히 청명한 날씨 속에 떨리는 듯 서 있고, 거조암은 시끌벅적 잔치분위기가 고조됐다.

나한대재를 준비하는 거조암 스님들은 좌복(방석)을 나르고 돗자리를 깔며 마지막 점검에 더욱 정성을 들였다. 마당 곳곳에는 자원봉사를 자처하며 대구 경북 곳곳에서 온 다도회 불자들이 차와 다구 공양물을 준비함에 빈틈이 없다.

요사채 한 켠에는 정갈히 쌓여 있는 526개의 공양상이 눈길을 끈다. 이번에 특별히 준비한 나한님들의 공양상이다. 상 위에는 공양물을 올릴 수 있도록 촛대, 향로, 꽃병, 찻잔, 다기가 놓여있다.

영산전에서는 각양각색의 불자들이 밤, 대추, 사탕 등 갖은 공양물을 한 분 한 분 나한에게 올리며 정성을 다했다.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새벽을 밝히며 팔공산까지 왔을까? 526위 나한의 모습만큼이나 불자들의 마음도 다양하다.

서울 방화동에서 온 변영보(61)거사는 "그저 아라한 공부를 득해 아라한처럼 되고 싶을뿐"이라고 발원했다. 서울 구룡사에서 온 장갑인(72) 보살은 세 아들의 건강을 바랐다. 경북 하양에서 온 김상현(하주초등 6년)군은 알뜰히 모은 용돈 2천원을 어느 나한에게 올릴까 고민중이다. 소원은 오직 공부 잘하게 해 달라는 것.

700여년만에 복원, 526개 공양상 눈길
불자들 육법공양 동참, 백포행다 시연도

오전 10시, 영산전 앞에서 자비와 평화를 위한 거조암 나한대재가 은해사승가대학원 한북 스님의 사회로 봉행됐다. 은해사 승가대학원장 지안 스님, 은해사 부주지 선광 스님, 영천군 손이목 군수 등 700여 대중이 경내를 가득 메운 가운데, 법회, 작법의식, 축하음악회 등 3부로 진행됐다.

지안 스님은 법문을 통해 "나한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해 부처님처럼 번뇌를 여의고 해탈 열반에 이르러 맑은 정신세계를 누리게 된 분들이다. 오탁악세라 일컫는 요즘, 인류사회를 맑힐 수 있는 나한 정신을 본받자는 의지가 나한재에 담겨 있다"고 말했다. 또 "나한처럼 한 생각을 맑게 할 수 있는 고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전 11시, 세번의 범종소리와 함께 장애와 마구니를 범접 못하게 하는 신중작법과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는 상단권공이 조계종 불교어산작법학교장 인묵 스님을 중심으로 한 7명의 스님에 의해 봉행됐다.

나한대재의 하이라이트는 나한육법공양. 현암다례원 불자들과 거조암 다도회원들에 이어 일반 불자들이 동참했다. 공양상을 공손히 받쳐 든 불자들은 줄을 지어 영산전으로 향했다. 공양상에는 지혜와 희생, 광명, 찬탄을 상징하는 등이 밝혀졌고, 희생 화합 공덕을 상징하는 향이 타올랐다. 또, 수행, 장엄, 찬탄을 상징하는 국화꽃과 깨달음을 상징하는 과(果), 청량한 부처님의 법문을 상징하는 차, 기쁨과 환희를 상징하는 쌀이 정성껏 올려졌다.

육법공양을 올리는 불자들의 모습과 마음이 어느덧 나한을 닮았다. 700년 만에 육법공양을 받은 해탈존자는 그저 히죽이 웃고만 있다. 우두커니 턱을 괴고 앉은 달명성 존자는 묵묵히 지켜만 보는가 싶다. 이처럼 526위 나한들이 제각각 천진면목을 드러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소리없이 전하고 있다. 천년을 넘도록 쉼없이 이어온 가르침이 오늘에야 보이는 것은 법을 보고 듣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나한육법공양에 동참한 불자들은 "감사하다. 감격스럽다. 영광이다"는 말로 소감을 표현했다. 현암다례원 권영숙 원장은 "특별히 땅과 하나 되어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땅에 백포를 깔고 하는 백포행다를 시연했는데, 감격스럽고 부처님 전에 감사할 뿐"이라고 말했다. 현소 스님은 "모든 동참대중이 당장 성불하지 못하더라도 해탈 성불의 인연이 되길 바랄뿐"이라며 "나한대재가 매년 영천시의 행사로 이어가길 바라지만 여의치 않다면 3년에 한번이라도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곧게 이어가라는 뜻일까? 유난히 청명하고 차가운 날씨 속에 이어진 나한대재는 유랑예술단의 가무악연주, 국립국악원 민속연주단 수석 박은하의 쇠춤 공연, 인드라 예술단의 경기민요, 풍물 등으로 오후까지 이어졌다.

영천/글=배지선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불자들이 나한 한분 한분에게 공양을 올렸다.

■ 나한은 어떤 분?



번뇌 끊고 해탈 경지 오른 성자
불법 수호토록 수기 받은 분들

나한은 아라한의 약칭으로 번뇌를 끊고 해탈(解脫)의 경지에 도달한 성자를 뜻한다. 부처님 열반 후 미륵불이 나타날 때까지 이세상의 불법을 수호하도록 수기 받은 분들이다. 응공(應供) 응진(應眞)이라고도 부르는데, 응공은 공양받을 자격이 있는 분, 응진은 진리로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의 소지자라는 뜻이다.

거조암 영산전에는 부처님의 십대제자와 부처님의 또다른 열여섯 제자인 16성중,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설법내용을 정리하기위해 모인 5백 나한을 더해 모두 526위의 나한이 모셔져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맑고 순수한 천진면목을 드러내며 고승들의 개성적인 모습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는데, 많은 부류의 사람, 다양한 공부(참구)방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누구나 아라한과를 얻을 수 있는 불성을 담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또, 무욕의 생활을 보여준다는 나한은 자신의 욕구를 다른 이가 누리도록 양보한다고 한다.

■ 거조암은?



혜림법사 법화화상이 창건
보조국사가 정혜결사 한 곳

경북 영천군 청통면 팔공산 거조암은 진평왕 13년(519) 혜림법사(慧林法師)와 법화화상이 창건한 천년고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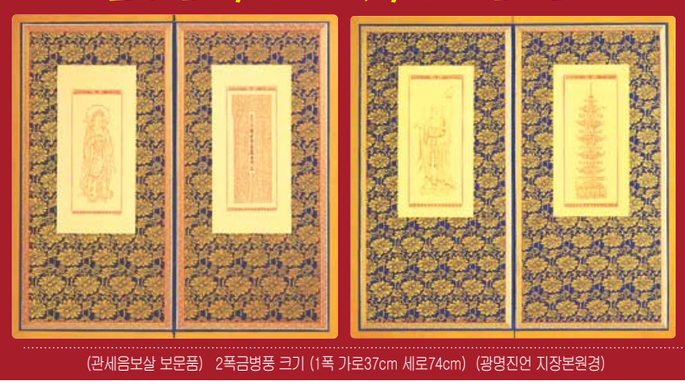
영산전과 526위의 나한이 모셔진 우리나라 대표적인 나한기도 도량으로 오백나한 절이라고 불리며, 고려시대 보조국사 지눌(1158~1210)스님이 고려불교를 혁신하기 위해 정혜결사를 시작한 곳으로도 유명하다.

특히 고려 우왕 원년(1375)에 건립된 영산전(국보 제14호)은 몇 안 되는 현존하는 고려시대 건축물 중 하나로 나라의 보물이다. 영산전은 부처님이 영축산(영취산)에서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을 설하고 계신 장면을 그린 영산회상도를 모시기 위해 특별히 지은 법당이다.

불경,금책,금병풍



실물크기(3.5×5cm, 5×7cm)
금강경 24매 · 천수경 12매 · 반야심경 8매



(관세음보살 보문품) 2폭금병풍 크기 (1폭 가로37cm 세로74cm) (광명진언 지장본원경)

영가천도 소장용 호신용 불사 상량식 복장의식

금강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의 99.9%순도의 금으로 만든 초소형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여 화제다. 불경금책은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등이 있으며 3.5×5cm 5×7cm 7×10cm 크기로 있어 소장 및 휴대가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한다. 불경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한다. 소법당, 스님방, 불자님의 가정에 개인소장용으로 기도정진 재례용 등 여러 용도로 사용 가능한 최고급 금병풍(관세음보살보문품, 광면진언 지장본원경)도 제작 판매한다.

●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02)722-1850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열침의효능
은행석 온열복대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원적외선 "침"의 효능 / 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3대 특산품의 금강약돌이 주성분인 최고의 기능성 건강 치료기 은행석 온열복대는 약돌이 70~80℃이상의 고열이 발산 뱃속 깊숙이 원적외선 "침"을 맞는 효능과 34개의 쑥뜸을 동시에 시술받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복대하고 편안하게 앉아만 있어도 장속의 노폐물 배출, 하복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변비, 생리통, 냉대하등을 자연 치유력 하며 당뇨 및 성기능개선 등에 효과가 있습니다.

♦ 오랫동안 참선기도 하시는 분 ♦ 허약한 氣회복 ♦ 생리통 허리통증 완화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의자에 앉아 장시간 업무를 보거나 공부하는 수험생의 디스크 허리교정
♦ 산후조리, 수술후 요양중이신분에게 적극권장 · 아랫배가 냉하신 분

건강에도 최고! 선물로도 최고!



생명의 빛 생명의 氣

원적외선 "침" 쑥뜸의효능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 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은행석 온열복대는 고열의 원적외선 "침"이 뱃속 깊숙이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뜨겁게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허리, 발바닥온열 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다용도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며 저렴한 가격의 은행석 온열복대 사용으로 건강을 지키고 암과 질병 등을 예방하고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닥터금강 (02)3210-3178,9 www.dk21.net
♦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궂은 일 했다고 상 주는 절 봤어요?”

서울 도선사, 허드렛일 봉사 · 구참 불자들 표창

“불사금은 많이 못내지만 지극한 신심으로 오랫동안 절에 다닌 신도들에게 상을 주면 불자들은 환희심이 나죠.”

서울 우이동의 도선사(주지 혜자)는 궂은일을 도맡아 봉사하거나 오랫동안 절에 나온 신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불사금을 많이 낸 신자나 신도회 간부를 맡은 신자들이 우대 받는 풍토가 자리 잡은 한국불교의 현실에 경종을 울리는 좋은 사례다.

혜자 스님이 주지로 부임한 2003년 12월부터 주어진 이 상의 명칭은 ‘포대화상 십선업상’과 ‘육바라밀상’. 십선업상은 공양간 등에서 허드렛일 자원봉사를 하거나 사찰 울력에 묵묵히 동참해 온 불자에게 전하는 감사의 표시고, 육바라밀상은 포대화상 봉안을 기념해 20년 이상 꾸준히 도선사에 다니는 ‘말뚝박이’ 불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8월 19일 우란분절 시상식 때 상을 받은 불자들을 살펴보면, 후원배식 5년, 밭농사 4년, 대웅전 관리 5년 등 불자 열 명과 20년 넘게 도선사를 오르내린 여섯 명이다. 육바라밀상을 받은 신자들은 평균연령이 77세에 달하는 이들로, 도선사에서 출가 득도한 주지 혜자 스님에게는 어머니 같은 존재들이다.

1년에 세 차례 시상되는 십선업상과 육바라밀상은 도선사에서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낸다. 두 상은 불자들에게 동기를 부여, 보다 적극적인 신행활동으로 이끄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심지어 기도 때에 이름만 올리고 참석하지 않거나 사찰내 봉사를 꺼리던 신도들도 의욕적으로 참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후원 배식 · 사찰 울력 등 다양
20년 넘는 고참도 여섯명이나
불사금 낸 신도 우대 풍조 경종
불자는 신심 · 사찰은 이미지 ‘UP’

그러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주지스님에 대한 신도들의 신뢰가 매우 높아진 점이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대다수의 불자들을 대우해주는 스님에 대한 고마움이 크게 작용한 결과다. “시상식 때는 내가 상을 받는 것처럼 눈물이 났다”고 도선사 불자들은 한결같은 반응을 보인다.

사부대중이 한마음으로 원융살림을 실현한 점도 주목할 만한 변화 가운데 하나다. 도선사 불자들은 주지 혜자 스님을 중심으로 강한 결속력을 보이는 등 ‘화합의 도선사’를 실현하고 있다.

혜자 스님은 “십선업상과 육바라밀상은 스님들의 시각에서는 작은 상이이라 할 수 있지만 불자들에게는 큰 의미를 지닌 상”이라며 “상을 통해 불자들에게 존재의 가치를 일깨워줌으로써 ‘신심 나는 신행’을 펼칠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서울 도선사는 ‘말뚝박이’ 신도와 궂은 일 도맡아 하는 불자들에게 상을 주어 신심을 고양시키고 있다. 사진은 올 우란분절을 맞아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이 신도들에게 육바라밀상을 주는 모습.

우리단체 이사람



김명화

고려대의료원 불자회 안암지부장

오랫동안 불자회 창립을 서원했던 고려대학교의료원 의료인불자들은 올 7월 그 뜻을 이뤘다. 안암병원과 구로병원, 안산병원에 흩어져 있으면서도 하나가 된 결과였다. 고려대의료원 불자회(회장 김우주)는 창립에 만족하지 않고 병원법당을 개원하겠다는 또 다른 서원을 세우면서 힘찬 첫 발을 내디뎠다.

김명화 고려대의료원 불자회 안암지부장(48 · 안암병원 신생아실 수간호사)은 안암병원 불자들을 수소문해 모집하는 등 구로병원의 김우주 감염내과의와 함께 불자회 결성을 일궈낸 장본인이다. 고려대의료원에서 호스피스 활동을 하고 있는 지현 스님의 도움은 큰 힘이 됐다. 김명화 안암지부장은 안암병원 불자모임을 이끌어가면서도 구로병원과 안산병원을 하나로 잇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불자회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간호사들을 이끄는 맏언니이기도 하다.

안암 · 구로 · 안산병원 잇는 가교역할
장애인 등 무료진료 봉사 계획

“지현 스님을 비롯해 창립법회를 하기까지 주변에서 참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법회가 끝난 후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불자회를 결성하고 나니 할 일이 너무나 많네요.”

고려대 간호학과 재학시절 의대 불교학생회와 고려대 불교학생회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했던 김명화 안암지부장. 졸업 후 고려대의료원에서 근무하면서도 불자회를 만들지 못해 오랫동안 마음의 빚으로 남아 있었다. 불자 환자와 보호자들이 병원 법당을 물을 때는 안타까운 마음이 앞섰다.

“이젠 병원 법당을 개원하는 일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창립법회도 ‘병원 법당 개원 추진법회’로 이름을 붙였어요. 내년 안암병원과 구로병원에 먼저 법당 문을 열고, 안산병원도 증축 공사가 시행되면 법당을 개원할 수 있을 거에요. 이미 병원 장님들에게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고려대의료원 불자회는 병원내 환자를 위한 활동과 의료봉사를 계획하고 있다. 안암동에 위치한 장애인복지시설 상락원과 안산지역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무료진료는 이미 성사단계다. 90여 회원들이 활발한 신행에 나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는 김명화 안암지부장의 어깨가 무겁다.

박봉영 기자

새로운 공불련 위해 ‘출발’

관세청 · 30개 세관 11월 12일 연합회 창립
서울시 · 구청 공무원불자들도 활성화 동참

성윤갑 관세청장을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장으로 추대한 관세청 공무원불자들이 공불련 활성화를 알리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다.

관세청은 11월 12일 오전 11시 대전 광수사에서 본청을 비롯해 6개 본부세관 등 전국 30개 세관의 불자회를 하나로 묶는 관세청불자연합회 창립법회를 봉행한다.

그동안 본청과 본부세관 불자회가 개별적으로 활동해온 관세청이 연합회를 결성한 데에는 성윤갑 공불련 회장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다. 성윤갑 회장은 최근 천홍욱 관세청 감사관을 사무총장으로 한 제4기 사무국 집행부를 구성한데 이어 관세청불자연합회를 결성토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새로운 공불련’을 위해 의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불자연합회는 4기 성윤갑호를 이끌어나가는 전면에 나설 계획이다. 이후 결성될 ‘공불련 활성화 기획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물론, 공불련의 비전과 변화지침을 담은 로드맵을 작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공불련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움직임에 서울시 공무원불자들도 가담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청과 은평구청, 서초구청 등 3개 구청 불자모임은 서울특별시청을 비롯해 25개 구청의 공무원불자회가 참여하는 서울공무원불자연합회 창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 등은 결정하지 못했지만, 일부 구청불자회가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돌파구가 될 전망이다. 중앙정부기관과 대구 · 대전광역시청 등이 지역연대를 통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어, 서울시 공무원불자들의 연대 움직임은 공불련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3개 구청불자회는 빠른 시일 내에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다른 구청불자회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박봉영 기자



수원 서호노인복지회관 무의탁노인들은 수원운불련 초청으로 화성 신흥사 등지를 참배했다.

수원 운불련, 무의탁노인 초청 효도관광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 수원지역회(회장 박성갑)는 10월 27일 수원 서호노인복지회관 무의탁노인을 초청, ‘가을맞이 자연체험’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는 소속차량 30여대를 이용해 화성 신흥사 참배에 이어 제부도 여행, 해수 목욕 등으로 진행됐다. 운전기사불자들의 효도관광에 초청된 50여 무의탁노인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박성갑 수원지역회 회장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을 받았다”며 “주위의 소외된 이웃을 찾아 정을 나누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충남경찰 화합의 장 펼친다

11월 5일, 공주 식물박물관서

전국 최초로 모든 경찰서에 불교회를 창립해 화제를 모았던 충남 경찰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의를 다진다.

충남지방경찰청 불교회(회장 이기병)와 산하 20개 경찰서 불교회는 11월 5일 공주 식물박물관에서 ‘충남경찰불교회 화합 한마당’ 잔치를 연다.

경승단 충남지단(단장 장곡)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날 잔치는 충남지역 경승 스님, 경찰불자와 가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합법회와 화합을 다지는 게임, 회원 노래자랑 등으로 진행된다.

충남지역 경찰불자들은 앞으로 모든 경찰서에 활동을 하지 않는 경승을 해촉, 실질적으로 활동할 스님들을 위촉하는 한편, 경찰불교회의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기병 충남지방경찰청 불교회장은 “충남지방경찰청 산하 모든 경찰서에 불교회를 창립한 성과를 지역민들에게 회향하고 경찰포교 활성화를 서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봉영 기자

육임 활용도서 · CD프로그램 大 할인 판매

육임나라에서는 아래 **육임 활용도서 · CD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할인 판매 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 각자 필요한 육임 활용도서 및 CD를 장만하시기 바랍니다.

1K 월영도 + 육임시보단정 + 효사숙사주 (성명학외 17종) 70만원
2K 월영도 + 육임시보단정 40만원
3K 효사활인천역집 + 월영도 + 효사숙사주 (성명학외 17종) 70만원
(효사활인천역집Ⅲ 업그레이드 판 CD 입니다)
4K 효사숙사주 + 육임시보단정 + 피타고라스 대점술 50만원
5K 육임대계전서 (전60권) 170만원

월영도에 있어 미진한 부분을 모두 해소시켰습니다.
또한 위 각 프로그램 보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담내용 저장 기능
- 사주기둥으로 출생 년월일시 찾는 기능
- 사주기둥으로 회원 검색기
- 월령도 지성법(도표) 활용법
- 효사숙 사주 프로그램(성명학 외 17종) 장착

※ 위 CD프로그램은 직접방문하여 설치해 드리고 활용방법을 익숙하게 알려드립니다.

■ 육임활용서
육임래정비법 (전1권) 15만원
육임래정비법휴대용 (전6권) 20만원
도사에게물어봐 (전1권) 1만5천원
육임래정비법혁신판 (좌정용 전12권) 50만원
육임래정비법혁신판 (휴대용 전12권) 70만원
육임래정비법수정보완본 (전12권) 100만원
육임신수비결 (전1권) 15만원
각일각시택일출생비법 (전1권) 5만원

■ 육임학습도서
육임강의록 (전12권) 20만원
육임비요형이상법 (전1권) 5만원
육임운명판단법 (전1권) 5만원
육임세밀정단법 (전1권) 5만원
육임강의비디오 CD (전63개) 50만원

■ 주문전화 02)993-8680 (담당 : 이 명 옥)
■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700-951487 육임나라 (주)
입금 통보 후 다음날 한진택배로 도착 됩니다.

육 임 나 라 주 식 회 사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732-1522, 2004-8213~6
FAX 02)737-069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1. 법회기도 – 자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중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영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계, 탱화 업계 등
5. 알뜰정보 – 팔고 / 사고 / 대행 / 대여 / 재활용 / 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곶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역학개인지도
명리학,성명학,택일,풍수
개업 책임지도(고급반)
※ 스님. 특별우대 ※
반야선원. 혜공합장
02)421-8494

사찰의 각 행사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 회심곡, 호적
행사문의
010-4870-8359
범음범패 연수원장 덕산 합장

천도재, 점안식, 49재, 바라춤
학인스님, 행자모집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불교 범음·범패 교육도량
대구팔공산 구화사(한티재)
010-4816-6454

불교범음범패전통의식전수자모집
부산 경남 범음 범패 불음대학
의식스님 필요시 연락 바람
교육문의 011-584-5588 법수
행사문의
011-869-8560 진우

의식스님이 필요하신 곳
전통의식이 신심이 돈독해지며 영산작법과 우리말이라야 환희심과 경건, 엄숙의 극대화가 있지 않겠는가! 49재및 천도재 등 각종의식에 바라춤과 나비춤을 곁들여 적은 부담으로 보시하오니 연락바랍니다
016)9414-1525
041)571-1112~3

당뇨, 고혈압 비만 희소식
(스님에 한해서 원가 제공)
• 제품명 : 비타그린(특허출원)
• 특 징 : 천연식품(환으로 제조)
• 함유영양소 : 천연비타민과 각종 미네랄
• 제품크기 : 1통(200g) 1개월분
3개월 복용 후 효과 없을시 환불
• 가 격 : 50,000원
제품시험성적서 및 자료제공
• 홈페이지 www.egreennara.co.kr
• 연락처 : 016-641-5211, 061)901-5211

역학 개인지도
"계절이 운명을 바꾼다"
저자 김창규 원장 강의
적중률 높은 학설로 누구나
쉽게 단기간 완성(역학 · 관상학)
미래음양회 010-9959-8894
02)2231-8894
서울 지하철(2,4,5호선) 동대문운동장 해송빌딩3층

육임역학 비법전수
• 5천년 역학사 검증된 정확성
• 역학 중 자타공인 최고의 길흉적중율
• 인간사 모든 문제 길흉 예측 정단
고려육임학회(육임학 전문 학술단체)
02)816-2115
053)551-1356(011-1763-3567)

氣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원격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전세계에서 레이키(Reiki. 靈氣) 밖에는 없습니다. 9년 동안 스님, 거사님, 보살님등 많은 분들이 배웠습니다.
• 우스이 레이키 70만원 교육기간 2~3일
카루나 레이키 40만원 교육기간 1일
• 현대생활레이키 연구회 / www.reiki.co.kr
(한글검색어 : 레이키)
전화:02)720-5719/720-5682

눈
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노환으로 작은글씨 안보이시는 분 눈흐림, 눈건조, 눈부심, 침침함, 눈빼빽함, 눈곱, 충혈, 시력강화, 렌즈착용 하신분 섭취하고, 반응 없을시 100% 환불
구입문의 (02)2631-2205,1305

사찰의 모든행사
지극정성으로 해드립니다
생전 예수재 49재 천도재
바라춤 나비춤 살풀이
산신재 용왕재 각종의식
010-8758-0606
월광 합장

벼락맞은 대추나무
워낙 진귀한 것이라, 소중한 인연을 맺고자 함. 입시 승진 취업 결혼 사업 성취 매매 건강쾌차 득남득녀 가공하지 않은 진품 그대로 접안하여 드림. 부처골 지장암
054)383-8553
011-9585-4908

세계결혼기관
• 국내 : 초혼, 재혼
• 국제 : 필리핀,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지사모집 시 · 군
0502-555-4242

비구의식스님 부전필요하신 사찰은 연락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017-571-5599

조계종 비구니스님입니다 조용한 암자나 토굴 무상으로 주시면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011-541-5016

한식구 처럼 지낼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7235-3511

모든 불공의식을 저렴한 보시금으로 지극정성껏 해드립니다
천도재, 점안식, 구병시식, 신명의식
011-850-0176

행 자 모 집
(엘리트스님 양성 목표)
참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출가의 연을 갖고자 하시는 분 연락 바랍니다
문의 053)745-3334
대한불교조계종 삼존사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월보시 80만원)
▷경기도 파주
010-3070-353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세-63세까지)
▷경기도
010-7160-2734

조용한 기도암자에서 속세의 지난날 다버리고 금전의 욕심없이 남은 생을 성심 일심 불심이 강하고 함께 부처님 모실분 생활력 있음
▷50~60세 보살님 용모 단정하고 착하신분
011-9577-4221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충남 천년고찰)
011-408-3367

2000년 3월 포항 안국사에서 공보살님과 함께 충남한산섬 해상법당 방생을 같이 갔던 스님을 찾습니다. 꼭 연락주세요.
054)243-7235

가족같이지낼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출가행자모집
011-576-2737

절에서 기도하며 계실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예천
011-758-1819

경남 시골 조용한사찰 신심있는 공양주보살님 구합니다
식구는 주지스님 한분
017-553-5200

절을 맡아서 운영하거나 사찰의 책임자스님으로 귀거하고 싶습니다
031)317-228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055)854-5205

조용하고 공기좋은 속리산 달마선원에서 달마도도 배우고 도량관리와 인터넷관리도 할수있는 분을 찾습니다
▷보수는 능력에 따라 우대
054)535-0378 / 011-9584-0348

포교당안내
• 위치 : 고양시청옆. 4층건물중 4층
• 평수: 80평 , 법당: 30평
• 가액: 보증금 1500만원 / 월 60만원
시설비 2500만원
• 모든시설완비
010-8345-0108

사찰안내
• 위치 : 서울에서 1시간30분거리 원주 치악산 옆
• 대웅전, 삼존불 35평, 산신각 5평
• 납골 90기, 요사채 40평 큰방 5개, 욕실 취사완비, 모든시설완비
• 가액: 보증금 2000만원 월 30만원
033)345-5597

사찰안내
• 위치 : 강원도 영월
• 대지: 200평(건물만)
• 노스님이나 보살님 적합
• 가액: 1500만원
033)375-1717
011-9280-0778

사찰터임야(급)안내
• 위치 : 경남 남해군 고현면 남치리
• 임야: 6000평 정남향
• 가액: 상담후절충
016-588-5870

중국중의침구학강좌
중국자격증 학위취득을 위한 무료 세미나
소정의 연수과정을 마치면 침구계(3년) 중의계(5년) 결업과 침구사, 중의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WTO개방에 대비하고 영업의 소득증대를 위한 서비스와 해외이민시 병,의원 설립하여 창업을 위한 연수강좌 미국의 한의대(3년~4년)편입 할 수 있으며 NCCAOM고시에 응시할 자격 있습니다.
• 개강: 매주(화,목) 오전 11시 설명회 입회 (직장인 의료인: 매주(일) 오후2시)
• 제주 분원: 매주(토) 오후 2시
• 중국 연수: 수시(4박 5일) 정기(년 8차)
과목: 체침(전통침), 뜸, 부항, 이침, 양도락기, 건강(와옹)식물관리, 활법, 피부관리, 비만침법, 미용침법, 식이요법
• 기본세미나: 16주 매주1회 11시~17시
중국 연수유학 전문 중국문화원
02)456-4248, 456-4249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출구

수능시험합격 부적패션 출시
"경명주사"로 특수염색자수 하여 氣를 발산하고 액운을 막아주며 행운을 주는 패션제품
• 수험생에게 합격의 선물로... • 학업자에게 지혜의 선물로...
• 사업자에게 성취의 선물로... • 어려운이에게 희망의 선물로...
• 모든이에게 행운의 선물로... ■ 제품 : 팬티, 손수건, 양말, 차량용복주머니
선물용포장 017-533-1356 [특허출원]
유통사업관심계신 분 – 전화상담

사주특별개인지도
• 사주와 28숙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빠른시일내에 쉽게 알려드리며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사주 운세 10초내 맞추면 입금
명리학질문 10초내 답변/사주첩경통달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혼사지연, 이혼, 부부갈등, 학업성적부진, 가출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립니다.
굿이나 부적 등 부담드리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www.10cho-unse.com
24304-3396114 하나은행(예금주 : 김진동)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행자 [예비스님, 남 · 여] 모집
• 행자원 있음(엘리트 스님 양성목표 - 45세미만)
•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수행 • 산중 감포분원 및 대구 큰 절 중 택일
• 수행,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행자문의: 011-9852-0075(총무스님)
※ 단기 한시적 출가도 가능 ▷ 도심사찰 최신의 납골당 있음◁
전국 제1의 불교대학! 도심속의 7층 정법대사찰 TVbuddha.co.kr
대한불교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053)474-8228

사주통달책임지도(성수철학원)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200명 왕성히 활동중)
• 지도교수 : 백운 성수 (회장) 부교수 약간명
완전초보지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한달만에 모든것 완전 통달됨. 교육 이수 후 월 250만원 보장
※전화 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 양성 교육기관임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제일악국(2층) 봉산동 가구 네거리
053)255-4784, 256-4784 휴대폰 : 018-531-2237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 해독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지면서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옥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소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땅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 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 록 원
www.chorokwon.com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 기초과정 • 전문가과정 ❶ 맥진반 ❷ 사암침술반 ❸ 즉효요법반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벼교정법, 실습 위주 강좌
▶ 개강 : 2005. 11. 7
월 · 화 반(주간 : 3개월 완성)
토 · 일 전문가 과정 - 11월 12일 개강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주말반 수시접수

명리전문가과정 정통풍수강좌

사 암 침 술 학 회
• 서 울 : 종로 3가 국민은행 4층(지하철1호선 1번 출구)
문의 : 02)747-9136. 011-307-2975

녹음테이프로 공부하는
太極四柱가 나왔다
(사주배우기가 너무 쉬워졌다)

중국 命理學을 완전 압도하는 새로운 太極四柱가 나왔다.
太極四柱는 이론이 간단명료해서 누구나 쉽게 배우고 속성으로 완성하며 자신있게 개업할수 있다.
中國四柱인 命理學은 10년을 공부해도 끝이없고 올바른 판단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太極四柱는 배우기가 매우 쉽고 자상하며 간단명료해서 구체적이고 논리가 정연함으로서 차분하고 능소 능대한 강의는 들을수록 감명과 실감이 생생하다.
누구나 이해하고 터득하도록 실례를 들어 흥미 진진하게 설명하므로서 질문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녹음테이프를 하루 한시간씩 독학으로 2개월이면 완성하고 인간만사를 정확하게 판단한다.
20여년간 강의하고 연구개발한 太極四柱는 오판과 실수가 없다. 中國命理學과 는 하늘과 땅 차이이다.
(안내서 무료 배부)

• 주문방법 :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고 전화하면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테이프(14개)와 교재 代金 30만원
▶농협 : 100080-56-022361 (손선영)
※ 스님 및 포교사 특별할인 (20만원)

學術團體 韓國陰陽學會中央會
(053) 324-2468 / 326-4585
釜山支部 : (055) 384 - 2303 大邱支部 : (053) 641 - 2334
龜尾支部 : (054) 465 - 2642 慶南支部 : 016 - 274 - 3170
慶北支部 : (054) 553 - 5145

관상학 특강반 모집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4시)
▶ 지선법사 직강◀
(현재 방송국에서 강의 중)

사주로 볼 수 없는 찰색! 특강반에서는 기초와 이론을 속성강의

완벽한, 실제 감정 완전 정복
(취업보장)
"ARS 대동정보통신에서 후원"
사단법인 한국기문미래 연구학회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군자 3번 출구 조흥은행 88m
현재 미달 접수 3명만 제한.
접수 연락처 02)454-3368
지선법사의 운명 특별상담 접수 中
특별강의 : 사주학. 기문둔갑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732-1522 (直), 02) 2004-8200 (代)
· 전송 : 02) 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 법당 : 18평 포질
● 부지 : 15,600평
● 요사 : 38평 외 건물다수
● 가액 : 6억
※문화재 보유사찰로 불사금 10억이상 투자된 사찰임

● 위치 : 부산
● 법당 : 18평
● 요사 : 45평
● 부지 : 195평
● 가액 : 4억 7천

● 위치 : 경남
● 법당 : 25평
● 요사 : 100평
● 부지 : 530평
● 가액 : 5억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미래공인중개소) 02)998-1994 011)713-5634

사찰안내

1.종로구산밑큰절-30억
2.용인목조사찰500평-9억
3.분당포교당34평-3천/140
※ 노전,부전스님,
사찰운영하실스님
공양주보살, 법당보살, 화주보살,
운전직, 종무직, 신속연결
※ 불교일자리소개전문
현대불사 02)555-0575

토굴별장안내

● 위치: 남덕유산 자락
● 부지: 1631평
● 가옥: 신축 황토기와집
● 가액: 5억5천만원(대출가능)
● 특징: 맑은 개울과 집뒤 솔숲
넓은 정원을 갖춘 아름다운집
주인이 직접 살고 관리해옴
016-367-2112

포교당안내

● 위치: 청주시 흥덕구
청주관광호텔앞
● 평수: 45평,3층건물중 2층
● 시설: 삼존불, 고급후불
탱화 3점, 집기일체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월세 30만원
● 몸만 오셔서 즉지법회가능
시설비: 답사후절충
016-261-2068
043)268-4242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부근
● 땅 2,312평, 대웅전 20평,
산신각 5평, 요사채30평
행랑채, 차고, 물이 솟아 오름
● 가액 : 상담 후 결정
033)562-7053
011-9793-7052

사찰 안내

● 위치 : 가평
● 대지 : 1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6평
● 가액 : 1억 8천

● 위치 : 사천
● 부지 : 6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3동 52평
● 가액 : 2억 4천

※ 전국사찰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주세요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토굴터안내

● 위치: 경북 군위 우보
● 평수 169평
● 가액: 3천8백만원
● 배산임수 명당절터
마을맨 끝집
011-9585-4908
054)383-8553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내.
대구, 왜관에서 15분 거리
● 대지(밭 같이있음)416평-실제사용600여평
● 대웅전,삼존불,요사채3동 화장실,세면실
주차장 완비
난방시설 : 심야전기보일러 36평2개
● 중계업자 일체사양, 직접운영하실
스님만 전화요망 ※스님사정상 급 안내
● 가액 : 3억5천만원
010-3542-3203

사찰안내

● 위치 : 부산시 하단동
● 법당 30평
요사 20평
부지 73평
● 가액: 1억8천만원
010-8955-5535
055)338-3020

사찰안내

● 위치: 경남 사천시 사천읍 경계
● 건물(조립식)
대지 200평, 법당 25평
요사채 10평,
부속창고 20~30평
총 1600평
● 심야보일러 130m암반수
● 가액: 1억5천(절충가능)
016-9559-8889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 사거리
● 평수 : 50평(3층 건물중 3층), 옥상 50평 사용 가능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9391-8117

사 찰 안 내

● 위치: 거제도
● 부지: 천평
● 법당: 토목 공사완료
● 요사: 40평
● 양도가: 5억5천
● 산세 좋으며 바다바로앞임

● 위치: 경기도 이천
● 부지: 450평
● 법당: 30평
● 요새: 30평
● 양도가: 6억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11)530-1975 / 011)688-3521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안내

● 위치: 경남 하동
● 법당, 요사채3채, 총 760평
● 창고, 방4개, 비구니스님
기도처, 명당
● 가액 : 2억 5천만원
011-562-9873
055)883-8846

포교당안내

● 위치: 인천 서구 가정동 부근
● 3층 건물에 3층 70평
법당30평, 주지실, 사무실,
총 방5개, 참선방 4칸,주방, 욕실,
화장실 3개(실내외)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세66만원,시설비2500만원
● 즉시 법회 가능
010-9969-9895
032)572-7508

사찰안내

● 위치: 경남 진주 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532평
법당: 25평, 요사채: 55평
전불전: 38평, 고시원: 45평
주지실: 10평. 주차시설 완비
건물 일체 심야보일러 온수
● 건물: 5억3천만원
총공사비 10억 소요
010-9889-3188

사찰겸포교당안내

● 위치: 경기도 부천(부천역사 2분거리)
● 시장우동입구 밀집지역.
연립 5층의 2층 30평
● 법당1개,큰방2개,거실,욕실
도시가스(삼림해결), 금불상,
삼존불 법단2단 목조각
● 가액:보증금 1천만원에 월 55만원
시설비 1천만원. 주차가능
※ 비구니스님, 법사님, 보살님,
보시는 분 적합
011-650-8481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온천시장 뒷길
● 평수: 약 60평. 2층 방3, 3층방 1개
● 법당, 엠프 에어컨 시설 완비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3천만원
011-843-2403
051)554-2406

사 찰 안 내

● 위치: 경주 근교
● 부지: 2천평
● 법당: 20평
● 요사: 20평
● 가액: 1억 8천
● 산세좋은 수행도량 암자
차량진입 불사가능

● 위치: 밀양 표충사 부근
● 대지: 1,000평
● 법당: 30평
● 요사: 25평
● 가액: 5억
● 산세 계곡 좋은 수행도량
여법한 단청법당

● 위치: 부산
● 부지: 1600평
● 법당: 36평
● 요사: 85평
● 가액: 12억
● 여법한 도심사찰
확틔인 전망 풍수만점

부산,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컨설팅 (양도 양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佛國불사 051)581-1599, 018-563-9575
대길부동산 홈페이지 cafe.daum.net/dongmuen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부근
● 4층 법당 45평-삼존불,
엠프시설 등 제반시설완비,
5층 요사채 45평-에어컨 등
모든시설 완비
4,5층옥상사용가능
● 몸만 오시면됨. 즉시 법회 가능
● 시설비 절충가능
010-9527-3461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대명동
● 대지 : 110평. 법당: 45평
● 특징 : 소원불(천불)
모셔져 있음
● 가액: 3억7천만원
답사후 가액 절충可
017-531-2888

사찰안내

● 위치 : 김해시 어방동
인제대학교 부근3층건물의 2층
● 법당 23평, 전체 43평 방3개
● 가액 : 보증금 500만원에
월 50만원
시설비 1천5백만원
● 가액 : 보증금 500만원에 월 50만원
시설비 1천5백만원
010-7188-5612

포교당안내

● 위치: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 평수 37평 건물중 3층
(옥상 사용)
● 특징 : 상가, 아파트 지역
(교통편리), 포교지로 최적지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10만원
시설비 : 답사후절충 (집기일체)
019-656-2766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거창군 웅양면 (일반주택 사찰)
● 대지: 150평
● 건물(시설) : 30평(건물 2동), 삼존불, 각단탱화
● 법당 : 사찰내까지 차들어감,
시세보다 싸게 급매
● 가액 : 6천 3백만원 (융자 2천만원 포함)
019-503-7959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안강읍
● 대지: 약 100평
1층 34평 요사채
2층 24평 법당
● 특징: 시장옆 주택 밀집지역
● 가액: 2억2천만원
054)763-6655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서2동
부산은행 앞 ● 평수: 40평
● 삼존불, 모든시설 완벽
● 즉시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일체 2000만원
010-4846-5194
052)295-3700

포교원 안내

● 위치 : 강남
● 요사채 50평, 법당50평
● 보증금 2,500만원
월 160만원
시설비 절충
010-7163-5392

사찰안내

● 위치: 경남 밀양시 초동면
● 대지 235평
● 법당 요사채 각 18평
● 가액: 1억9천만원
상담후 결정(신축건물)
● 위치: 경남 고성읍 죽계리
● 전세 3천만원 월 50만원
011-879-7551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인천지역
● 평수: 30평, 3층건물 3층
● 옥상 50평 사용가능
법당, 방, 베란다, 후원 완벽함
● 주변에 절이 없으며
약 10만세대 입주예정
포구에서는 배 300척 있음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월 30만원
시설비 2000만원
● 몸만들어오시면됨
010-7181-7569

사찰안내

● 위치 : 부산시 서구청 뒤
● 대지: 약20평
1층요사채 18평, 2층 법당 18평
옛날 기와집
● 가액: 9천5백만원 (융자 3천만원)
● 특징: 국제,새벽,자갈치 시장 5분거리
● 노스님이나 비구니스님께 적합
약20년된 절
0502-244-3888

포교당안내

● 위치: 김해시 어방동. 아파트 밀집, 상가시장,
대형마트 동김해 최요지
● 평수: 46평. 5층건물중 4층
방2개, 법당, 공양간. 시설1년.
냉난방시설완비, 주차시설완비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500만원
● 최면, 사주, 요가, 풍수, 수맥,
대체의학 전수가능. 무료 전수
011-834-8545 / 055)337-8600

포교당안내

● 위치: 일산
● 평수 113평(분양)
● 시설 위치 A급
● 포교에 뜻이 있는 분
적극환영
011-749-4553

포교당안내

● 위치 : 경기도 30만 신도시
지하철2분거리
● 평수: 100평. 시설최상급
● 가액: 보증금 1천5백만원
월 130만원
● 특징: 10년 운영중
(불교교양대학)
시설비 절충가능
011-9904-6957

사찰안내

● 위치 : 부산 기장군, 읍
● 대지 120평
바닷가 경관 좋음
● 삼존불, 집기일체
● 가액 : 전세 2천만원.
시설비 700만원
011-9744-0108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서해안고속도로 발안IC 부근)
● 건물 : 1층 요사채 47평
2층 법당 23평
● 대지 220평, 차고 15평
산신당 4평, 심야전기보일러
● 가액 : 4억 5천만원
011-9114-9935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 부지: 820평
법당, 요사채
● 가액: 4억2천만원
(가액절충)
011-9961-0241

포교당(급)안내

● 위치: 강원도 속초. 최고의 위치.최고의 시설
● 건평 60평, 법당, 삼존불, 방3개, 부엌, 화장실, 시면시설
● 내부시설 황토로 되어있음
● 가액 : 4천 5백만원(시설비포함)
● 특징 : 불자들에게 치료할 수 있는 전통
쑥뜸 좌욕 기구 완벽
● 몸만오시면 됨. 즉시법회 가능
011-790-4809
033)631-4831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안강읍
● 대지: 약 100평
1층 34평 요사채
2층 24평 법당
● 특징: 시장옆 주택 밀집지역
● 가액: 2억2천만원
054)763-6655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의 큰사찰
● 도량내에 1천평
● 가액: 11억
051)326-1545
011-563-1545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회기동 전철1호선,
경희의료원 가는길
● 1층 35평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 20만원
※ 꼭 오실분만 오전에 전화요망,
일요일날 오세요.
02)967-9040
010-7135-4030

토굴터 안내

● 위치 : 경주시 산내면 감산리
(건천 I.C에서 5분거리)
● 평수 : 1161평 중 168평-
전용허가 필, 바닥기초공사 완료,
주택 25평, 창고 15평, 건축허가
배산임수, 명당, 경관수려
● 가액 : 7천만원
017-585-4980

사찰안내

● 위치 : 홍천군 남면
해발 340고지(삼태기터)
● 임법당20평 선방 40평
요사채 18평 기와 황토방
식당 80평 방5개
● 절충가능 평당 7만원
총 11827평
011-676-9799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여상
시장옆
● 시설비 절충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25만원
016-504-3276

사찰안내

● 위치: 서울 성북구 정릉 4동
● 건물: 약40평(인법당)
● 법당: 18평, 부지: 약 300평
● 단청 있으며 전망 좋음
● 가액: 2억9천
02)918-1215
016-237-3006

사찰부지안내

● 위치 : 부산근교
● 부지 : 11,000평 ● 가액: 평당6만원
● 특징 : 부산 근교를 접한 24만 인구의
신도시, 낙동강이 내려다보이는
전혀비경 최고 기도처, 복지시절,
실버타운, 사찰즉시 건축가능
부산 연산컨설팅
051)863-6661
011-560-8522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 대지: 170평
● 건물: 법당 15평,
요사채 2동
● 가액: 상담 후 결정
017-552-3637

토굴수행처안내

● 위치 : 경남 함양
● 대지 : 108평
황토집 목재 18평
● 판낼 주방 자연수 산세수렴
오미자밭 2000평
● 가액: 7500만원
011-578-3175
010-3114-3494

조용한 암자 운영하실 분

● 위치 : 경기도 양평 청운면
● 평수 30평, 요사채2동, 방5칸
● 특징 : 서울에서 40분거리, 염불,
기도 포교하실 분에게만 적합함.
홍천방면 큰 대로에 위치하여
교통이 아주 편리함.
● 가액 : 건물만 6천 5백만원(절충가능함)
※ 대지는 안씨종중 땅임
꼭 운영하실분만 연락 바람
017-379-2201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 팔공산 명당
● 대지: 5000평 ● 건평: 150평
(1층 100평 2층 대웅전 33평)
● 특징: 신축불사중 노인전문
요양원, 납골당시설운영가능
관광특구예정지 대구시내전역
40분거리
● 가액: 상담후결정
(꼭 보셨으신분만 전화요망)
● 중개인 절대전화사절
010-2775-0409

사찰안내

● 위치 : 부산시 명륜2동
● 평수: 법당 30평
● 2층 요사채
주차가능 정원 및 마당
● 가액: 2억6천만원
051)555-8516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부산 신모라 사거리
● 평수: 약 40평
● 전세금: 보즘금 3천만 / 월 10만
시설비: 절충후 결정
● 교통편리, 아파트 단지 인근
포교최적지로 즉시 입주가
051)317-0011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경주시 근교
● 대지 180평, 법당 25평
● 불상탱화완비, 산신 칠성각 1채,
요사채 40평 2채
● 가액: 1억2천만원
● 대지: 87평. 일반주택사찰.
● 법당 20평, 불상탱화완비
산신 칠성 용왕각 1채,
공양간 등 부실
● 가액: 1억
011-511-0442
010-9378-0774

비구니스님으로 아담한 사찰안내

● 전주시 중심 단독상가주택 1층, 2층
● 대지 110평 8×8미터 코너절
건평 120평 1층상가 6개 2층법당
후불순금탱화 입체 100평, 칠성순금탱화
입체 50평, 신중순금탱화 입체 50평 부처님
법당, 홍송조각 3단 15자 부처님 삼신불 4자
반 자신있게 갖춘도량임 완벽함
● 1층상가6개에서 매월 임대료 120만원 나옴
● 총가액 4억7천만원중 상가 보증금 빼고 2억
6천이며 개인사찰 등기완료. 융자가능 답사하
시여 의논바람
032)667-8485
011-650-8481

사 찰 안 내

● 위치: 진주에서 15분거리
● 대지: 200평 현대식 2층건물
1층 요사채 50평 큰방 5개
화장실. 2층 법당 20평 공양간 20평
창고 10평. 삼존불 아미타불
400불 신중탱화
● 몸만오시면됨, 즉시법회가능
● 가액: 2억
017-548-5980

사 찰 안 내

● 위치: 충북 옥천
(대전 20분거리)
● 대지: 200평중 100평 등기필
● 건평: 대웅전 25평
산신각 5평(목조)
부속건물 18평, 11평
● 옥천읍 5분거리에 270호
촌락의 산자락에 자리한 작고
아름다운 사찰로써 완벽하게
가꾸어졌음
● 가액: 1억2천만원
011-9405-8186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시 달성군 유가읍 ● 대지 1,000평
● 법당25평, 산신각1동, 용왕각1동
요사채 40평(2채)
● 공시지가 : 6억 (평당 6십만원)
가액 : 3억 5천만원

사찰(급)안내

● 위치 : 울릉군 울릉읍
● 법당25평, 산신각1동, 용왕각1동
요사채 40평(2채)
● 공시지가 : 6억 (평당 6십만원)
가액 : 3억 5천만원

사찰(급)안내

● 위치 : 해운대 벡스코(신시가지 입구)
시립미술관 2번 지하철 출구 앞
● 6층건물 6층 : 120평 공간에
법당 요사채가 65평. 몸만 오시면 됨
● 가액 : 전세 5천, 시설비 4천(양도가 9천만원)
011-500-1777

암자 기도(터)안내

● 가족, 납골묘, 명당터
● 강원 평창읍 마지 2리
● 밭 538평
● 특징 : 맑고 깨끗한 삼정산 자연
바위와 소나무로 쌓인 터, 정남향,
앞 산봉우리만 보이는 확 트인터
● 가액 : 3천2백만원

● 밭 725평 (삼태기 같인 쌓인 땅)
● 가액 : 3천 7백만원
개인직접 011-373-4858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부산 신모라 사거리
● 평수: 약 40평
● 전세금: 보즘금 3천만 / 월 10만
시설비: 절충후 결정
● 교통편리, 아파트 단지 인근
포교최적지로 즉시 입주가
051)317-0011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 서구 남부민 1동
● 평수: 약399평
● 법당 15평
방4개, 산신각, 용왕각
화장실, 종각등 시설완비
● 도로에서 30m로
전망 좋은 곳입니다
● 가액: 3억2천만원
011-580-1407

계율학과 종헌 · 종법, 그리고 불교교단사를 바탕으로 1990년대 종단사태를 조망한 논문집이 총무원장 선거에 즈음한 시점에 출간돼 미묘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불교교단사연구소(소장 직무대행 원두)는 2003년 개최한 세미나 '90년대 불교계의 갈등과 대립 : 불교적 성찰'의 성과를 다듬어 논문집 <승가화합과 한국불교의 미래>를 최근 펴냈다.

이 책에는 인환 스님(前 동국대 교수), 원두 스님, 김광식 부천대 교수,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이자랑 · 백도수 동국대 강사 등의 논문이 수록됐다.

<승가화합과…>은 3부로 구성됐다. 제1부 '승가의 멸쟁법과 제재법'에서는 율장에 따른 승단분쟁 해결 원리 및 원칙, 그리고 멸빈추방제도가 소개돼있다. 이자랑씨는 "율에 따르면 승단으로부터의 완전한 추방을 뜻하는 멸빈은 정식 비구에게 쉽게 적용되지 않았고, 반성과

90년대 종단분규 분석 논문

'승가화합과…' 출간 '눈길'

참회를 촉구하기 위한 일시적인 승단추방 정도가 있었을 뿐"이라며 "조계종단의 현생승려법이 멸빈자의 복적 또는 재득도를 금지하는 처벌이라면 멸빈은 신중하게 적용돼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2부 '승려대회와 한국불교의 미래'에서는 근현대 조계종 성립의 계기가 되는 승려대회와 조계종 징계제도의 문제점이 다뤄졌다. 원두스님은 "1994년 4월 10일 개최된 승려대회를 계기로 출범한 개혁회의의 종권장악과 개혁회의 호법부가 행한 모든 치탈은 종헌 · 종법에 반하는 것이고, 그 같은 종권장악이 종헌 제9조 1항 구족계 · 7멸쟁법 규정 등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치탈된 승려의 복권을 통한 화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3부 '종단개혁 평가와 종교분쟁에 대한 재판'에는 중앙승가대 김응철 교수팀의 '종단개혁과정과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조사연구'가 실렸다.

불교교단사연구소 측은 "<승가화합과…>이 계율과 종헌종법에 근거해 90년대 종단사태를 분석한 불교계 초유의 논문집"이라며 "승단 내부의 분쟁 해결을 위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익순 기자



제6회 제주 법화사 학술세미나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최기표 · 조범환 · 이영자 교수, 김문경 회장, 장일규 교수.

해상활동 바탕은 '관음신앙'

'해상왕 장보고의 불교 신앙적 고찰' 세미나

법화원, 선원 · 상인에 불교 전파 · 선종발달에 기여

당 · 일본 연해안 거주 신라인 화합 이끌어내

신라 하대 바다를 제패하고, 국제무역을 주도했던 해상왕 장보고(?~846). 중국 산동 적산에 법화원이라는 큰 사찰을 짓는 등 불교와 깊은 인연을 맺었지만 불교와의 관련성은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다.

10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해상왕 장보고의 불교 신앙적 고찰'을 주제로 제주 법화사(주지 시묭)와 (재)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이사장 김재철)가 공동주최한 '제6회 제주 법화사 학술세미나'는 장보고의 해상활동에 가려져 잘 부각되지 않았던 불교신앙과의 관련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법화사는 장보고가 창건한 제주도의 유서 깊은 사찰로, 발굴성과를 토대로 정비가 진행중인 곳이다.

학술세미나는 김문경 해상왕장보고연구회장의 기조발표 '장보고와 불교'로 시작해, 조범환 서강대 박물관 연구교수의 논문 '신라 하대 서남주군지역 선종산문의 형성과 장보고 집단', 조영록 동국대 명예교수의 '제주 법화사 삼존동불상의 남경 이치(移置)와 천계사', 최기표 금강대 교수의 '<화엄경>에 나타난 관세음보살' 발표로 이어졌다.

발표자들은 장보고의 해상세력이 법화원을 중심으로 신봉된 관세음보살신앙에 의해 결속 · 지지되고, 이를 통해 더욱 강대해진 장보고 선단은 한반도 남부지방 선종발달에 기여했다고 입을 모았다.

김문경 회장은 장보고가 산동 적산촌에 세운 법화원에서 관세음보살 신앙의 기능에 대해 주목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33의 화신으로 곳곳에 나타나는 관세음보살"에 대한 신앙은 항해선원과 무역상인을 중심으로 크게 유포됐다.

김 회장은 "법화원은 관음신앙과 이를 대표하는 <법화경>을 사상적 기반으로 삼아 당 · 일본의 연해안에 산재해 있던 신라인들을 아울렀다"며 "이들의 화합이 장보고 선단 해상활동의 바탕이 됐다"고 말했다.

조범환 교수는 장보고 선단이 선종산문 형성에 미친 영향을 조명했다. 조 교수는 구산선문 가운데 초기에 개창된 선종사찰들이 지리산 자락에서 시작해 전라도 지역으로 외연을 넓혀갔음을 주목했다.

조 교수는 "실상산문과 쌍계사가 지리산에 위치하게 된 데는 이 지역에 북종선이 퍼져있어 선종 전파가 수월했고, 중앙의 지원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후 많은 유학승이 들어오는 길목이었던 회진이라는 항구에 가까운 서남지역에 선종사찰들이 세워지게 되면서 선종이 확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보고와의 관계에 대해 조 교수는 "이들 선종사찰은 중앙의 진골세력의 지원을 받으며 사원전과 염전 등 경제기반을 확보하게 되는데, 선종사찰들이 이 같은 경제기반을 도적의 침탈로부터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장보고의 청해진 덕분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기표 교수는 <화엄경>을 통해 관음신앙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조영록 교수는 사료를 근거로 조선조 태종 당시 제주 법화사에 있던 아미타삼존불이 중국 남경으로 옮겨진 경위를 추적했다.

글 · 사진=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남북공동 팔만대장경 번역 방안 첫 모색

남북한의 학자들이 고려대장경 번역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고려대장경연구소(이사장 종림)와 북한 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는 10월 18 · 19일 양일에 걸쳐 중국 심양에서 고려대장경 번역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공동개최했다.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고려대장경 번역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향후 공동번역방안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북측이 주제발표하고 이에 대해 남측 학자들이 질문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 남북 양측이 번역에 대해 비슷한 고민을 공유하고 있으나, 처리 내용이나 방식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차이에 대해 고려대장경연구소 측은 "남측은 개별 한학자나 불교학자가 각각 경전을 번역하는 반면 북측은 그들의 표현대로 '집체적'으로 경전 번역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진단했다.

북측 발표자로 나선 민족고전연구소 박영건 연구사는 <고려대장경> 번역에서의 허사처리문제를 다뤘고, 김영수 실장은 우리나라 유일의 <고려대장경> 교감문헌인 <고려국신조대장교정별록>의 가치를 조명했다.

남측에서는 이인혜 고려대장경연구소 연구원이 <팔만대장경 선역본>의 '오분율'에 대한 남북의 번역사례를 비교 발표했고, 허인섭 덕성여대 교수(고려대장경연구소 학술자문위원)가 우리말 통일대장경에 대한 구상을 소개했다. 박익순 기자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29>

지구 온난화

급속한 산업화가 기상이변 재앙 불러

소비해야 굴러가는 사회, 욕심 부추겨

10월 말이 돼서야 선선함이 느껴질 정도로 이번 여름은 유난히 길었다. 한국의 기후가 점점 아열대를 닮아가고 있다는 것과 무관치 않다.

제주도에서만 보던 아열대성 고기가 울릉도 부근에서도 발견된다고 하고, 중부 지방에서도 제주도 식물을 재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지구의 온난화가 진행되는 절대적 요인을 밝히기는 힘들다. 하지만 인류가 소모하는 에너지와 탄산가스가 중요한 원인임에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특히 브릭스(BRICs), 즉 브라질 · 러시아 · 인도 · 중국 등 대국이 급격히 산업화 되고 있다. 산업화는 자원의 소비와 상관관계에 있으므로, 기후 생태계의 교란은 더욱 가속될 것이다.

에너지 확보를 위한 국가간의 치열한 경쟁은 가장 큰 국제 정치적으로 긴장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 200년 간 역사의 발전은 인간에게 물질적인 편리함과 인간 수명의 연장을 가져다 준 반면에 풀기 어려운 숙제도 같이 가져다주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거대한 소비의 체인 구조는 비관적인 전망만 더하게 한다. 세계경제, 사회구조가 소비하지 않으면 지탱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치 멈추면 쓰러지는 자전거와 같이 인류는 소비하지 않으면 큰일 날것과 같은 강박관념에 사로 잡혀 있는 듯이 보인다.

과학 기술의 발전에는 이러한 소비의 '진작'에 기여한 부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전자 공학자들의 밤낮 없는 연구 덕분에 카메라가 달린 휴대전화, 인공위성에서 가르쳐 주는 자동차 지도 등으로 편리함을 즐긴다. 매년 개발되는 새로운 모델의 자동차는 우리의 욕구를 부추긴다.

그러나 편리함 뒤에는 소비를 부추기는 시스템이 있다는 점, 아니 현대가 소비하지 않으면 쓰러지는 시스템이라는 점을 부인하기 힘들다.

토인비는 역사가 항상 변증법적으로 발전한다고 주장했다. 좋은 것 뒤에는 부정적인 면이 따라오고, 이를 다시 어우르는 새로운 시스템이 창출되어 역사가 발전한다는 뜻이다. 변증법을 인간의 정신에 적용한 것이 헤겔이고, 물질에 적용한 것이 마르크스이다. 과연 현대의 숨 막히는 소비 사회를 지속가능하도록 전환하는 변증법이 있을까.

나는 그 단서를 불교에서 찾는다. 어느 학자는 불법이 반쪽 법이라고 주장한다. 부처님은 원리만을 가르쳤고 세세한 세상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열반 가까이 하신 말씀, "나는 한마디도 한 것이 없다"라고 하셨을까. 우리의 마음에 이미 갖추어져 있는 불성에 대한 강조를 그렇게 표현하셨을 것이다.

끝없이 허덕이는 소비사회에서 인류와 지구를 구할 수 있는 변증법은 바로 각자가 가진 불성을 발견하는 것 아닐까. 불성을 통해서만,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비하려는 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면에서 불법은 반쪽 법이 아니라, 인류와 지구, 모든 중생을 구하는 완전한 법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본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그림 : 문병성

佛
眞如聖地巡禮
☎ 예약 및 문의
02) 2076-9511~2
Valuable Tour 새아침여행(주) Se-A-Chim Travel Co., Ltd.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24번지 고려빌딩 715호

成道齋日(음 12월 8일)을 맞아 떠나는
부처님의고향 "인도" - 불교 성지순례 -
※모든 식사는 호텔식이고, 입맛에 잘 맞습니다.
창사 기념 11월 한정 특별 할인가로 모십니다.

9일 1,890,000 ▸11/10,17,24
1,990,000 ▸12/1,8,15,22,29 1/5,12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적립!
11일 1,990,000 ▸11/13,20,27
2,190,000 ▸12/4,11,18,25 1/1,8

9일
• 여정 : 델리(1)-쉬라바스티(1)-룸비니-쿠쉬나가르(1)-파트나(1)-라즈기르-부드가야(1)-바라나시(1)-샤르나트-바라나시(1)-아그라-델리
• 특징 : 특급 및 일급 호텔, 호텔식 기원정사,왕사성,나란다 대학,룸비니,쿠쉬나가르, 열반당,샤르나트,갠지스강,마하보디사원,니련선화 및 수잣타 마을, 등

11일
• 여정 : 델리(1)-파트나(1)-나란다-라지기르(1)-부다가야(2)-샤르나트-바라나시(1)-쿠쉬나가르(1)-룸비니(1)-쉬라바스티(1)-럭나우-델리(1)
• 특징 : 특급 및 일급 호텔, 호텔식 기원정사,왕사성,룸비니,쿠쉬나가르,열반당,샤르나트,갠지스강,마하보디사원,니련선화 및 수잣타 마을,죽림정사,다멕스토파, 나란다대학유적지,영취산, 등

中國 상해/소주/항주 불교 문화탐방
549,000 4일
▸11/14,21,28(매주 월요일)
*여정 : 인천-상해(1)-소주-항주(1)-상해(1)-인천
*항공 : 아시아나 항공(마일리지 적립 OK)
*특징 : 옥불사,홍구공원,정산사,용화사,서커스 관람,영은사,한산사,솔정원,발맛사지 체험,서호유람,동방명주탑

中國 북경 불교 문화탐방
549,000 4일
▸11/9,10,14,16,17,21,23,24,28,30 (매주 월요일, 수, 목요일)
*여정 : 인천-북경(3)-인천
*항공 : 대한항공(마일리지 적립 OK)
*특징 : 자금성, 써커스 관람, 만리장성(케이블카),용경협(유람선),천단공원,이화원, 유리창
*영광사 및 불아사리탑(부처님 치아 사리), 벽운사 및 오백나한당

日本 동북 사찰순례
699,000 4일
▸11/14,21,28 (매주 월요일)
*여정 : 인천-아키다-히라이즈미-하나마키(2)-모리오카-다자와(1)-아키다-인천
*항공 : 대한항공(마일리지 적립 OK)
*특징 : 흑석사,중존사,모월사,금색대관음, 뉴토온천,이와테성 유적지
*온천호텔 4인1실 기준(2인1실/1인 6만원 추가)

日本 북해도 불교 문화탐방
699,000 4일
▸11/9,13,16,20,23,27,30(수,일)
*여정 : 인천-치토세-노보리베츠(1)-무로란-토야(1)-오타루-삿포로-조잔케(1)-삿포로-인천
*항공 : 대한항공(마일리지 적립 OK)
*특징 : 아이누민속촌,지옥계곡,쇼와신산,곰목장, 분화구,토야호수유람선,후키다시약숫물, 무로란 만케지사찰,삿포로 동본원사 사찰
*온천호텔 4인1실 기준(2인1실/1인 6만원 추가)

中國 성도/낙산/아미산 성지순례
899,000 6일
▸11/10,17,24(매주 목요일)
중국 4대 불교성지 문현보살의 도량 아미산
*여정 : 인천-성도(1)-낙산-아미산(2)-성도(2)-인천
*항공 : 아시아나 항공(마일리지 적립 OK)
*특징 : 낙산대불 유람선 이용 관광. 아미산에서 금정-케이블카 왕복, 만년사-케이블카 편도 포함 보국사, 복호사 관광 포함

中國 성도/낙산, 티벳 성지순례
1,599,000 8일
▸11/8,15,22,29(매주 화요일)
신비의 땅 티벳을 순례하는 희귀 체험
*여정 : 인천-성도(1)-라싸(1)-시가체(1)-장체(1)-라싸(2)-낙산-성도(1)-인천
*항공 : 아시아나 항공(마일리지 적립 OK)
*특징 : 낙산대불 유람선 이용 관광, 라싸(노부린카, 색랍사,철봉사,포활라궁,대소사, 팔각가 순례,) 시가체(자스룬부스 순례), 장체 (백거사,얌또흐 순례)

공통사항:15명 이상 출발, 1급이상 호텔 이용, 1억원 배상 여행자 보험, 관광진흥 기금, 전쟁 보험료, 유류할증료 포함, 국적 항공사 이용 / 가이드 및 운전기사, 인솔 안내원 팁 불포함. 여행 불편 신고 전화 : 02-2076-9500

일주문



동화사 대웅전 · 염화실 등 낙성법회

대구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은 11월 6일 오전 10시 대웅전과 염화실, 종각 낙성식과 통일범종 타종식 등을 봉행한다.(053) 985-4404



일산병원 발전기금 1억 원 전달

동국대 이사 현성 스님은 최근 은사 청담 스님의 교육사업에 대한 유지를 받들어 동국대 일산병원에 발전기금 1억 원을 전달했다.



두산장학회 장학금 전달

두산장학회 이사장 일면 스님은 11월 2일 남양주 불암사에서 15개 승가대 소속 학인 스님들 위한 장학금 전달식을 갖는다.



용인 법륜사 개원법회

서울 승가사 주지 상륜 스님은 경기 용인 문수산에 법륜사를 창건하고 11월 6일 오전 10시 30분 부처님 점안 및 개원법회를 봉행한다.



청담문화제 및 개산대재 봉행

서울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은 11월 4일 제4회 청담문화제와 도선사 창건 1134주년 개산대재를 봉행한다.(02)993-3161



천안소년교도소 예능공연 개최

교정협의회 중앙회장 혜명 스님은 10월 24일 충남대 정심화홀에서 천안소년교도소 수용자들과 함께 제1회 '갇힌 자의 사은예술제'를 개최했다.



백장선원 부산지역법회 봉행

대구 수성구 백장선원 이사장 원구 스님은 10월 29일 부산여자대학 다촌문화관 전시실에서 부산지역법회를 개최했다.



부산 경남 호남향우회 회장 취임

부산경남 맑고향기롭게 박수관 본부장은 10월 24일 부산 그랜드호텔에서 부산경남 호남향우회 신임회장에 취임했다.



소비자분쟁위 상임위원으로 영전

한국소비자보호원 법우회 신동구 전 회장(정책연구실장)은 10월 21일자로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영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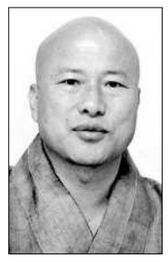


운불련 한마음가족체육대회

대구 운전기사불자연합회 신상용 회장은 10월 27일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제2회 운불련 한마음가족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성운 스님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

'제60주년 교정의 날' 맞아, 정우 스님 국무총리상



인덕원 이사장 성운 스님(사진)이 10월 28일 서울교육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60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이날 서울 구룡사 주지 정우 스님도 85년부터 성동구치소에서 교정활동에 힘쓴 공로로 국무총리상을 함께 받았다.

성운 스님은 1975년 강릉교도소에서 종교위원 활동을 시작해 79년부터는 서울구치소에서 활동, 30년간 교정위원으로 자비행을 실천했다. 성운 스님은 "그동안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어려운 일을 겪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어 보람 있었다"며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김강진 기자

불교언론문화상 대상에 김성근씨

'장지현의 잊혀진 가람탐험' 출판부문상



김성근 PD



장지현씨

제13회 불교언론문화상 대상에 KBS1 TV 드라마시티 '산사의 아침'을 제작한 김성근 PD가 선정됐다.

불교언론문화상 운영위원회(위원장 수불)는 10월 20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26일 발표했다.

불교언론인대상에는 불교방송 시청자위원회 공종원 위원장이, TV 부문 최우수상에는 다큐멘터리 '출가'를 제작한 윤영관 MBC 편성본부장이 선정됐다.

이외 △출판부문 <장지현의 잊혀진 가람탐험>의 저자 장지현씨 △교계언론 신문부문 조병활 불교신문 차장 △불교라디오 부문 최은경 불교방송 아나운서 △불교TV부문 신현중 불교TV 제작부국장 등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시상식은 11월 9일 오후 2시 여의도 KBS홀에서 열린다.(02)745-5811

노병철 기자

"참회의 삶 다지는 계기될 것"

국내 첫 '시왕재' 여는 무이 스님



"죄업을 참회해 업을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불자가 하는 공부입니다"

11월 6일 국내 처음으로 시왕재(十王齋)를 봉행하는 광주 덕림사 주지 무이 스님은 "열분 시왕과의 만남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 탐 · 진 · 치 삼독에 빠져 지은 죄업을 되돌아 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무이 스님은 "지난 7월 덕림사 지장보살상과 시왕상, 권속 등 27구가 지방유형문화재 27호로 지정된 것을 기념해 시왕재를 마련하게 됐다"며 "이날 시왕의 현대적 의미를 되살려 노인 500여명을 초청해 경노잔치도 함께 갖는다"고 밝혔다.

'더 이상 죄업을 짓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시왕재는 광주 영산회 소속 스님들이 출연해 재의식을 갖고 법현(前 선운사 주지)스님이 법문을 한다. 또한 시왕재를 기념해 덕림사 경내에서 효 사상을 기리는 윤혜숙 씨의 사진전과 국화꽃 잔치가 함께 펼쳐진다.(062)362-2091

이준엽 기자

동국대 교육대학원 총동문회장에 구연식씨



"교육대학원은 동문회 활성화가 어렵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지만 새로 배출되는 젊은 층에 관심을 쏟는 한편 세대와 세대 간을 이어 결속력을 다지겠습니다."

10월 25일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제8대 총동문회장으로 구연식씨(56 · 은석초등학교 교장 · 사진)가 선출됐다.

구 회장은 "연락이 끊어진 동문들을 찾아 활성화를 꾀하는 한편 승 · 재가 모두가 참여하는 총동문회로 이끌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충주 교대와 서울 교대를 졸업했으며 1990년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대학원 재학 중이던 1990년 교육대학원 학생회장에 당선됐으며, 당시까지 구성되지 않았던 교육대학원 총동문회 구성을 이끌어내 당선공약을 지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은비 기자

주간불교 유응오 기자

'10 · 27의 진실' 출간



"10 · 27법난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책을 계기로 법난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이 고조되길 바랍니다."

10 · 27법난 25주년을 맞아 <10 · 27법난의 진실>을 펴낸 유응오(주간불교신문 기자 · 사진)씨는 책 발간의 기쁨보다 법난의 진상규명이 불교계 내에서조차 등한시되는 현실에 대한 아쉬움부터 표현했다. 10 · 27법난 진상규명이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 2차 의제로 선정되긴 했지만, 불교계 내부에서는 사실상 '남 일'처럼 여겨지는 것.

고초를 겪은 스님들과 정부 담당자 등의 증언을 토대로 구성된 책에서 유씨가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은 역시 법난이 국가기관에 의한 종교 탄압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 유씨는 "스님, 재가자들과 함께 진상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

유철주 기자

"미디어 포교 강화로 역할 확대"

조계종 포교사단 4대 단장 이욱용 포교사



"포교사단 체제를 정비하고 전문포교사 제도를 운용하게 되는 이 시점에서 중차대한 임무를 맡게 돼 어깨가 무겁습니다."

10월 21일 조계종 포교사단 중앙운영위원회에 의해 제4대 단장으로 선출된 이욱용씨(57 · 이내과원장 · 사진)는 "포교비전사업 및 교육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분야인 미디어 포교에도 나설 계획"이라며 "확실한 평가방안을 도입해 포교사들의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단장은 앞으로 "팀별 평가제도를 이용해 포교사들의 활동사항을 조직화하고 사회봉사검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조직구조를 개편해 현재 활동 중인 팀들이 보다 원활하게 포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개설돼 있는 계층 간 포교 네트워크 정착 △분야별 전문포교사 양성 △미디어 포교 활성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 단장은 현재 서울 마포 이내과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화계사 거사회 부회장 소임을 맡고 있다. 육군교도소 의무실장이던 1980년부터 불교와 인연을 맺어 포교사단에는 2001년에 입단했다. 2004년 포교사단 무소유실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까지 포교사단 소년소녀가장팀장으로 활동했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태고보우국사 탄신 704주년 다례법회



태고보우국사 탄신 704주년 기념 다례법회가 10월 23일 서울 태고사 태고보우국사 부도전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요식에는 태고종 승정 청암 스님, 원로의원 혜암 스님, 포교원장 무공 스님, 종회의원 월운 스님, 인천종무원장 대은 스님, 총무원 사회부장 법현 스님 등 태고종도 300여명이 참석했다.

연꽃마을 이전 개원법회



용인시로 이전한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대표이사 각현)이 10월 26일 사무실 이전 기념 · 법당 개원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법당 삼존불 개안식도 함께 진행됐다. 행사에는 각현 스님, 제주 제석사 주지 종호 스님, 인덕원 대표이사 성운스님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태고종 동방불교대 개교 23주년 행사



태고종 동방불교대학(학장 법장) 개교 23주년 기념 법요식과 체육대회가 10월 22일과 23일 양일간 개최됐다. 설법전에서 열린 개교기념 법요식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을 비롯한 종단 간부스님과 교직원 및 교수, 정상옥 동방대학원대학교 총장 등 300여 명이 동참했다.

『제1회 불교구연동화대회』

동화구연을 통한 지도자 발굴과 동화의 발전, 전파에 앞장서기 위해 <제 1회 불교구연동화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어린이지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공모요강

• **예 선 :** 구연동화 육성녹음테이프 제출 및 원고 심사 • **본 선 :** 예선 통과자에 한하여 당일 심사

예 선

5분 내외의 구연동화 테이프, 원고 우편접수 및 심사 / 예선통과자 개별 통보 및 본회 홈페이지 (www.dongja.org) 에 개재



예선접수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동 157-1 부산불교회관 5층(우 614-854)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11**월 **6**일까지 접수 마감

본 선 • **일 시 :** 2005년 **11**월 **26**일 (토)
• **장 소 :** 경북청소년수련관(김천소재)

시상내역

상 명	상장 및 연구지원금	시상 인원
대 상	상장 및 연구지원금 1백만원	1명
특 별 상	상장 및 연구지원금 1백만원	1명
최우수상	상장 및 연구지원금 50만원	1명
우 수 상	상장 및 연구지원금 30만원	2명
장 려 상	상장 및 연구지원금 20만원	3명

※본선 진출자 전원에게는 부상이 주어짐.

주 최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사단법인 동련

주 관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제40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
『초발심으로 다시 서는 어린이포교』

행사개요

1. 일 시 : 불기2549(2005)년 **11**월 **26**일 (토) 오후 **2**시 ~ **11**월 **27**일 (일) 오후 **3**시
2. 장 소 : 경상북도청소년수련관 (경북 김천 소재)
3. 강의내용

구 분	교 육 내 용
어린이 포교의 어제와 오늘	· 어린이 포교의 어제와 오늘을 통해 우리가 어린이 포교를 해야만 하는 공감대를 형성한다.
주5일제 수업에 대한 교육적 의의 및 사찰에서의 포교 확대 방안	· 주5일제 수업에 따른 토요 미등교일을 활용한 어린이 포교의 의의와 실제 사례발표 및 타종교의 사례를 알아 본다.
부처님 손잡고 언제 어디나	· 레크리에이션을 통한 어린이들의 주위집중법과 다양한 게임을 배운다.
어린이 요가	· 어린이들의 건강한 신체를 만드는 어린이 요가
부처님 말씀을 통한 믿음과 신행	· 삼귀의를 통한 믿음에 대한 시간과 지도자가 꼭 알아야 할 교리를 통해 불교의 소양을 갖춘다.
· 구연동화를 활용한 저학년 수업 · 뮤지컬을 통한 고학년 수업 · 자연 속의 부처님과 함께 하는 수업	·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연동화를 활용한 저학년 수업 · 즐거운 노래와 율동으로 뮤지컬을 체험하고, 창의성과 사회성을 키우는 프로그램 · 자연물을 이용하여 부처님과 하나되기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찬불가	· 어린이들과 함께 부르는 찬불가와 율동

4. 연수참가비

구 분	미리접수	당일접수	제주도, 울릉도, 군종병, 구연동화 본선 진출자	해외거주자	비 고
회 비	50,000원	60,000원	무 료	본회에서 지원	입금하신 참가비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5. 지 급 품 : 연수자료집, 기념품(2006년 다이어리, 설봉스님 작품 목걸이)
8. 개인준비물 : 필기구, 간편복
9. 접수방법 : 가. 접 수 – ① 온라인 : www.dongja.org ② 팩스 : 051)864-4665 ③ 전화접수 : 051)864-4569, 4570
나. 참가비납부 – 접수 후 입금 **보내실 곳 : 우체국 601310-01-002215 (예금주:대불어)**
다. 접수마감 – 신청서 및 참가비 마감 : **11**월 **21**일까지 (기한 내 참가비 미납 시 당일 참가비를 냄)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www.dongja.org TEL.(051)864-4569, 4570 FAX.(051)864-4665



불자 세상보기

황 진 수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음식과 '국가정책'의 수준

'사회적 사실'이라는 말이 있다. 현재 사회에서 존재하고 있는 사실을 말한다. 이 사회적 사실에 기반하여 불량식품을 정리해보자.

첫째 사례,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시판 중인 중국산 김치에 대하여 납의 허용량이 기준치의 다섯 배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그 후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납이 검출된 30여개 중국산 김치를 정밀 조사하였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으니 먹어도 좋다고 했다. 그러자 고의원 측에서는 중국 수입 김치가 236개인데 겨우 30군데만 조사하고 안전하다고 하면 되느냐고 따졌다.

둘째 사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중국산 김치 16개사 제품을 검사한 결과 9개 사의 배추김치에서 회충, 구충 등 4가지 기생충알이 검출되었다.

셋째 사례, 지난해 6월 쓰레기로 버려지는 단무지로 만든 만두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로 인해 백화점, 할인점에서 만두가 거의 판매되지 않았던 사실이 있었다. 이 때 노무현 대통령은 '식품관련 범죄를 뿌리뽑자'고 지시했지만 현재까지는 별 효과가 없는 듯 하다.

넷째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중국산 김치를 라면 스프로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킨 라면스프 제조업체의 제품을 적발하고 전량 회수했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다섯째 사례, 김밥과 도시락, 국수 등 국민다소비식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되고 대장균군에 양성반응이 나타나는 등 위생상태가 불량했다고 발표됐다.

여섯째 사례, 학교급식소 주방의 11%가 쥐똥, 곰팡이가 발견되는 일이 민, 관 합동 특별단속에 의해 적발되어 관할 기관에 고발당했고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일곱째 사례, 가짜 참기름을 만들어 대량으로 유통시킨 40대 남성을 구속시켰다고 대구지방경찰청은 발표했다.

여덟째 사례, 초등학교 문방구에서 우유팩에 빙수를 담아 팔고 있는 등 새로운 불량식품이 나타나 학부모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외에도 이러한 사례들은 수없이 많다.

위의 사회적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가치부여'를 할 것인가. 우선적으로 우리는 업자를 비난하고 정부를 불신하게 된다.

하지만 기생충알 김치를 비롯한 불량식품 문제는 이미 사회문제의 수준에 와 있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한 국가의 대응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국가 정책이다. 위에서 논거한 불량식품의 사례는 매년 되풀이되는 일이다. 잊을만하면 또 일어난다. 그리고 중국산 김치만 불량식품의 피고석에 앉힐 일이 아닌 것 같다. 국산김치, 국산 민물고기, 국산 콩나물, 두부는 과연 100% 안전할까? 우리는 중국에서 제조한 상품, 식품에 대해서는 일단 불신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역적 문제가 아니고, 만들고 유통시키는 사람의 의식과 도덕성의 문제이다.

정부는 기생충 김치를 비롯한 불량식품에 대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납득할만한 대응책을 정책으로 제시해야 한다. 냄비처럼 한 때 떠들다가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 문화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놓아야 한다. 정치 경제 사회등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식탁의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불량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둘째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불량식품 관련자에 대하여는 극형으로 다스려야 하며, 셋째 정부당국, 시민단체 및 국민 등은 이러한 범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못하도록 단속과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 먹는 음식이 올바른 국민이 정신도 올바르지 않겠는가. 정부가 먼저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조계종 새 총무원장에 바란다

조계종 제 32대 총무원장에 지관 스님이 당선됐다. 우선 큰 축하를 드리면서, 한국불교 장자종단의 총무원장으로서 조계종은 물론 한국불교의 발전과 흥륭에 큰 자취를 남기는 총무원장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 크다.

평소 조계종의 개혁과 발전에 대한 염원이 있었고, 이번에 큰 희생의 각오하면서 서원을 세우고 나왔을 것이다. 그러한 스님의 서원이 조계종과 한국불교의 발전이라는 원만한 결과로 회향되어져야 할 것이다.

지관 스님이 후보로 나섰을 때 강한 학자풍의 면모 때문에 조계종이라는 큰 종단을 이끌 행정력은 어떨까하는 우려의 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기우에 불과할 것이다. 본디 최고의 자리란 상징성이 큰 것이요, 큰 방향제시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적절한 인사를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나가게 하는 지도력을 발휘한다면 풍부한 경륜이라는 스님의 특성이 조계종의 역사에 특색있는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물론 제 32대 총무원장으로서 안아야 할 짐은 너무도 많다. 우선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불협화음을 극복하고 대 화합의 전기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다. 문중과 파벌을 넘어선 불편부당한 인사를 통해, 또 모든 종도가 함께 수긍하고 지향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과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종단의 분위기를 일신해야 한다. 취임 초기에 분명한 지향점을 제시하고 흔들림없는 강한 의지를 보여야만 잡음을 잠재우고 순조로운 종무행정의 기틀을 다질 수 있다.

한 종단의 행정수반은 전체를 유기적인 관계 속에 파악해 치료할 필요도 있고, 어떤 부분은 과감하게 도려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치료의 분기점에서 지혜로운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 행정수반인 총무원장의 막중한 위치이다.

조계종이라는 거인이 벌떡 일어나 한국불교를 빛나게 하기를 바라는 1000만 불자의 염원이 스님의 양어깨에 걸려 있다. 그것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는 것을 통찰하고, 끊임없이 병의 근원을 찾으면서도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치료하는 지혜로운 행보가 이어지길 기원한다.

■성태용(건국대 철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인욕

인욕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으뜸가는 것이다. 안락에 이르게 하며, 자신을 지켜 주며, 벗이 되어 주며, 아름다운 명예를 가져온다. 인욕은 부(富)를 얻게 하며, 바른 용모를 갖추게 하며, 위대한 힘을 얻게 하며, 세상을 밝게 비추며, 원수와 고뇌를 이기게 한다. 〈대집경〉

최근 생활고를 비난한 30대 남자가 지하철에 방화를 시도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방화 용의자는 이용객이 많이 붐비는 퇴근 시간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무원에게 붙잡혔다.

방화 이유는 방세도 못 내고 휴대전화도 끊기는 등 생활고를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2002년 대구지하철 참사를 생각나게 하는 아찔한 순간이 아닐 수 없다.

물질만능시대, 이처럼 자신의 한 생각을 다스리지 못해 벌어지는 사건 사고가 한 두건이 아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속출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인욕의 가르침이 절실히 필요하다.

세상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법을 세세히 일러준 부처님은 "인욕은 큰 배와 같아서 고난을 건너게 하고, 좋은 약과 같아서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해준다"고 했다. 한번의 인욕으로 얻는 것이 이렇게 많은데, 어리석은 중생들은 이를 무시한 채 올라오는 생각대로 일을 저질러 더 깊은 괴로움의 수렁에 빠져버리고 마는 형국이다.

지금이라도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 한번 인욕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긴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뛰어 넘을 것이다.

또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수많은 대립과 반목을 잠재울 지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배지선(대구 주재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e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2004-8243
(담당: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폐사지 지킴이에 감사

지난 10월 16일 모처럼 가족들과 양주 회암사지 음악회를 찾았다. 마땅한 문화 이벤트가 없는 경기북부에서는 경험하기 쉽지 않는 대형공연을 보기 위해 몇 주 전부터 가족들과 약속을 한 뒤였다. 입김이 나올 정도로 추운 날씨였지만 가족들 모두 기쁜 마음으로 공연을 지켜봤다.

영산재, 민족음악관현악단 연주, 김성녀 · 박애리씨의 우리노래, 젊은 시절 너무나 좋아했던 정태춘 박은옥의 노래, 야단법석의 타악퍼포먼스, 해금 연주 등 화려하고 흥겨운 무대의 감동이 아직도 잔잔히 남아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날 우리 가족들은 그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폐사지가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또 이러한 폐사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됐다.

전국에 2000여개나 되는 폐사지는 역사의 어둠 속에 묻힌 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적이 면서 1600년 불교의 뿌리를 보여주는 바로 미터라는 것도 알았다.

무분별한 개발, 복원 등으로 훼손되어 온 폐사지를 지키기위해 1폐사지 1지킴이 운동, 음악회 개최 등의 노력을 해온 문화복지연대와 현대불교신문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진홍년 (경기도 의정부 금호동)

북관대첩비와 불교계

온 국민의 관심속에 10월 20일 북관대첩비가 인천공항에 안착, 100년만에 조국의 품안으로 무사히 돌아왔다. 한일불교복지복지회장 초산 스님의 오랜 원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지난 4월 을씨년스럽게 방치된 북관대첩비에 대한 남북한 언론들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후 한국주재 일본 대사관을 경유, 고이즈미 총리의 허가를 받아내기까지 반년의 세월이 지났다.

한 가난하고 힘없는 수행자가 만들어낸 민간외교의 값진 성과였다.

그러나 이렇게 초산 스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나서는 가운데서도 정부당국이나 불교계는 어떤 지원과 도움도 주지 않았다. 오히려 스님은 주위의 냉소 속에서 고군분투해야만 했다.

그러나 막상 북관대첩비가 돌아오니 마치 정부와 일부 종교단체가 자신들의 공인양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불자로서 매우 서글픈 마음이 앞섰다.

이제 외국으로부터 되찾아야 할 수많은 불교 문화재와 보물들을 그저 지켜보기만 해서는 곤란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교계가 제2, 제3의 초산 스님이 나올 수 있도록 뜨거운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유주용(북관대첩비 민족운동중앙회 기획팀장)

종책선거는 꿈인가?

불자들의 관심 속에 치러진 제32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막을 내렸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새롭게 당선된 스님에게 우선 축하를 보낸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것이 있다. 바로 종책토론회의 무산이다.

선거는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공약을 상호 검증하고 실천여부를 토론하는 장이다. 그래서 수년전부터 각종 선거에서는 합동토론회가 필수코스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유독 불교계에서는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았다.

이번 총무원장 선거 역시 마찬가지다. 10여일에 불과한 선거기간동안 6명이 넘는 후보자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청정선거실현 승가운동본부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은 후보자 종책토론회를 개최하려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후보자들의 불참으로 토론회가 무산됐다.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불교계의 전근대적인 모습이 답답할 뿐이다.

1000만 불자를 대표하는 스님이라면 자신의 정책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불교계의 비전을 제시했어야 한다. 이번 토론회 불참을 선언했던 후보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김춘섭(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현대' 만평 심 민 섭



제 1기생 모집
명리학 최고지도자 과정
우리 이제 앉아서 말하는 이 시점에서 단연코
일어서서 가리키는 지도자로서 그 위상을 우리 스스로 높여 봅시다.
「 최고 지도자로 다듬어가는 동방 대학원 대학교는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앞길에 등불이 될 것이며 찬란하게 빛나는 여러분들의 명성 뒤에서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

교육내용

명리학 핵심이론 정리	육효 핵심이론과 실전
명리학 실전풀이	육효 내정법
자미두수 기본이론	타로 이론 및 실습
자미두수 격국과 실전풀이	서양점성술 강해
부부인연법 특강	구성학 핵심강의 및 취기법
월영도 해석법 특강	길흉 방위 이용 개운법 특강
교수법 특강	성명학 (주역작명법 포함)
인상학 특강	음택 양택 · 현공풍수 특강

입학안내
◆ 입학자격 : 역학 분야 3년 이상 연구자
저명인사 및 교수 추천자 입학 특혜
전문 상담사, 권위 있는 교육 강사 희망자 대환영
◆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이력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반명함판 사진 3매
◆ 입학정원 : 50명
◆ 교 육 비 : 120만원

졸업 후 특전
◆ 동방대학원대학교 총장 명의 수료증 및 수료패 수여
◆ 동방대학원대학교 총장 명의 명리학 최고지도자 자격증 수여
◆ 졸업 후 한국전통과학아카데미 학술위원 위촉 및 학술위원증 수여
◆ 동양문화연구소 명의 명리학 교육 강사 자격증 수여

교육기간
◆ 개 강 : 2005년 11월 23일 수요일
(주간반 14시 / 야간반 19시 개강)
◆ 접수기간 : 2005년 11월 1일 ~ 21일 까지
◆ 교육기간 : 1학기제 (16주 완성)
◆ 교육시간 : 매주 수요일, 목요일 (주간반: 14 ~ 17시 / 야간반 19 ~ 22시)
1교시: 80분 수업(기본과목: 격국용신, 실전풀이, 자미두수, 월영도) / 20분 휴식
2교시: 80분 수업(특별과목: 육효, 타로, 서양점성학, 인상학, 성명학, 구성학 등)

문 의 처
동방대학원대학교 문화교육원 교학과 ☎ 02)745-2140
담당 011-9902-4640

새로운 동방문화의 길잡이
www.dongbang.ac.kr
東方大學院大學校
DongBang University of Graduate School

공주대학교 식품과학연구소
NSF-ISR에서 ISO 9001(2000), HACCP인증
3억원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심마니 토종 오가피
심봤다! 제2의 산삼
현풍 심마니 토종 오가피는 옛 고전의서에 전해 내려오는 국내산 오가피에 심마니가 채취한 천종산삼의 배양근을 함유하여 우리 체질에 맞게 심혈을 기울여 개발되었습니다. 첨단 생산 시설에서 엄격한 품질 관리로 좋은 제품을 만드는 현풍 심마니 토종 오가피에는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부터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 시작하세요!
왜 심마니 토종오가피인가?
■ 유효성분이 가장 좋은 100% 국산 토종오가피 (중국산의 6배)
■ 심마니가 강원도에서 직접 채취한 천종 산삼 원근으로 배양한 산삼 배양근 추출물
■ 홍성, 포천, 영월등 자사 직영 현풍농장에서 직접 재배관리
■ ISO 9001 품질인증, 식품위해요소중점 관리 기준 HACCP 인증
책자와 비디오테잎을 심마니 토종오가피와 함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주)현풍F&B HYUN PUNG F&B CO.LTD 02)447-9114

현대불교 창간11주년 기념행사 마하몰추천 우수상품 특별전

범주스님의 선(禪)적인 기(氣)가 충만한 참 달마도

소장만하여도 무병장수, 소원성취, 만사형통

40여년간 참선수행 정진해오신 범주스님의 달마도는 맑고 밝은 기(氣)를 대표하는 참 달마도입니다.
참 달마도란 수십년간 고행정진하신 스님의 먹으로 기(氣)를 모아 손수 그리신 친필 달마도를 일컬으며 달마도를 통한 좋은 기(氣)의 전달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달마도여야 참 달마도라 할 것입니다.

선(禪)적인 기(氣)가 충만한 범주스님의 달마도를 소장하시어 무병장수, 소원성취, 만사형통 하시기 바랍니다.
현대불교신문 11주년 창간을 기념하여 참 달마도 보급을 위해 평시 가격의 50%로 적은 수량 한정 판매하오니 이번 기회에 범주스님의 참 달마도를 한점씩 소장하시기 바랍니다.


친필달마도 액자
52.5" ×94.5×3cm


전신달마도접시
31" ×3.5cm


순금카드셋트
5.1×8.6cm

3종 Set ~~정상가:380,000원~~ 특판가:216.000원

선(禪)적인 기(氣)가 충만한 친필 달마도 액자

인쇄나 복사가 아닌 범주스님이 기(氣)를 모아 직접 그리신 친필 달마도를 최고급 원목액자에 표구완성한 것입니다. 범주스님의 달마도는 오랜 수행에서 우러나오는 맑은 기(氣)가 가득한 참 달마도입니다.


달마도청자도자기
35" ×37.5cm




포대화상백자도자기
27" ×38cm


친필휘호
32" ×68cm

2종 Set ~~정상가:200,000원~~ 특판가:120.000원

◆ 달마도청자도자기

40여년간에 걸쳐 수행 참선과 달마도 선묵화 정진을 해오신 범주스님께서 한점 한점 축원을 담은 친필 달마도를 소장하기 좋게 청자도자기에 담았으며 뒷면에는 반야심경을 금으로 새겨 넣었고 도자기 밑면에는 신묘장구다라니경을 담아 소장하시면 나쁜일이 생기지 않고 좋은일의 당이 생겨 밝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포대화상백자도자기

포대화상도는 복이 가득한 포대자루를 짊어지고 다니다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시는 복부처님.웃는 얼굴에 복이 온다는 말과 같이 포대화상도의 밝고, 밝은 웃음은 보는 이로 하여금 모든 근심 걱정 다 잊어 버리게 하여 좋은 일을 많이 생기게 합니다. 앞면에는 범주스님의 친필 포대도를 넣었고, 뒷면에는 나옹선사의 시를 담아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 범주스님 친필휘호

범주스님이 직접 쓰신 친필작품으로 휘호 또는 가훈 등으로 쓰면 좋습니다.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 모든것은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진다. 다음력기에 모든 결과가 달려있다.


~~정상가:50,000원~~ 특판가:35,000원

◆ 전신달마도접시

범주스님의 친필 전신달마도를 접시에 담아 어느 곳에도 진열하기 좋게 만들었으며 특히 방에 진열하시면 좋습니다. 달마도는 액운을 물리치고 수맥을 차단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상가:50,000원~~ 특판가:35,000원

◆ 포대화상접시

범주스님의 친필 포대화상도를 접시에 담았습니다. 포대화상은 복을 나누어 주시는 복부처님으로 좋은일을 불러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상가:40,000원~~ 특판가:35,000원

◆ 순금카드(99.9% 금)

앞면은 범주스님의 달마도가 담겨 있고, 뒷면에는 반야심경이 한글로 되어 있으며 바깥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 특히 운전하시는 분 또 골프하는 수험생, 사업하시는 분 등에 지갑에 넣어 가지고 다니면 좋습니다

마하몰 문의전화:(02)2004-8218~9
농협:053-12-113210 하동규

세계최고의 염주 금강염주

소원성취척척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워지는 신비와 영험의 北韓産 금강염주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세계희귀의 금강염주

세계희귀의 북한산 금강석과 천연광물에서 추출한 음이온.등을 이온 결합하여 1300℃이상의 특수 소성된 친환경적이며 최첨단 기능성 금강염주는 불심의 노력으로 수년간 연구 끝에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소원도 꼭 이루어지고 건강에도 최고인 금강염주는 스님께 보시로 부모님께 최고의 건강 선물입니다.

소원이 이루워지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

금강의 강한氣가 발산되는 금강염주는 몸에 지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강한 마음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켜 드리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입니다. 금강석이 생산되는 이곳은 원효대사께서 해골물을 드시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학을 포기하고 참선안거 하시어 대중 포교를 일으키신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입니다 12단주 108염주 손목단주 1Set 225,000원

건강에도 최고!
- 참선기도정진이 필요하신 분
- 마음의 안정이 필요하신 분
- 신경통으로 손발이 저리신분
- 관절등으로 손발이 차신 분
- 차고나면 손발이 붓는 분

선물로도 최고!
- 혈압이 높으신 분
- 갱년기 주부우울증
- 관절이 약하신 분
- 오십견 등
- 뒷목이 뻐근한 분

염주꼰이 끊어진 금강염주를 무상 수리하여드립니다.



금강염주를 구입하시는 모든분께 불경금책(반야심경)를 무료 증정합니다.

현대불교신문 창사 11주년 기념행사로 금강염주를 구입하시는 모든분께 세계최초 부처님의 공덕으로 제작된 불경금책(금박판) 반야심경(규격 3.5cm x 5.0cm)을 특별 증정합니다. 불경금책은 금을 파우다 나노화 시켜 특수 PT필름에 금나노를 최첨단 발포 공법으로 제작하여 평생 변하지 않고 영원히 보관이 가능합니다.

金剛極樂往生염주

極樂往生의 神秘와 靈驗의 金剛念珠



극락왕생으로 인도하는 신비와 영험

원효대사때부터 전래되는 녹색의 금강석 금강극락왕생염주는 신비한 영험으로 극락정토로 가는 길에 영가를 안정시키고 잡귀와 악귀의 유혹을 물리치며 극락왕생하게 하는 신비와 영험의 희구한 염주입니다. 12단주 108염주 손목단주 1Set 245,000원

금강극락왕생염주는 1,500℃이상 에서도 녹거나 타지 않으며 강력한 氣와 원적외선이 93% 발산하고 96%이상의 살균작용도 하며 영원토록 색상과 모양이 남아있어 더욱 신비를 주고 있는 염주입니다

金剛(금강)이란 가장 강하다는 뜻으로 金剛의 강한 힘으로 번뇌를 끊고 잘라와 악귀들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極樂(극락)이란 (정토삼보경)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서쪽으로 십만억 국토를 지나면 그곳에 極樂정토가 있습니다. 그곳은 항상 환희가 있고 근심걱정과 고통이 없으며 즐거움만 있는 곳입니다. 往生(왕생)이란 불교에서 사람이 임적 후 다른 세계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念珠(염주)란 부처님께 가고자 하는 마음의 법구입니다.

금강염주 상담문의:(02)723-0909
농협:053-12-113210 하동규

부처님 등불 수공예양초



불자님들의 가정과 스님께 선물 및 보시용으로 최고인 기원 전기 촛불 수공예 양초가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다. 특히 안정성과 그 효능이 없고 불자님 가정과 법당에 늘 환히 밝힐 수 있으며 30초 간격 마다 촛불이 흔들리는게 특징인 세계적인 특허 제품이다.
색상도 흰색, 자주, 청색, 노랑, 옥색의 다수가 출시되었다. 이 제품은 전국 불교용품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 제품문의 02-996-8830



신비로운 황토달마

숨쉬는 흙 황토로 "혼과 정성을 다해 조성한 달마를 정말 소중히 모시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기운을 얻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15개월간 조성한 황토 달마!!

규 격 : 가로200mm X 세로300mm
재 질 : 지리산 황토100%
가 격 : ~~59,800원~~ 30,000원

마하몰 문의전화:(02)732-1520
농협053-12-113210 하동규

지긋 지긋한 치아

기적의 치약

美國브라이트로 7일만 닦으시면 고생 끝!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럽고 참기 어려운것이 이가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저는 대전에사는 불자입니다. 1년전부터 치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다가 양쪽 어금니를 뽑고나니 다른이도 흔들리며 찬물도 못먹고 하루하루 진통제에 의존히 왔고 병원에 자주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든중 美國에서 프로로 활동하고 계신 스님께서 미국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치약을 주시면서 아침저녁 7일만 닦으면 이가 좋아진다고 해서 마음속으로 병원을 다녀도 효과가 없는데 치약가지고 쉽까 의심하면서 스님께서 주신거라 아침저녁 사용하면서 4일째 되는날부터 진통제를 먹지 않아도 되고 찬물을 먹어도 이가 시렵지 않는 놀라운 효과를 보았습니다. 일반치약처럼 7일정도 사용하면 입냄새는 물론, 10일정도 사용하면 충치는 물론, 풍치, 잇몸부력, 잇몸농증, 찬음식과 뜨거운 음식을 드실때 통증이 깨끗이 없어지며 누런이가 하얀이로 美白도 됩니다. 가격은 50,000원입니다.

*** 五福중의 으뜸가는 치아를 보존하는데 기적의 약초 치약으로 충분합니다.**

수입판매원 금강닥터사 TEL:(02)2271-1441 농협:360-12-046446 최남우

스님, 불자님의 생활필수품

독일 직수입 소형가전 4종셋트 특판



4종 Set! ~~정 상 가:280,000원~~ 특별보급가 :185,000원

커피메이트
용량 : 8-10잔
측면 수위 표시창
안정감 있는 주전자 손잡이
영구 필터
따르기 쉬운 용기



토스트기
분리형 빵 부스러기 받침대
전자식 타이머(6단계)
빵받이 길이
자동 OFF 기능
멈춤 기능(조리중)

사용법: 추면 뚜껑을 열고 물탱크에 물을넣은후 필터컵에 종이필터를 셋팅한후에 원두커피를원하는양만큼 넣어줍니다.스위치를 ON시키면 원두커피가 생성되며 스위치를 OFF시키기 전까지 온도를 자동으로 유지 시켜줍니다.

사용법:식빵을 조리구 에 넣은후 원하는 단계에 타이머를 맞추고 조리 시작 레버를 밑으로 당기면 조리가 시작되며, 타이머의 시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레버가 올라오면서 조리가 끝남

"유럽 홈쇼핑 판매 선두주자 'EFBE ELEKTROGERATE GMBH 社'의 Letbe-Schott"브랜드



물주전자
용량 : 1.7 L
초고속 가열(30초 /1컵)
360° 회전 방식 무선 코드
측면 수위 표시창
순간 재가열 기능
코드 보관 장치



계란찜기
용량 : 1-7 개(50초 /1개)
측면 수위 표시창
RARE,MIDIUM,
HARD -BOILED EGG
3단계 완벽조리
과열 방지 부저 기능
물 조절 계량컵

사용법: 원하는 만큼에 물을 부은 후 코드를 플러그에 연결 시킨후 제품손잡이 하단 전원 스위치를 CN 시키면 가열이 시작됩니다 물이 적정온도까지 끓으면 스위치가 자동으로 OFF됩니다. 제품을 구동시킬 때 반드시 주전자에 뚜껑이 완전히 닫혀 있어야만 스위치가 자동으로 OFF 됩니다.

사용법: 계란을 원하는 수량만큼 계란 받이에 넣으신후에 계량컵 하단부위에 있는 핀을 이용해 살짝 계란의 윗부분에 구멍을 내어준후(조리도중 계란이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코드를 플러그에 연결하면 조리가 시작됩니다. 투명창을 통해 조리과정을 한눈에 확인 할수 있으며 조리가 완료되어 부저가 울리면 코드를 플러그에서 제거한후 꺼내어 찬물에 헹구어 드시면 됩니다.

마하몰 문의전화:(02)2004-8218~9 농협:053-12-113210 하동규

복원의 꿈 이루는 그날 올때까지 …


가을비가 추적추적 온 10월 21일. 방청석씨는 한창 발굴 중인 회암사지가 눈에 밟혔다. 비 때문에 혹시 기단석 아래 토양이 유실되지 않았는지 발길을 이곳으로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회암사지 호법신장'

방청석

향기 도반의

향화(香火)가 끊긴 지 이미 오래다. 사람들 뇌리에는 대가람의 어떤 잔상도 남아 있지 않다. 현재의 기억 속에 잊혀져버린 부처님의 땅. 때맞춰 찾아오는 신도도, 어깨를 스칠 인연도 없어, 지내온 사연을 물을 수가 없다. 하지만 알아야 했다. 아니 알고 싶었다. 어렸을 때 벌에 쏘이며 뛰어다녔던 그곳이 '절터'임을 알게 된 후부터, 더 이상 그곳은 뒷산 돌밭 놀이터가 아니었다. 조선시대 전국 사찰의 총본산이었고, 지공 · 나옹 · 무학 스님 등 걸출한 선지식들이 용맹정진했고 그 선기가 면면히 이어져 오는 도량이 바로 회암사지이기 때문이다.



20여년간 복원 홍보, 유물보고서 발간 참여, 주변정리 등에 앞장

양주 회암사지를 20년 넘게 지켜온 이 지역 토박이 방청석씨(44). 조선시대 국찰로서 위용을 떨쳤던 회암사지에 두 발을 들여놓을 때마다 가슴은 벅차오른다. 그래서 일까? 매년 여름에 제초기를 메고, 함부로 일가를 이룬 달개비 꽃넝쿨과 잡초를 베어내는 고된 일이 힘들지 않았다. 1996년부터 회암사지 발굴이 시작될 때, 수시로 발품을 팔며 발굴현황을 챙겨도 수고스러움을 느끼지 못했다.

"아침 일찍 안개가 내려앉은 회암사지를 볼 때마다 마음이 설레요. 4백여 년 전, 스님들의 염불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고, 새들이 처마 끝에서 앉아 우는 것 같아요. 스무 해 넘게 회암사지는 그렇게 저를 불러들였고, 저는 회암사지와 말없이 대화를 했죠."

방씨와 회암사지의 인연. 1992년 결성된 양주 회천청년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역 청 · 장년 일꾼들이 회암사지를 경기 북부지역 주민들의 정신적 귀의처로 조성하겠다는 복원운동을 회천청년회가 펼치면서부터다. 청년회 상임부회장을 맡았던 방씨는 당시 회암사지 복원 홍보 스티커 자체 제작, 유물보고서 발간 참여, 담장 설치, 주변정비 등의 청년회 활동을 주도했다.

산불 예방위해 의용소방대 조직
폐사지콘서트서 '지킴이 1호' 선정
학생들 위한 탐방 프로그램 계획

"지역주민들에게 회암사지는 뒷동산 쉼터였어요. 아예 절터란 개념조차 없었지요. 머리가 깨진 불두는 돌담 밑에 얼굴을 파묻고 있어도, 청기와 청화백자들은 부서진 채 땅바닥을 나뒹굴고 있어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죠. 그래서 지역 행사가 있을 때마다 청년회가 직접 만든 회암사지 영상물을 보여주며 귀중한 문화재임을 알려줬어요."

늘 작업복 차림으로 회암사지와 양주 지역을 누볐다는 방씨. 사실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 회암사지의 중요성도 인식하지 못한 주변 사람들은 그를 극구 말렸다. 조그만 꽃집을 운영하는 방씨에게 '돈도 되지 않는 일에 매달리지 말라'는 말들이었다. 오히려 자신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며 회암사지 복원활동을 했다.

왜 그토록 방씨는 회암사지에 사랑을 쏟아 부었을까?

"폐사지는 조선시대 배불정책이 가져온 불교의 아픔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불교의 자화상인지도 모르죠. 그대로 방치한다면 아픈 상처가 되고, 복원하면 그 아픔을 딛고 불교 발전의 터전을 다질 수 있다고 확신해요."

회암사지에 대한 방씨의 끝없는 애정. 회암사지를 제대로 알고 복원하기 위해 방씨는 역사사료를 뒤지고, 전문가들을 찾아 다녔다. 회암사의 위용을 목은 이색의 <회암사 주조기>를 통해 확인했고, 문화재 가치를 가늠할 안목을 갖으려고 전문서적을 탐독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회암사지의 완벽한 보호를 위해 소방자원봉사 모임인 의용소방대를 조직했다. 회천청년회원들과 조직한 이 단체를 통해 화재로부터 회암사지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자청했다. 방씨의 이런 노력들이 부처님에게도 통했을까? 6년 전 회천군 일대에 일어났던 큰 산불에도 회암사지는 온전했다.

"산불소식을 듣고, 곧장 회암사지로 달려갔죠. 산불은 회암사지 인근의 소나무를 죄다 삼켜버리고 있었어요. 바람도 장난이 아니었어요. 사방으로 불씨를 날려 보내는데, 행여 회암사지로 불길을 옮길까봐 노심초사했죠. 그런데 산불은 회암사지로 근접도 하지 못했어요. 보이지 않는 회암사지 호법신장들이 불길을 막아낸 것 같아요. 감탄이 절로 났었죠."

방씨의 이런 활동은 입 소문을 타고 최근 전국의 폐사지 복원에 앞장서고 있는 문화복지연대(상임공동대표 김종엽)로부터 '회암사지 지킴이'로 위촉받게 했다. 올 10월 16일 회암사지 앞마당에서 열린 '전국폐사지 투어콘서트' 현장에서 '1호 폐사지 지킴이'로 선정된 것이다.

"영산재 북 소리와 스님들의 복원 기원에 눈물을 흘렸죠. 순간, 상상만 했던 261칸 회암사 가람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다시 회암사지를 깨우는 느낌이랄까요?"

회암사지에서 '텅 빈 충만'을 경험한다는 방씨. 야무진 회암사지 복원 활동 계획을 밝혔다. 우선 회암사지 발굴 과정과 발굴로 인한 2차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해 문화복지연대 홈페이지(www.jgo.or.kr)에 연재할 생각이다. 또 지역 초 · 중 · 고 학생들에게 회암사지 탐방 프로그램도 마련해 불교문화재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기회도 줄 계획이다.

경기 양주/글=김철우 · 사진=고영배 기자

좋은 인연입니다

안국선원 전경

봉 안국선원 신축 개원 축

사부대중의 신심과 원력으로 부산선원을 신축하여 개원식을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도심의 수행도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나무마하반야바라밀

● 개원식 일시 : 불기 2549(2005)년 11월 6일(일) 오전 10시
장소 : 안국선원 대법당(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대한불교 조계종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www.ahnkookzen.org

■ 부산 : 051)583-0993~4 ■ 서울 : 02)732-0772 ■ 뉴욕 : 212-343-0809

佛法에 대한 바른 안목 서야

하와이 무량사-현대불교 공동 주최

선원장 초청 간화선법회(4)

주제:간화선의 의미와 전통-정견

법주:**설우 스님**(청주 법인정사 선원장)

10월 16일 오전 11시(한국시간 17일 오전 6시) 하와이 보타산 무량사(주지 도현)에서 법석에 오른 설우 스님(청주 법인정사 선원장)은 멀고 먼 길을 따라 인도에서 중국에 전해진 선의 역사와 함께 초조 달마 스님의 마음을 하와이에서 되살려내려 하고 있었다.

무량사 창건 30주년과 문화원 준공을 기념하여 무량사와 현대불교신문사(대표 김광삼)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법회에서 설우 스님은 '간화선의 의미와 전통-정견' 주제로 법문했다.

정견 서면 부처님 가르침 믿는 마음 지극해져

"이역만리 머나먼 하와이에서 간화선 수행을 하고 또 간화선 수행을 보다 많은 이들에게 알리려면 정견(正見)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바른 안목인 정견이 서면 부처님 가르침을 믿는 마음이 아주 지극해 집니다. 그러면 간화선 수행을 왜 하며, 수행을 해서 생기는 공덕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돼 수행을 해야겠다는 발심이 절로 일어납니다."

기독교 세력이 주를 이룬 교포 사회에서 불자로서 사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일까? 불법이 좋아 수많은 유혹을 뿌리친 신도들의 귀가 번쩍 뜨이는 법문이 아닐 수 없었다.

"도대체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생명이 있든 없든 서로가 의지하면서 떠날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연기법(緣起法)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세상의 모든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존적으로 존재하며 그것들이 없으면 나 또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연기의 도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실로 알게 될 때, 나 혼자만 잘 살겠다고 하는 이기심, 나와 남을 분별하는 시비분별, 시기, 질투를 떠나 진정한 공존(共存)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비분별, 시기질투, 미움 없이 사는 길을 설하는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신도들의 뇌리엔 고국을 떠나와 언어, 인종, 문화의 차이로 겪었던 고통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설우 스님의 법문이 이어지는 동안 고통 없이 사는 길을 앞에 두고도 멀고 먼 길을 돌고 돌았다는 자각과 함께 인종, 시공을 뛰어넘는 진리의 세계에 들 수 있다는 희망을 함께 느낀다.

스님은 "이 우주 세계를 법계라 하며 법계에 두루한 생명 세계가 살아가는 이치는 연기법으로 요약된다"며 "연기법을 이해하고 마음의 본향으로 돌아가야 생명들은 영원히 노래하고 영원히 춤을 추며 살 수가 있다"고 설파했다. 만생명이 영원히 춤추고 노래하는 적정열반의 세계, 이곳이 간화선 수행의 공덕이 아니고 무엇이랴.

"간화선 수행은 우리 모두가 지금 바로 이대로 부처님이라는 철저한 믿음에서 시작되는 수행"이라고 정의한 스님은 "선은 곧 부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며 인도의 부처님으로부터 중국을 거쳐 중앙 아시아쪽으로 전해져 내려오면서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본심 즉 자성이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하는 그 당체를 깨우치는 수행법 중에서 가장 수승한 수행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법문했다.

'행복의 문' 안에서만 열 수 있어

이어 스님은 "간화선 수행의 독특성과 수승함은 바로 화두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화두는 깨달음을 얻는 조사 스님들이 제시한 것으로 중생 수준에서 보면 상식과 생각의 선을 뛰어넘어 우리 생명의 본래 근원적인 존재의 바탕, 성품 자리를 바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며 "화두는 시공을 초월하며 지금 바로 여러분에게 법문을 하는 저의 주인공이고 또 법문을 듣는 여러분의 당체 즉 불성, 본심의 자리"라고 강조했다.

특히 스님은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바라면서도 바깥의 조건들에서 행복을 찾고 있어 마치 소금물을 마시는 것 같은 끝없는 갈증에 시달리게 된다"고 지적하고 "행복의 문은 바깥에서는 절대 열리지 않고, 안에서 그 문을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밖의 물질이나 조건에서 성취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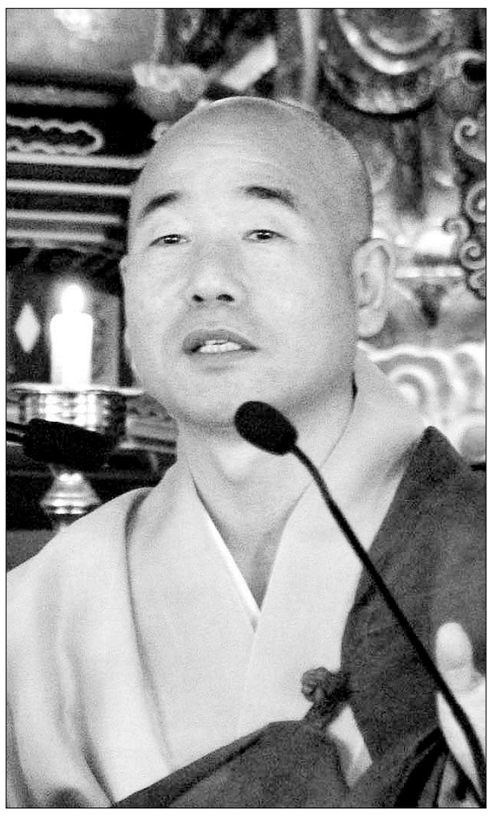
"행복의 조건이 안에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행복을 여는 열쇠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믿고 열고 쓰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귀한 보배가 내 속에 있는 줄을 모르고 자꾸 부나 명예 등 밖으로 찾아 헤매 다니다 보니, 본의 아니게 남에게 못할 짓도 많이 하면서 타향객지에서 외롭게 힘든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법회를 통해 행복과 평온의 조건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속에 갖춰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갈등, 시비를 떠나 마음의 본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오늘 이 법회의 진정한 의미이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즉 불성을 되찾는 것이야말로 갈등과 분쟁 등으로 고통 받으며 살고 있는 현대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됩니다."

출발점은 '내가 본래 부처'라는 믿음

"우리의 존재법칙을 깨닫기 위해 나아가는 길이 수행입니다. 기도, 염불 등 부처님의 마음을 찾아 들어가는 여러 가지 수행방법 중 간화선이 가장 수승한 수행법입니다. 보살승에서는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육바라밀이라는 선행을 닦아야 한다고 하지만 간화선 수행은 지금 우리가 그대로 부처님의 성품과 똑같은 부처님이기 때문에 바로 그 마음 그대로 생활을 하고 베풀고 살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본래 지금 이대로 부처님이라는 겁니다. 9층에 올라가려면 내가 1층에서 9층까지 올라가면서 많은 선행을 해야 한다는 보살승과는 달리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9층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믿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믿음이 수승해지면 지금 우리의 삶, 지금 이대로가 바로 완성이요, 부처님입니다."

'중생심이 그대로 법계심'이라는 달마 스님의 가르침이 시공을 뛰어넘어 하와이에 전해지는 순간이었다. 대중들의 마음에 부처님 마음인 '선'의 씨앗을 심어주기 위한 설우 스님의 자상한 법문은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 두 시간여 동안 이어졌다.

"수행을 하는데 있어, 우리가 본래 부처님이라는 믿음이 출발"이라며 신심의 중요성을 일깨운 스님은 "믿음은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간화선 수행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간화선 수행을 하면 현실의 고통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본래 우리의 본바탕인 부처님의 성품으로 갈 수 있다는 확신"이라고 했다. 그러나 스님은 믿음만 있고, 실천수행을 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안 된다며 생활속의 정진을 당부했다. 간화선 수행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바른 신심을 바탕으로 '내가 본래 부처라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통 받으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 즉 분심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제기가 확실하지 않으면 간화선 수행이 관념에 그치게 되고 생각으로 떠돌면서 생활화되지 않는 폐단을 낳게 된다는 것이었다. 수행이 곧 생활과 직결되어야 한다.



하와이 무량사 설법전에서 법문하고 있는 설우 스님.

'왜 고통속에서 살까' 분심 일어나야

"모두가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의 삶을 살 수가 있고, 부처의 길을 갈수도 있는 것이니 내가 곧 부처라는 믿음으로 화두를 들어 눈 깜짝 할 사이에 고향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정견을 주제로 열린 이날 법회는 간화선의 전통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 대중의 이해를 도왔으며 '연기사상을 바로 안 사람은 화두를 들면 바로 이 자리에서 불성 자리에 들 수 있다'는 말로 끝을 맺었다. 법문 뒤에는 참선 지도가 이어졌다.

이날 법문을 들은 불자들에게 선의 세계는 더 이상 멀지 않았다. 그날 밤, 무량사를 품고 있는 보타산 자락에는 구름을 벗어난 보름달이 유난히 밝게 떠올랐다.

글 · 사진/하와이=천미희 기자

■ **설우 스님은** 1971년 상주 원적사에서 원명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75년 석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1978년 구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해인사 통도사 수도암 도성암 등에서 25안거를 성만했으며 교학에도 해박하다. 현재 조계종 교육제도개선위원회 위원 · 승가고시위원 · 기본선원 교선사 등의 소임을 맡고 있다.

이국땅에서 듣는 간화선 법문-참석자들 소감

많은 신도들이 발심하는 계기 돼

○…이번 법회 때문에 한국 방문을 미루게 됐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오신 선원장스님들의 법문을 들으면서 한국에 안 가고 법회에 참석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법회를 계기로 더욱 열심히 정진해야 겠다는 발심도 하게 됐어요. 이번 겨울 동안거에 무량사 태평선원 수좌스님들과 함께 더 많은 신도들이 정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무르익어 기쁩니다.

전이순(65 · 무량사 신도회장)

바쁜 생활속에서도 화두 들 수 있다니…

○…선의 유래에 대해 자상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운전을 많이 해야 하는 직업이라 바쁜 생활 속에서도 화두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간화선 수행을 열심히 해서 늘 부처님과 함께 생활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스티브 리(50)

참선법 알게돼 실천할 용기 생겼어요

○…그동안 관념적으로만 생각했던 참선에 대해 앉는 방법, 호흡법 등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알려 주셔서 직접 해보겠다는 용기를 갖게 됐어요. 직장생활 때문에 절에 자주 나오지는 못하지만 이제부터는 집에서 간화선 수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4주 동안 한번도 빠지지 않고 선원장스님들의 법문을 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직장 때문에 못 나와 아쉬워요. 한국의 선원장스님들을 만나 뵙는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합니다.

수잔(45)

남은 생 열심히 공부하겠어요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데다가 관절이 심하게 아파서 의자에 앉아서 법문을 들었어요. 이런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허리가 아픈 것도 참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비디오나 녹음 테이프를 구해서 다시 듣고 또 들어서 이해를 제대로 하면서 남은 생을 공부하다가 가야겠어요. 이영진(85)

앞으로도 선법회 계속 열렸으면…

○…유명하신 큰스님들을 초청하여 하와이에서 간화선 법회를 해주신 무량사 주지 도현 스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법회가 계속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수행법을 배웠으니 정진하렵니다.

김진성



법문이 끝난 후 설우 스님의 지도로 참선을 하고 있는 무량사 신도들.

신비한 손

天一氣功

이재복 회장(독일 동서의학 병원에서 인정증 획득)

서양의학의 본 고장인 독일 동서의학병원에 초청되어 그곳환자들을 치료하여 의사들과 환자들로 부터 "슈퍼"라는 최상의 찬사를 받고 3,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정증을 획득하였습니다.(미국병원으로보급중)

天一氣功研究會는

13년전에(1993년)설립되어 파워봉, 신선대 등을 전국선방의 스님들과 불자님들께 보급하여 오고 있으며 수만명의 사용자 및 수련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해결이 어려운 질병은 기공 수련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천일기공연구회

소 백 산 수 련 원

수련문의전화 02)3436-3206~7(서울본회)
054)637-9810(경북영주수련원)

● 수련원 :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자리)

氣功指導師 과정(속성반) 3박4일코스

50기 - 10월 20일 오후2시 ~ 23일 12시
51기 - 11월 24일 오후2시 ~ 27일 12시
52기 - 12월 8일 오후2시 ~ 11일 12시

※ 매월 선착순 20명 마감

◆ 性命雙修(성명쌍수) - 몸과 마음을 같이 닦는 것이 도와 건강에 이르는길 입니다.
◆ 色心不二(색심불이) -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가 아닌데 마음만 닦으면 몸은 언제 닦으시렵니까?
◆ 몸이 마음을 담는 그릇(法器)인데 몸이 병들면 마음이 청정해질 수 있나요
◆ 골격이 틀어지고 숨줄이 막혀 있어서 앉아 있을수록 몸이 뒤틀리고 다리가 저려서 좌선을 할수가 없는데 어찌 도를 닦는다 하십니까?
◆ 숨을 고르는 것과 만들어 쉬는 것이 하늘과 땅 만큼의 차이인데 그 원리를 아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세상에는 숨을 만들어 쉬면서 큰병신의 길을 스스로 걸어 가는 수행자가 없지는 않습니다.
◆ 여기 성명 쌍수와 숨을 올곧게 고르는 수행법으로 인연있는 불자와 스님들을 모시고져 합니다.

※ 수련을 마친 스님들 께서 비록 짧은 3박 4일이지만 평생에 소중한 인연 맺은 좋은기회였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십니다.

1단계수련 : 몸만들기 비결을 배우시면 질병에서 벗어나고 신도님들께 지도하실 수 있습니다.

◆ 수련 2일째부터 양손에서 기를 발공하여 환자들의 막힌 경락을 소통하여 사기, 병기, 냉기, 탁기를 배출하여 건강한 양체의 몸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 천도재를 많이 지내는 스님들 중 사기를 많이 받아서 빙의에 시달리거나 이유없이 몸이 아프고 몸이 냉하고 병마에 시달리는분은 수련기간중에 해답을 얻습니다.
◆ 氣를 발공하면 곧바로 나쁜기운이 빠져나오고 악취가 진동을하고 찬바람이 소용돌이 치면서 빠져나옵니다. 거기에 손을 대보면 손이 시리고 따갑고 저린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질병을 일으키는 원흉입니다.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분들에게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누구나 기치료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 두통, 오십견, 좌골 신경통, 요통, 디스크, 구안와사, 신경통, 테니스엘보, 관절염(통)등 통증 치료법을 배워서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수행기획 / 옛 선지식의 육성법문 듣고 공부하는 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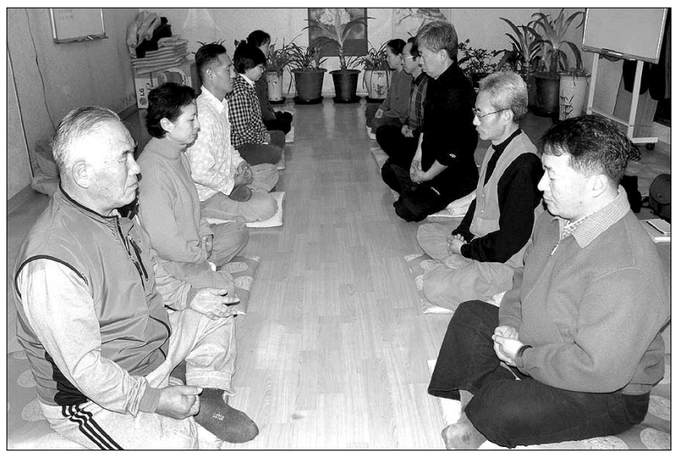
육신은 스러졌으나 법신은 성성히 남아

"육성법문은 녹음기계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그 음성은 전강 스님의 살아계신 법신이 설법하고 있는 것입니다…(중략)…여러분들이 전강 스님의 녹음법문을 신심으로 잘 듣고 열심히 참선하면, 부처님의 최상승법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2005년 전강 스님 사리탑 제막식에서 송담 스님의 추모법문〉

"안거 때마다 듣는 해안 스님의 육성법문은 '참선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쉽고 편안하게 알려줘 공부에 큰 힘이 됐어요. 특히 '깨달으려면 크게 한번 죽어라'는 스님의 말씀은 해태심이 일어날 때마다 경책이 돼요. 정신이 번쩍 들죠." 〈서울 전등선림에서 수행중인 김명자씨(서울 수유동)〉

옛 선지식의 생전 육성법문이 수행자들의 공부지침이 되고 있다. 선 수행의 준걸(俊傑)이었던 스승들의 선풍을 오롯이 마음속에서 새기고, 깨닫기까지의 체험담을 녹음한 육성법어가 깨달음의 계기를 마련해준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육성법문으로 수행을 지도하는 수행처로는 인천 용화선원(선원장 송담), 서울 전등사 전등선림(원장 동명), 정릉 보림선원(회주 묵산)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수행처에서는 동·하안거 정진기간, 산철, 토요철야참선정진 등의 수행시간에 전강, 해안 스님과 백봉 거사의 육성법문을 정진대중들에게 들려주고 있다.



'선지식의 가풍인 담긴 육성법문을 마음에 새긴다.' 사진은 서울 정릉 보림선원 재가선객들이 백봉 거사의 육성법문을 듣고, 곧바로 정진을 하고 있는 모습. 현대불교자료사진

공부 점검과 경책의 나침반

인천 용화선원에서는 전강 스님(1989~1975)이 열반한 지 31년이 지난 오늘도 선사의 육성법문이 흘러나온다. 매일 오후 2시부터 1시간씩, 녹취 테이프 700여 개가 1년 365일 내내 스님 선방인 법보선원과 재가자 수행처인 보살선방, 시민선방의 대중들을 위해 틀어지고 있다. 한국 현대불교의 선지식인 전강 스님의 법문을 통해 출·재가 수행자들이 자기수행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경책의 기회로 삼고 있다.

이 같은 육성법문 공부는 조실 추대를 거부한 채 여전히 열반한 전강 스님을 조실로 모시고 있는 송담 스님의 뜻에서 비롯된다. 전강 스님의 육성녹음 테이프를 듣고 난 뒤, 송담 스님이 대중들에게 상당법문을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서울 성북동 전등사 전등선림도 마찬가지다. 해안(1901~1974) 스님의 "7일만 공부하면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는 육성법문을 안거정진 때 30분씩 들으며, 재가수행자들도 깨달을 수 있다는 확신을 다지고 있다. 때문에 전등선림은 통도사 경봉 스님과 함께 '동(東) 경봉, 서(西) 해안'으로 불리며 선풍을 떨쳤던 해안 스님의 가풍을 이어가기 위해 지금도 스님을 조실로 모시고 있다.

한국 현대거사불교의 거목인 백봉 김기추(1908~1985) 거사의 선 수행을 잇고 있는 서울 정릉 보림선원도 백봉 거사의 육성법문을 스승 삼아 정진하고 있다. 매주 토요철야참선정진, 매년 연말에 있는 1주일 철야정진 때면, '45분 참선-15분 포행'과 함께 백봉 거사의 〈금강경〉 강의 법문을 듣는다.

토요철야정진에서는 2차례(오후 10~11시, 새벽 1~2시), 1주일 철야정진에서는 총 6시간씩, 300여 개 법문 테이프를 번갈아 가며 청취하고 있다.

보림선원 전근홍 총무는 "백봉 거사의 육성법문은 12년간 '금강경' '유마경' '선문염송' 등의 경전과 선어록을 강의한 내용이 담겨 있다"며 "2004년에는 1년간 녹취내용을 풀어 책으로까지 발간해 수행자들에게 수행지침서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공초월 공부길 알려준다

선지식들의 육성법문이 재가불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

보림선원 회주 묵산 스님은 "육성법문 청취는 선지식의 정법을 100% 있는 그대로 들음으로써 법의 와전과 곡해를 경계하게 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공부길을 알려준다"며 "육신은 갔지만 법신으로 남은 선지식의 법은 성성하게 살아 있음을 깨닫게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선지식의 육성법문은 후학들의 공부 분위기를 크게 진작시키는 효과도 있다. 법문을 듣고 곧바로 실참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승의 법을 이은 지도법사에게 현장에서 수행지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등선림에서 화두참구 3년째인 허화정(50·서울 목동)씨는 "갈등과 싸움의 연속인 화두참구는 마치 내 마음과 술래잡이를 하는 것 같았는데, 해안 스님의 육성법문은 찰나 찰나 찾아오는 나태함을 극복하는 힘이 됐다"고 경험을 피력한다.

이처럼 재가수행자들의 신심을 북돋아주는 선지식의 육성법문은 무엇보다도 자기수행을 '현재화' 시킴으로써 공부경계를 점검하는 나침반이 되고 있다.

매주 부천에서 보림선원 토요철야참선에 참석하는 문대웅(52)씨는 "백봉 거사의 육성법문은 '진리의 현장감' 차원에서 재가자들에게 구체적인 설득력으로 그 가르침이 다가온다"고 말한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아봐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봐타 센터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도피안사 재가자 동안거

안성 도피안사(주지 송암)는 11월6일부터 2006년 2월12일까지 '재가불자 을유년 동안거 100일, 절수행(염불.염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좌선 염불 염송 독경 주력 등을 닦아가기 위한 기본인 절수행을 통해 신심을 키우고자 한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동국역경원 박종린 역경위원의 지도 하에 결제기간 매일 108배를 기본으로 하며, 각자의 근기에 따라 좌선 염불 염송 사경 및 독경 등 다른 수행법도 실참할 수 있다. (031)676-8700

반냐라마 수강생 모집

근본불교 상가 반냐라마는 11월7일부터 1월 9일까지 경남 김해 수행도량에서 수행학교 21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마음의 구조와 기능, 좌선, 행선, 생활선의 기법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이번 수행학교는 △사이버 수행교실 △경전교실(초전법륜경, 대반열반경, 수타니파타, 대념처경, 법구경) △문화교실(차 체험, 천염염색, 꽃꽂이) 등이 열린다. 011-1700-2841

위빠사나선원, 저녁반 개설

한국위빠사나선원은 11월 2일부터 12월 28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직장인을 위한 위빠사나 수행 저녁반을 개설한다. 원장 묘원 법사의 지도로 진행되는 저녁반 수행은 좌선과 경행, 〈염처경〉 강의, 수행면담 등으로 진행된다. (02)512-5258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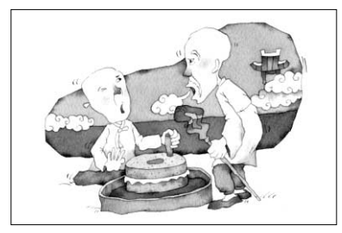
〈41〉 '쇠맷돌' 비구니

정말 황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을 하게 된다. '어처구니'는 윗맷돌 가장자리에 달려있는 나무 손잡이를 말한다. 아랫맷돌의 가운데 부분에서 윗맷돌과의 중심을 잡아주는 쇠심은 '중쇠'라고 부른다.

어처구니와 중쇠는 맷돌의 제 역할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하다. 하지만 중쇠는 늘 고정되어 분실한 염려가 없지만 어처구니는 잃어버리기 십상이다.

그런데 부엌에서 급히 맷돌을 써야하는데 어처구니가 없다면 그야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마련이다. 또 선문답에서 중쇠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체(體)의 의미로, 어처구니는 항상 돌기 때문에 용(用)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총림도 맷돌을 사용할 일도 잦았을 것이다. 그러다보면 맷돌마저 법거량의 도구가 될 일도 당연히 생기기 마련이다.



귀종지상(歸宗智常) 선사 회상에서 있었던 일이다. 어떤 납자가 울력 시간에 맷돌을 돌리고 있었다. 귀종지상 선사가 이걸 보고 한마디 던졌다. "맷돌은 네가 돌릴 수 있지만, 중쇠는 그렇지 않다. 한 마디 일러라."

그러나 그 납자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했다. 맷돌의 어처구니는 그대로 손에 쥐고 있었지만 대답을 못했으니 그 상황이야말로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된 셈이다. 당연히 얼굴이 화끈거렸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쇠는 '중심수자(中心樹子)'라고 돼 있다. '가운데 있는 나무'라는 뜻이다. 쇠가 보편화되기 전에는 그 부분을 나무로도 만들었던 모양이다.

앞뒤 문맥으로 보건대 본래 나무로 만들던 어처구니를 말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이 말을 듣고서 보복종전(保福從展, ?~928)이 대신 말했다.

"지금까지는 맷돌을 돌렸으나 이제는 못 돌리겠군." 맷돌을 수행삼아 돌려야 했는데 단지 노동에 그쳤기 때문에 제대로 된 맷돌질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라 하겠다.

맷돌이라는 의미를 법명으로 사용한 것은 '철마(鐵磨)'니(尼)이다. 철마는 '쇠로 된 맷돌'이라는 뜻이다. 속성이 유(劉)씨인지라 총림에서는 '유철마'라고 불리는 도인이다. 자호이종(子湖利蹤) 선사가 그 비구니의 소문을 듣고 와 대뜸 물었다.

"그대는 유철마가 아닌가?"

무쇠맷돌은 어떤 경우라도 깨지지 않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을 갈아버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의미이니, 이름자를 빌어 그 비구니의 수행경지를 추켜올려준 말이다.

"부끄럽습니다(不敢)." 물론 칭찬에 철마 비구니가 자기를 낮춰서 겸양한 표현이다.

하지만 그 다음은 당연히 반전시키는 말이 튀어나오게 된다.

"그대 이름이 쇠로 된 맷돌인데 오른쪽으로 돌리는가? 왼쪽으로 돌리는가?"

비구였다면 설사 그 이름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묻지를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맷돌은 물레방아와 더불어 알게 모르게 성적(性的)인 이미지가 투영되어 있는 말이기 때문이다. 일종의 음담패설인 동시에 선문답인 것이다.

오른쪽으로 돌리는가 왼쪽으로 돌리는가?
"망상 부리지 마십시오"라고 대답해 '한 방'

아니 격조를 갖추었기 때문에 음담패설이 선문답이 된 것이라고 해야 맞을 것이다. 하지만 그 말에 그만 여자라는 장애를 일으키게 되었다.

"화상께서는 망상을 부리지 마십시오(莫顚倒)." 얼굴이 붉어졌는지 그 순간에 미(迷)해 졌는지 그 대답은 이미 속제(俗諦)로 떨어져 버렸던 것이다.

그러자 자호 선사는 그럴줄 알았다고 하면서 한 방 때렸다. 그리고 말했다. "멀리서 듣기에는 공부 좀 한다고 하더니 가까이 와서 보니 듣던 바와 같지 못하구나."

그 사건이후 철마는 위산영우(771~853) 회상에서 더욱 용맹정진하여 안목이 완전히 열리게 되었다. 이에 위산 선사는 그 비구니를 '노고우(老牯牛:늙은 검은소)'라고 불러주었다. 자신을 늘 '수고우(水牯牛:검은 물소)'라고 불렀으니 나만큼의 경지가 열렸다는 뜻으로 붙여준 별명이기도 했다.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과일의 왕 두리안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금번 두리안을 대량 수입하게돼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뜻으로 두리안 가격을 인하하게 되었습니다.

두개 6.5KG이상 55,000원
한박스 13KG이상 100,000원

Sale!

후식으로 보이산차 장미차 국화차 중 하나를 보내드립니다.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후레쉬 망고가 입고되었습니다.

판매및 문의
향다원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법회때마다 음향 때문에 고생 하셨다면…"

사찰에 설치된 음향이 대부분 단순히 확성기능의 음향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저렴한 가격에 스님의 법문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음향 시스템을 갖추십시오.

취급브랜드 JBL dbx AKG MACKIE crown

믿을 수 있는 회사와 제품을
원하신다면 스님이 운영하는
(주)야단법석과 상의 하십시오

전화 주시면 무료로 점검 및
음향 설계해 드립니다.

야단법석 문의 : 050-5844-0108 (관음사업부)

사원 모집
㈜야단법석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불법에 대한 신심을 더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 신행생활을 하면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원하시면 야단법석과 함께 하십시오.
• 모집구분 : 지점장 - 남 0명, 여 0명. 사 원 - 남 0명, 여 0명
• 근 무 처 : 본인 거주지 • 문 의 : 050-5244-0108

수능수험생을 위한 특별기도

제 53회 3000배 철야정진

평소 갈고 닦은 실력 100% 발휘를 위한 기도!
수능 고득점, 만점을 위한 기도!
긴장하지 않고, 떨지 않고 당당한 모습을 위한 기도!
모든 수험생들에게 용기를 주는 기도!

500만 배 성만한 청견스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죽비소리에 맞춰 성스럽게 절을 하며, 공경심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며 '부처님 크신 은혜 고맙습니다'를 끊임없이 염송하여 자신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100% 기도 성취의 대 긍정의 감사로 학업성취의 큰 소원을 이뤄냅시다.

◆ 날 짜 : 2005년 11월 19일(토요일) 저녁 9시~일요일 오전 7시
(절하는 법 교육: 저녁 7시~9시, 3000배 시작하기 전)

◆ 준비물 : 동참비 2만원
기도포(큰수건), 수건 2개(땀 닦을 용도) 두꺼운 면양말 2켤레, 면티 2매, 수련복(하의)2매, 간단한 간식, 물병
※ 당일 저녁 공양을 준비 하지 못합니다.

장소 : 하얀마음선원
☞ 전철 : 분당선 이매역 1번 출구 앞, SK주유소 옆 도보로 5분거리
(분당선: 2호선 선릉역, 3호선 도곡역, 8호선 복정역 이용)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행중심 교육도량 법왕정사

◑ 서울 군자법당 02) 456-4994, 0035
☞ 지하철 5,7호선 군자전철역 4번 출구 백악관 방향 200M 이망스 가구 4층
◑ 부산 금정법당 051) 583-7886
☞ 지하철 1호선 두실전철역 7번 출구 남산정비 좌회전 50M 경우빌딩 4층

http://cafe.daum.net/sorisan, www.dkt.or.kr
※부산은 노포동 터미널에서 분당행 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Energy Healing Center
윤·기치유 명상 수련원

• 기치유는 오장육부의 에너지를 보충해주고 균형을 맞춰주는 치유법으로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대체의학 중 하나이다.
• 본 수련원에서 하고 있는 기치유(에너지치료)는 플라시보 효과가 아닌 실질적인 치료법으로 근본적인 치유 효과가 있다.

氣는 곧 Energy이다!!!

• 누구나 배워서 스스로 치료할 수 있고 가족이나 이웃의 질병도 치유해 줄 수 있으며 병원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모든 증상등을 치유할 수 있다.
• 미 국립 보건원 산하 대체의학 연구소에서 21세기 의학은 기치유가 일반화 되는 시기로 전망하였듯이 직업으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기치유사 26기 수련생 모집

개강일자 : 2개월 과정(8일완성)
11월 16일 수요일 오후 2:30~5:00
11월 17일 목요일 오후 7:00~9:20
수련비 : 80만원
수련지도 : 윤한흥
서울 불교대학원대학교 요가 치료학과 겸임교수
한국 기치유 연구회 회장 / (주)명상신문 논설위원
저서 : 기치유와 기공수련 / 기치유학

문의 www.gichiu.com 02-3482-5032
후원 한국기치유연구회 Energy Healing Center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68)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14강 평지에 풍파를 일으키신 부처님

"우리가 남이가!", 그 不二의 법문

이제 그만 남 쫓아가지 말고 <금강경>도 덮고, 제 허접한 사설도 그만 읽으라는 권유에 좀 황당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부도 그만 그 파격적 노래를 그칠 일인데, 아직 노파심이 남았나 봅니다.

혼돈(混沌)을 배우라니?

6. [一], 相隨來也. 一一, 破二成三從此出, 乾坤混沌未分前. 以是 一生參學畢.

7. [時], 如魚飮水冷暖自知. 時時, 淸風明月鎭相隨. 桃紅李白薔薇紫. 問著東君自不知.

8. [佛] 無面目說是非漢. 小名悉達, 長號釋迦. 度人無數, 攝伏群邪. 若言他是佛, 自己卻成魔. 只把一枝無孔笛, 爲君吹起大平歌.

9. [在]. 客來須看也. 不得放過, 隨後便打. 獨坐一爐香, 金文誦兩行. 可憐車馬客, 門外任他忙.

호흡과 속도를 살려 다음과 같이 번역해 보았습니다.

6. "[一]이라, 서로 따라 오는구나. 일(一)이여, 일이여, 둘로 부서지고 셋이 되는 것도 다 이로부터 비롯된다. 천지가 갈리기 전의 우주적 혼돈, 이로 하여 일생의 공부를 마쳤다."

7. "[時]라, 물고기가 물을 마셔, 차고 따뜻함을 스스로 알듯… 시(時)라, 시(時)라. 청풍과 명월이 서로를 따른다. 복숭아는 붉고 오얏은 희고, 장미는 자줏빛이다. 조물(造物)의 자연에 물어보니 자기는 (왜 그런지) 모른다 한다."

8. "[佛]이여, 뜬금없이 시비를 논하는 이여. 그의 어릴 때 이름은 싯달타요, 자라서는 석가라. 사람을 구제하기 무수하고, 여러 죄악을 굴복시킨 이. 그러나 그가 스스로 부처라 한다면, 바로 마군이로 변하고 말아. 다만 구멍 없는 피리 하나 들고 그대 위해 태평가를 부르리라."

9. "[在]라, 객이 오거든 꼭 내다보아야 한다. 그대로 보내서도 안 되고, 뒤따라가다간 맞는다…. 홀로 앉아 화로에 향불 하나 피워놓고, 경전 두어 줄을 읊으니, 가련타, 수레 마차를 타고 다니는 이들이여, 문밖이 소란스러워도 그래도 그냥 둘 밖에…."

만법귀일(萬法歸一) 일귀하처(一歸何處)

6. [一]이라, '하나'가 무엇입니까. 옛적 조주선사의 "만법귀일(萬法歸一), 일귀하처(一歸何處)" 화두는 익히 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로 돌아간다. 그런데 그 하나는 어디로 가나."

대학 시절, 학교 작파하고 천지를 방랑하던 시절, 대구에 들른 적이 있습니다. 술집에서 제가 숟가락 하나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자,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뭐 하냐?" "이거 '하나'를 알면, 세계의 비밀을 알 것이라고 하는데… 글쎄 아무리 보아도 모르겠거든…." 술에 취해 번화한 거리로 나선 제 눈에, 앞서 지나가던 젊은 여자의 뒷 머리채가 보였습니다. 한번, 잡아 당겨보았습니다. 여자는 화난 얼굴로 째려보았고, 저는 그냥 웃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당황해하며 물었습니다. "너 왜 그랬어?" "무슨 물건이 돌아보는지 궁금해서…." 미안합니다. 무슨 악의나 심술이 있었던 것은 천만 아니었다고, 오래전 일이지만, 그 여자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사과드립니다.

저는 '하나'를 착각했더랬습니다. 그것은 숟가락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선의 선비 서화담은 '하나'가 구체적 수(數)가 아니라 수의 체(體)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하나'란, 이제까지 혀가 닳게 설해 드린 바, 분열과 갈등이 없는 원초 태초의 '합일(不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번 정권에서 유행한 그 구호를 기억하시나요. '하나'란, 술잔을 높이 들며 "우리가 남이가!" 할 때, 바로 그 단결된 공동체 의식 안에 있습니다.

태어날 때 우리는 가족 안에서 '하나'입니다. 콩 한 조각도 나누어 먹고, 부모형제의 안위와 행복을 자기 것처럼 생각합니다. 나중 분가해서 뿔뿔이 흩어지면 그 '하나' 의식은 약해지고, 섭섭한 일들도 쌓이곤 합니다.

세상의 분열과 갈등은 이렇게 '하나'로부터, 둘, 그리고 셋으로 분화해 나간 결과입니다. 불교는 그 분열로 인한 소모와 갈등을 돌이켜 본래의 '하나'로 돌아오라고 손짓합니다. 야부가 말합니다. "둘로 부서지고 셋이 되는 것도 다 이것이 갈라진 결과이다. 천지가 갈리기 전의 우주적 혼돈을 찾아라. 이것이 네가 해야 할 일생의 공부이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7. [時라], 때는 무엇입니까. 세상은 스스로의 연기(緣起)적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찰나에 수많은 요소들이 결합하여, 다시 멸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만들고 가는 그 거대한 섭리의 '이성'에다가, 우리는 토를 달고, 불평을 토로합니다. "왜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지." 악이라고 생각한 일들, 없어져야 좋겠다고 생각한 일들이 자연 전체의 이성에는 필요하고 합당하다는 역(逆)의 발상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장자는 똥은 거름으로 다시 회귀하고, 죽음이 있어 삶이 있다는 단순하고 심플한 진리를 우리는 잊고 살지 않습니까. 노자는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한테 이쁘고 좋은 것만 선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잘못된 생각이다.(天下皆知美之爲美, 斯惡已, 皆知善之爲善, 斯不善已. 제2장)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좋습니다. 세상의 꽃과 달, 그리고 짐승들은 자신들의 시간을 압니다. 그리하여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없습니다. 그게 기적 중의 기적이고, 거기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시(時)라, 시(時)라. 청풍과 명월이 서로를 따른다. 복숭아는 붉고 오얏은 희고, 장미는 자줏빛! 조물(造物)의 자연에 물어보니 자기는 모른다 한다."

평지에 풍파(風波)를 일으키신 부처님

8. 그럼, 대체 부처님은 여기 왜 오신 것입니까. 모든 것이 자기 때를 알아, 우주가 한 점 흠도 부족도 없이 완전한데, 대체 부처님은 왜 오셔서는 평지풍파(平地風波)를, 야부의 표현을 빌리면, "바람도 없는데, 파도를 일으키는(無風起浪)" 것이냐 말입니다. 왜 "뜬금(面目) 없이 와서 이러네 저러네 시비(是非)를 하시는 것이냐" 말입니다.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상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모르고, 그 축복을 향유할 줄 모르고, 탐욕과 갈등으로 분열된 사바의 중생들이 안타까와서 여기 왔습니다. "그렇게 오신(如來)" 비원으로 하여, 우리는 구원의 희망을 보고, 그 빛에 따라 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빛과 불은 그러나 그 분이 다시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분은 그것을 다만 "손가락으로 가리켜 주었을(指示)" 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연주하는 곡은 태평가인데, 연주하는 피리에는 구멍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9. 그럼, 대체 어떻게 살아라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데, 우리는 사람과 어울려 있고,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데… 지금 이 구절이 그 삶의 비결로 제시된 것입니다. "객이 오거든 꼭 내다보아야 한다. 그대로 보내서도 안 되고, 뒤따라가다간 맞는다." 저런,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것을 오늘의 화두로 내 드리고, 사설을 그만 접기로 합니다. 꾸벅. ■한국학중앙연구원



신행 스님(信行:704~779): 신라스님. 당의 지공(志空) 밑에서 3년간 수행. 귀국하여 북종선을 선양.

네티즌 교리문답

"방편(方便)의 불교적 의미는?"

문 흔히들 방편이란 말은 "강을 건너야 하는데 어떤 방편을 쓰면 좋을까" "학문을 출세의 방편으로 삼지 말라" 등처럼 수단이란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즉 방편(方便)이라는 단어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쓰는 수단을 말합니다. 그럼 불교적 의미의 방편을 무슨 뜻입니까?(수단맨)

답 1 : 방편이라는 말은 원래 불교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방편의 방(方)은 방법(方法)이고 편(便)은 편리(便利)로서 사람의 근기를 말합니다. 또는 방은 '방정(方正)한 이치'를 말하고 편은 '편법(便法)'을 말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교에서 사용하는 방편은 부처님이나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쓰였습니다. 이러한 설법은 중생의 근기에 맞게 설해졌다하여 방편시설(方便是說)이라 일컬었습니다. (방편시설)

답 2 : 불교에서 말하는 방편에 대한 의미를 좀더 세밀하게 살펴볼까요. 방편은 '차별된 사상(事象)을 알고 중생을 제도하는 지혜로 구제하여 깨달음에 인도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법으로 설명된 가르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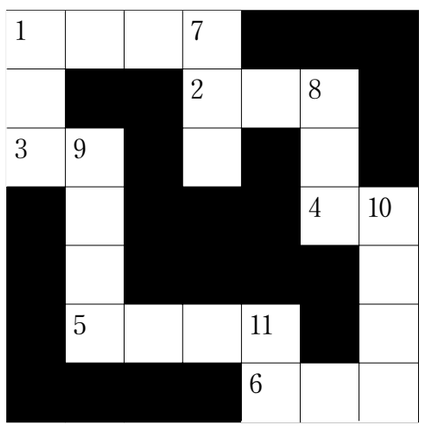
일상생활에서 방법이나 편리한 수단으로 사용되던 용어를 불교에서는 중생구제와 깨침을 얻기 위해 적절하게 설명된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많은 경전이 진실한 의미에서 방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불교박사)

답 3 : 경전에서 방편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엄경>은 육바라밀의 방편과 대자대비(大慈大悲)방편, 그리고 각오(覺悟)방편, 전불퇴법륜(轉不退法輪)방편을 합친 십방편(十方便)을 제시했습니다.

보살은 이와 같이 열 가지의 방편으로 중생을 구제하라는 의미에서 다양한 방편을 제시한 것입니다.

<유마경>에서도 "방편으로서의 지혜가 없으면 속박 당하고 방편으로서의 지혜가 있으면 해탈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응당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방편의 의미가 아닌 중생이 깨침을 얻기 위한 의미로서의 방편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경전읽기)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정답은 26면에

상식퍼즐

가로 1. 중국 본토의 북변, 몽골 지역과의 사이에 축조된 성벽 2. 서툴고 미숙한 무당 3. 구족계(具足戒)를 받아 비구(比丘)가 되기 전의 수행자 4. 무기를 가지지 않고 맨손과 몸으로 상대방을 치고 막아내는 격투(格鬪) 기술 5. 선거인이 직접 피선거인을 뽑는 선거 6. 증권거래소에서 하루에 오를 수 있는 최고 한도까지 올라간 주가.

세로 1. 김시습이 지은 고대소설 <○○○저포기> 7. 인간의 본성은 원래 착하다는 맹자의 주장 8. 사마귀를 형상화해 고안한 무술법 9. 지위가 아주 낮은 관직 10. 국민의 의사에 따라 제정된 법률을 기초로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나라 11. 거래규모와 외형이 큰 상인.

직지 찍어낸 금속활자본에 '원더풀' 연발



한마음선원 독일 지원이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관에 마련한 '대행 스님 법문' 부스.



2005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화보집에서 본 내용이 고작이었지만 이번 '직지 전시'를 계기로 한국이 구텐베르크 이전에 금속활자를 발명한 훌륭한 문화국가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2005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의 조직위원장인 위르겐 보스의 말이다. 그의 이같은 한마디는 올해 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서 한국이 거둔 성과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 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관에 설치된 스크린에서 소개되는 스님들의 목판인쇄 과정을 관람객들이 신기한듯 관심깊게 보고 있다.

세계 최대 도서전으로 한국이 주빈국으로 참여한 '2005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이 10월 1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프랑크푸르트시 메세장(박람회장)에서 성대히 진행됐다.

세계 101개국 7200여개사가 참여한 이번 행사는 총 28만명이 다녀가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이번 도서전 공식 홈페이지(www.frankfurt-book-fair.com)는 주빈국 한국이 거둔 성과를 널리 홍보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개막식인 10월 18일 오후 2시 뢰머광장(Roemer Platz)에서는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장 혜진 스님과 신도 등 1백여명이 독일 전 언론에 팔만대장경과 템플스테이 등 한국 불교문화를 소개했다.

이어 오후 5시 독일 프랑크푸르트시 메세장(박람회장) 입구에 위치한 콩그레스센터 하모니홀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패트라 로트 프랑크푸르트 시장, 이해찬 국무총리, 유르겐 보스 도서전 위원장, 노벨문학상 수상후보에 오른 고은 시인 등 1천5백여명이 참석했다. 고은 시인은 이자리에서 한국을 손님으로 비유한 '서시' 낭독을 통해 "손님과 주인의 구분 없는 경지를 문학을 통해 체험하기를 바란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국의 프랑크푸르트도서전 개막식도 같은날 오후 6시30분 메세장 포룸(포럼)관 2층에 마련된 주빈국관에서 열렸다.

다음날인 19일 주빈국관. "U-book이란 모바일과 책의 만남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해 원하는 책을 다운로드해 볼 수도 있고, 책 내용을 다른 사람과 주고받을 수 있으며, 전자책 형태로 독서를 할 수도 있습니다." U-book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간단한 시연이 이루어지는 순간, 관람객들은 탄성을 내질렀다.

그리고는 다양한 질문들을 쏟아냈다. "어떻게 작동하는 거냐" "한국에서는 상용화된 기술인가" 등등. 주빈국 한국이 IT강국의 면모를 한껏 과시하는 순간이다. '한국의 책 100-유비쿼터스 북' 프로젝트를 통해서다.

목판 · 한지 제작 시연 인기

U-Book 전송 순간 관람객 탄성

'한국의 책 100-유비쿼터스 북'은 주빈국 행사의 하이라이트다. 한국을 잘 모르는 외국 독자들에게 한국 문화 전반을 알릴 수 있도록 한국 문화의 전통과 현대적 경향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100권의 우수 도서를 전시하는 행사다.

이 중에는 <지눌의 선사상> <깨달음의 거울-선가귀감> <직지> <사찰 꽃살문> 등의 불서도 포함됐다.

또 주빈국관 존(Zone)1에서는 '메모리의 나이테'를 주제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인 직지심경과 목판 팔만대장경을 비롯해 훈민정음, 그리고 조선왕조실록 등 한국 출판의 역사를 방문객들에게 일목요연하게 소개했다.

직지를 찍어낸 금속활자본의 복제판(2001년 오국진 복원)을 둘러보는 여러 외국 출판인들 뿐만 아니라 독일 방문자들은 '원더풀'을 연발하며 놀라워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구텐베르그의 '42행 성서'와 비교하며 한국의 '직지'가 불교와 관련해 이뤄졌으며 특히 팔만대장경의 완성도 지극하고 정성된 간절한 마음의 결정체였다는 것을 알고 감탄해 했다.

아고라 광장에서는 청주고인쇄박물관 주관으로 금속활자 제작 과정 시연과 직접 체험을, 목판 인쇄 제작을 비롯한 한지 제작 시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관람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10월 22일에는 한국관 포럼에서 군위 인각사 주지 상인 스님 주최로 <삼국유사> 독일어 번역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레겐스부르그 대학교 김영자 교수는 라이너 짐머만 뮌헨 국립전문대 교수와 함께 지난 2년여간 서로 기밀한 논의를 통해 번역했다. 김교수는 "독일에 한국 불교역사와 문화를 알리는데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로 소감을 대신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독일인들은 즉석에서 책을 구입하기도 했다.

한편 이곳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는 한마음선원장 대행 스님의 법문이 영어와 독일어, 스페인어 그리고 중국어와 러시아어로 번역돼 함께 소개됐다.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은 도서전 기간동안 미국인 청고 스님의 재미있는 불교 이야기 강좌, 독일 지원장 혜진 스님의 다도 강좌 등을 열어 눈길을 끌었다.

프랑크푸르트 시립공예미술관에서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열린 초의차문화연구원(원장 여연 스님)의 선다도 시연체험도 볼만했다.

선다 체험을 관람한 요한나 에레미아 (Johanna Eremia, 독일)는 "고요하며 정적인 분위기로 진행된 선다 그 자체가 선(禪)임을 알게 됐다"며 "작은 동작 하나 하나에서도 깊게 들어가는 내면과의 대화는 한국의 선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프랑크푸르트 시립공예미술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는 조선시대 주요 불교회화(사불회탱, 감로탱, 시왕도 등)와 공예품 30여 점이 전시됐다.

프랑크푸르트 도서박람회에 참가한 많은 이들이 이번 도서박람회가 한국 역사의 과거와 현재를 잘 조망했으며, 여기에 전통문화와 불교의 접목도 잘 이뤄졌다고 평가하며 이것을 이번 도서박람회의 성공요인으로 꼽았다.

글 · 사진=베티나 뮌히-에플레 본지 독일통신원
임영식 본지 독일 명예기자





독일 레베출판사에서 출간해 전시된 독일어판 <삼국유사>(사진 위)와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장 혜진 스님이 관람객들에게 다도를 시연하고 있는 모습 .



<삼국유사>의 고향, 인각사 주지 상인 스님(오른쪽)과 독일어판 <삼국유사> 번역자인 김영자 레겐스부르그 대학 교수가 도서전에서 <삼국유사>를 사는 관람객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있다.

'삼국유사'에 대한 높은 관심에 놀라

<삼국유사> 독일어판 출판기념회 연 상인 스님

"<삼국유사>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큰지 몰랐습니다. 독일어로 번역해 1천부를 출간했는데 출판기념회 현장에서 1백여권이 순식간에 판매되는 등 인기와 관심이 컸습니다."

10월 22일 한국관에서 번역자인 김영자 레겐스부르그 대학 교수와 함께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상인 스님(군위 인각사 주지)은 27일 귀국직후 기자와 만난자리에서 도서전 참가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출판기념회에서 김영자 교수가 미리 준비해간 <삼국유사> 관련 영상 자료가 소개되면서 독일인은 물론 행사장에 참가한 외국인들의 눈이 휘둥그레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주 불국사를 비롯해 군위 인각사 발굴현장 등 다양한 사찰 영상 자료는 훌륭한 포교 교재 역할을 했지요."

아직도 행사당시의 감동이 가시지 않은 듯 상인 스님의 목소리는 상기돼 있었다.

"<삼국유사> 독일어 번역을 하면서 번역자인 김영자 교수와 라이너 짐머만 교수가 'Temple'의 해석을 놓고 큰 논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김교수는 'Temple'이란 신이나 종교적 지도자만 모시는 성전이란 의미가 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Temple'을 사찰이라고 해석하는데 김교수는 정확히 말하면 수도원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지적했지요. 결국 김교수의 말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한 라이너 짐머만 교수가 두 손을 들었지요." 이렇게 단어 한자의 의미 파악에도 세심하게 신경쓰는 등 <삼국유사> 독일어판 출간에 정성을 다했다고 상인 스님은 말했다.

스님은 또 행사전날인 21일 마인츠 대학내에 위치한 구텐베르크 박물관을 방문해 2003년 국내에서 발간된 <삼국유사> 영인본을 기증하기도 했다. 이에 박물관장은 내년중 박물관안에 한국관을 신설할 예정인데 그때 이번에 기증받은 영인본과 이번에 출간한 독일어판 <삼국유사>를 중앙에 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내년은 일연 스님 탄신 8백주년입니다. 이번 프랑크푸르크 도서전에서 개최한 <삼국유사> 독일어판 출판 기념회가 탄생 기념 행사의 신호탄이라 생각하고 정성껏 준비했는데 큰 호응을 얻어 만족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불교문화를 해외에 적극 알리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주일 기자

설기문박사의
최면-전생치료, 빙의치료 세미나
아래와 같이 설기문박사의 최면-전생치료, 빙의치료 세미나와 개인상담을 실시합니다.
(1)세미나일정 : 10월 18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00 ~ 19:00 (사정에 따라 일정은 조정 가능)
(2)교육내용 : 전통적 최면과 에릭슨최면, NLP, 전생치료 -빙의치료의 원리와 방법 (이론강의와 실습위주)
(3)교 육 비 : 150만원
(4)장 소 : 본 연구원 강의장
(5)개인상담안내 :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아래와 같은 각종 스트레스, 심리적 문제, 인생문제, 고민에 대해 설기문박사가 직접 개인상담을 실시합니다.
(6)상담내용 : 불안증 및 공포증, 우울증, 각종 중독증 (담배, 알코올, 음식, 약물), 각종 알레르기 문제, 비만문제,홧병 및 각종 신경성 장애, 업장과 관련한 전생문제, 빙의 문제
● 설기문 박사 : 상담심리전문가, 최면 및 전생치료전문가, NLP 전문가, (전)동아대학교 교수로서 1997년 이후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최면-전생상담 세미나를 실시하였으며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최면과 최면전생퇴행", "최면과 최면치료", "전생가기 참 쉽다"와 같은 다수의 전문서적을 저술하였음.
한국 최면-전생상담 연구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12-1번지 안양건설타워 617호
-지하철 4호선 범계역 1번 출구
(엔시-뉴코아백화점 맞은편 시티은행 옆 17층건물)
전화: 011-1762-4598
인터넷 주소창: 설기문 또는 최면술 www.nlpplus.com
daum 카페: 설기문트랜스넷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山寺 조청
♣ 山寺조청 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山寺조청 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 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입니다.
♣ 山寺조청 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옻이 오르지 않는 山寺 참옻 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山寺 靑미래 조청 1.2kg
중금속해독, 풍습제거(부종), 사지관절, 중풍과 암 예방에 탁월한 기여
山寺 야도라지 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국민건강을 생각하며 100% 천연으로 만들었습니다
山寺조청 월빙 자연당
1100g×2병 = 18,000원
● 각종 요리, 무침, 조림 등 반찬 만드실 때
● 떡, 빵, 과일 드실 때 ● 고추장, 김치 담그실 때
옛날 방법 그대로 만든 순수한 맛, 이제는 산사조청 웰빙 자연당을 쓰십시오.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용사
054)372-3166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 조청원

눈.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특허제품
기둥 : 원목 아메존 사용가능
♦원두막 6000×3000×3200[mm] 8000×3000×3200[mm]
눈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원두막형 방가로
전기 판넬만 깔면 겨울에도 사용가능
♦평상 1500×620×350[mm]가격:150,000 할인가:120,000 1800×1030×350[mm]가격:180,000 할인가:150,000
특수 대작한 플리프로필렌은 눈비를 맞아도 썩거나 변형되지 않아 보수비용이 필요없음
특히 보관 조립이 간단하여 얼마든지 연결 사용 할 수 있는 평상
조경시설물 전문업체 지구산업 TEL:(063) 323-3010~1 FAX:(063) 323-3012
www.banzaro.com
계좌번호:[농협]505055-56-005933 예금주:지구산업 곽영호
전화주문시 무료배송 [전품목부가세별도] 지역대리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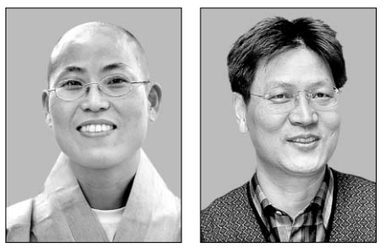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福田函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福田函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다시 읽는 법화 사상

법화경 해설서 2권 나와



우리말 법화삼부경 혜조 스님 옮김 | 운주사 | 2만5천원
법화사상론 차차석 지음 | 운주사 | 1만5천원



<우리말 법화삼부경>을 펴낸 혜조 스님(조계종 문화국장 · 왼쪽)과 <법화사상론>의 저자 차차석 박사.

중생의 고통을 해소시키고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는 법화사상. 그 사상을 담고 있는 '법화삼부경'인 <무량의경>과 <묘법연화경> <불설관보현보살행법경>은 모든 사람이 가장 빨리 번뇌에서 벗어나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을 일러준다.

독립된 이 세 경전은 한편으로는 법화사상에 대한 서론, 본론, 결론도 읽을 수 있다. 개경(開經)인 <무량의경>은 한량없이 다양한 가르침도 결국 한 가지 가르침, 즉 모든 현상의 본질은 '모양 없는 도리(無相)'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본경(本經)인 <묘법연화경>은 일승사상(一乘思想)과 본불사상(本佛思想) 등을 설하고 있으며, 부처님의 지혜를 성취해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가 되게 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 다양한 비유설법이 펼쳐져 오늘날 많은 불자들이 독송하는 경전이기도 하다.

결경(結經)인 <불설관보현보살행법경>은 모든 업장이 망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보현보살을 관하는 수행법과 육근참회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세 경전 중 <법화경>에 대한 해석본은 국내에 많이 선보인 것과는 달리 <무량의경>과 <관보현경>의 해석본과 연구 성과는 극히 적은 실정이다. 최근 출간된 <우리말 법화삼부경>과 <법화사상론>이 반가운 이유다.

혜조 스님의 <우리말 법화삼부경>은 이 세 경전을 우리말로 번역하고 역주를 달아 어려운 내용을 풀이한 책이다. 이 책은 사실 혜조 스님의 속가 어머니로부터 번역이 시작됐다. 새벽 3시면 어김없이 독경을 하셨던 어머니는 <법화경>을 읽은 후 '이 훌륭한 가르침을 혼자 알고 있기 아깝다'는 생각에 번역과 사경에 매달렸다. 그 번역본의 감수를 혜조 스님에게 부탁한 것이 1998년. 그러나 바쁜 일상 속에 조금씩 잊혀져가던 이 원고는 2001년 7월, 장마로 인한 산사태로 집이 무너져 생사의 문턱을 넘나들었던 스님의 머리를 스쳐지나갔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스님은 이후 '법화삼부경' 번역에 매달렸고 4년 만에 <우리말 법화삼부경>으로 세상에 선보이게 된 것이다.

"'법화삼부경' 번역은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드린다는 의미 외에도 어떤 약으로도 치유가 불가능했던 병든 나에게 가장 좋은 약이 됐습니다. 번역을 마칠 무렵에는 그동안 나도 몰래 쌓여왔던 원망과 아만이 녹았고, 몸도 많이 치유됐습니다. 이제 이 책을 통해 법화사상이 널리 세상에 알려져 모든 이들의 번뇌와 갈등이 해소되고 부처님과 같이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년간의 번역과 3년 동안 10번에 걸친 교정을 거친 만큼 문장이 간결하고 매끄럽다. 또한 "10번째 교정을 보는 순간 뜻풀이가 막혔던 '제2방편품'의 한 대목이 확 트이더라"고 할 만큼 문장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는데 주력했다.

한편 <우리말 법화삼부경>은 조만간 점자도서로도 발간될 예정이다. 불경 점자도서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하던 스님은 조계종 문화부에서 받는 월급을 꼬박꼬박 모아 점자도서 출간할 자금을 만들어뒀다고.

"진정한 행복의 길을 안내하는 '법화삼부경'이 시각장애인들의 밝은 눈이 되어 줄 것입니다."

<우리말 법화삼부경>이 경전의 뜻풀이에 주력했다면 <법화사상론>은 박사논문을 비롯해 오랫동안 <법화경>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온 차차석 박사(동국대 강사)가 그동안 발표한 <법화경> 관련 논문을 모아 엮은 것이다. 법화사상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에 비해 학술적 연구가 미미한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보면 그 존재감이 적지 않은 성과물이다.

"법화경이 말하는 성불은 매우 쉽습니다. 법화경을 듣고 그 가르침에 따라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수행의 완성과 불국정토건설을 핵심사상으로 하는 <법화경>을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접근해보고자 했습니다."

1부에서는 '법화경의 법사에 대한 고찰' '법화경의 역사의식 탐구 시론' '법화경에 나타난 행함과 열반의 상관성 고찰' 등 <법화경> 자체에 대한 연구물들을, 2부에서는 <법화경>이 중국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전개되었는지를 사상사적 측면에서 살피고 있다.

지은이는 단순한 수지독송용이 아닌, 현실에서 깨달음의 실천방법을 일러준다는 것이 <법화경>의 진정한 가치라고 말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원각경 산림법회 책으로 엮어



좋은 만남 멋진 이별
자광 스님 지음
효종 스님 편집
현대북스 | 1만원

"부처님의 말씀 가운데는 복을 짓는 작복(作福)과 부처가 되는 작불(作佛)이 있습니다. <원각경>은 부처가 되는 작불 인연의 중요성을 설하고 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원각경>은 작복과 작불도 내가 있어야 짓는 것이므로 '나'까지도 없애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경불교대학장 자광 스님이 불교TV에서 12회에 걸쳐 강의한 <원각경> 산림법회 '좋은 만남 멋진 이별'을 같은 제목의 책으로 엮었다.

<원각경>의 원제는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으로, 크고 바르고 광대한 내용을 가진 원각(圓覺)을 설명하는 경 중의 으뜸이 되는 경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문수 · 보현 · 보안 · 금강장 보살 등 12명의 보살이 던지는 질문과 부처님의 대답을 통해 대원각의 묘한 이치와 그것을 깨닫기 위한 수행법을 근기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스님은 "우리가 숨 쉬는 이 한 순간에 내 과거의 습이 녹아 있고, 현재 나의 행동은 미래의 나의 모습을 만들고 있다"며 "항상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이 책에 담겨 있다"고 말한다.

효종 스님(천룡사 주지)이 자광 스님의 강의를 정리, 편집했고 부록으로 '불교 선맥도'를 덧붙여 경의 이해를 돕는다.

여수령 기자

일반인을 위한 화두풀이

동산 스님에게 어떤 스님이 물었다. "추위와 더위가 닥쳐오니 어떻게 피하리까?" 동산 스님이 되물었다. "왜 추위와 더위가 없는 곳으로 들어가지 않는가?" 스님이 다시 물었다. "어디가 추위도 더위도 없는 곳입니까?" 동산 스님이 대답했다. "추울 때는 그대를 몹시 춥게 하고, 더울 때는 그대를 몹시 덥게 하느리라."

우리가 생활 속에서 흔히 쓰는 '화두'라는 말의 참뜻은 무엇일까? <화두 속에서 세상을 읽다>를 펴낸 김경호씨는 '화두란 선종의 조사들이 정한 깨달음의 문'이라고 정의한다. 부처님의 뒤를 이어 깨달음을 얻은 큰스승들의 깨달은 자리를 나타내는 법문 중의 법문인 화두를 깨치면 바로 부처의 경지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은이 김경호씨는 "화두의 용도는 큰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일 뿐, 깨달음 그 자체는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오로지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의심의 응결과 이를 타파함으로써 견성체험이라고 하는 수행의 한 방식일 뿐이라는 것이다.

지은이는 이 책에서 40여 가지의 화두를 제시하고 그 속에 담긴 뜻을 설명함으로써 일반인들이 화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화두의 참뜻을 읽다보면 화두가 '먼 옛날'의 가르침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지혜임을 알게 된다.



화두 속에서 세상을 읽다
김경호 지음
푸른나무
9천5백원

여수령 기자

새로나온 책



■ **<가만가만 사랑해야지 이 작은 것들>**(이철수 글/그림, 삼인, 9천8백원)="소나무가 조심스럽게 낙엽을 떨어뜨려서 겨울 채비를 한다. 늘 푸른 소나무도, 묵은 것을 버리고 무성한 것을 덜어서 푸르름 일색을 지켜간다는 것을 안다." 판화가 이철수씨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매일 자신의 홈페이지(www.mokpan.com)를 통해 독자들에게 보냈던 엽서를 책으로 묶었다. 작품을 위한 판화와는 달리 손으로 쓱쓱 그린 그림에 직접 쓴 글씨를 더해 친근함을 더했다. 손마디 굵은 촌로와 동네 국밥집 주인, 은행알 줍는 주정뱅이 친구, 새로 산 가방 등 일상의 소소한 에피소드 속에서 행복과 작은 깨달음을 찾아내는 글과 단아한 그림에서 선(禪)적인 시정과 삶의 긍정을 읽을 수 있다.



■ **<아이스크림 명상록>**(레슬리 레빈 지음, 최세민 옮김, 크림슨, 9천8백원)=아이스크림을 식사 대신 먹는다면? 지은이는 '디저트는 반드시 식사 한 후에 먹어야 한다'는 규칙을 깨 봄으로써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고, 경직된 일상에 여유를 가져보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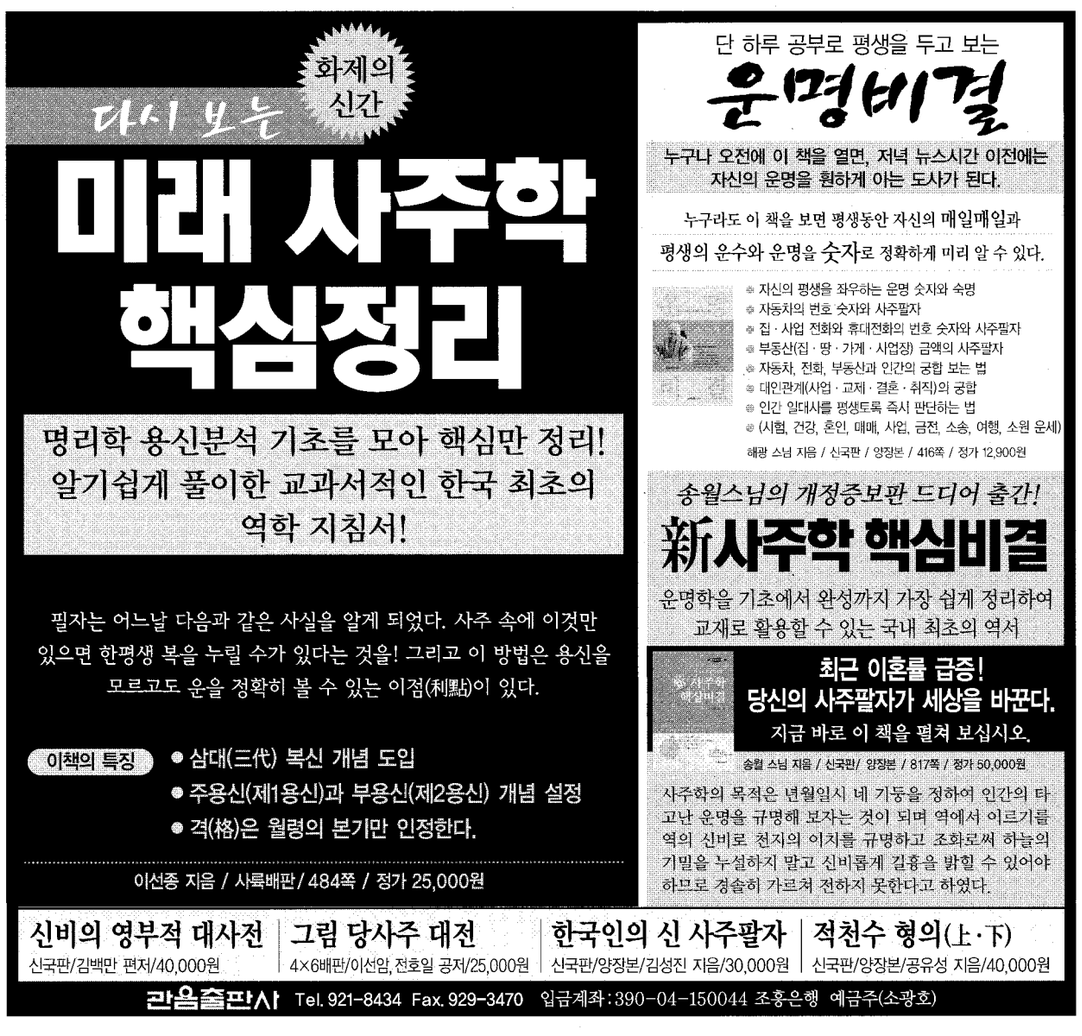
'우리 삶을 지배하는 작은 폭군'인 고정관념에서 자유로워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방식을 바꾸게 된다는 것이다. 지은이는 책에서 '체면 차리지 말고 마음껏 웃어 보기' '고요한 순간을 천천히 만끽하기' '남의 일에 관심 끄기' '자신의 장점 자연스럽게 내보이기' '침묵을 깨고 자신의 의사 표현하기' 등의 방법을 제시한다.



■ **<태평이가 전하는 태평농 이야기>**(이영문 지음, 연화, 1만원)=무농약 무비료 무경운(인위적으로 땅을 갈지 않음)으로 농사를 짓는 이영문씨의 농사이야기. 경남 사천 서포에서 3만6천여 평의 농사를 짓고 있는 그는 "화학비료가 수량을 높이고 수익이 증대시키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 땅 속 미생물은 사라져갔다"며 "태평농법은 인간의 간섭을 배제한 상태에서 자연이 스스로 일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수고와 땀을 줄이고, 삶의 질을 증대시키는 농법이다"고 말한다.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범패 보존·현대화 아직 할일 많아

영산재·범패 악보 체계화… 불교음악 뿌리 밝혀

'묘법연화경' 각필악보에 대한 연구 성과 포함

범패와 작법무로 이루어진 불교전통의식 '영산재'와 범패 악보인 '각필악보'를 낱낱이 분석한 <한국의 불교음악>(운주사 刊)이 최근 나왔다. <한국의 불교음악>은 범패의 이론과 체계 확립을 위해 법현 스님(불교음악연구소장·사진)이 매진한 연구 성과물이다. 2000년 발견된 <묘법연화경> 각필악보에 대한 연구 성과도 포함됐다. 이 책을 완성하기 위해 법현 스님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중국 등을 돌며 불교의식 관련 자료들을 찾아냈다. 책 발간을 계기로 지은이 법현 스님에게 불교음악의 세계와 각필악보 등에 대해 들어봤다.



'한국의 불교음악' 펴낸 법현 스님이 말하는 영산재

영산재는 음악, 무용 결합된 완벽한 불교의례
'각필악보' 음 높낮이를 경전위에 자국 낸 것
한자를 4등분한 사성소리는 사성보와 연계
중국 티베트 등의 불교음악 집대성이 평생 원



▲ 이론과 실기를 두루 경험한 스님이 정의하는 불교음악이란 무엇입니까?

불교음악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표현한 모든 노래'를 말합니다. 크게 나눠보면 전문의식 음악인 범패(梵唄), 일반 의식음악인 평염불(平念佛), 찬불가 등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요.

'범패'는 범음의 가패라는 뜻으로 곡조를 붙여서 경문(經文)을 노래하거나 각종 게송을 불러 부처님의 덕을 찬탄하는 것입니다. '평염불'은 신도들이 <천수경> <반야심경> 등을 평성으로 염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1920년 이후 서양음악의 악보인 오선보 형태로 제작된 '찬불가'는 현대적인 불교음악으로 볼 수 있지요.

이 가운데 의식음악 범패는 의식무용 작법무와 함께 '영산재(靈山齋)'로 구현됩니다. 영산재는 불교음악과 불교무용 대부분의 형태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불교의례입니다.

▲ <한국의 불교음악>은 어떤 책입니까?

97년 <영산재 연구>, 2002년 <불교무용> 등에 이어 보다 상세하게 범패와 불교음악의 뿌리를 밝히기 위해 준비해온 책입니다. 이번 책은 영산재 중에서도 '범패'에 대해 집중 연구했습니다.

범패는 입으로 전승된 가락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찰에서 집중적으로 범패를 배우지 않는 한 일반 음악도들이 범패를 배우기는 어렵지요. 범패를 15년 이상 배운 스님들은 신라말 고려초기에 사용됐던 범패 전용 악보인 각필악보를 보고도 다 연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음악도들은 요즘 범패에서 사용하는 악보인 '사성보' '실성보'들을 보고 연주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지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범패를 분석 연구한 <한국의 불교음악>과 함께 서양식 오선보로 범패 음악들을 옮긴 <불교음악감상>도 함께 냈습니다. 입으로 전승돼온 가락을 현대적 악보로 되살려 내 범패 보존 및 현대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작업한 것입니다. 이번에 펴낸 이론서와 악보는 보다 많은 음악도들이 범패음악을 효과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책에서 범패의 악보로 알려진 각필악보에 대해 설명하셨는데요. 각필악보는 어떤 것입니까?

각필(角筆)은 대나무나 예리한 뿔 등으로 한자 옆에 발음이나 해석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종이에 자국을 낸 것을 말합니다. 각필을 사용해 기록된 각필악보는 각필로 음의 높낮이 및 음의 길이를 경전 위에 그림처럼 그려 놓은 것입니다. 2000년 10월 우리나라 최초로 성암고서박물관에 소장된 <묘법연화경> 권1과 권8에서 각필악보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현재까지 발견된 우리나라 각필악보의 최고(最古)본입니다. 이는 동양 최초의 악보로 조선 세종 때 만들어진 유량악보(有量樂譜)인 '정간보(井間譜)'보다 4백년 정도 앞서서 제작된 것이기도 합니다.

각필악보의 길이는 1~8㎝ 등 다양합니다. 모양도 소리의 흐름에 따라 다르게 표시돼 있습니다. 특히 한자를 4등분해 사성소리에 맞춰 높낮이를 표기하고 있는 점이 사성보와도 연계되면서 선으로 길이와 음높이를 표현한 것은 실선보와도 일맥상통합니다.

▲ 어떻게 각필악보를 발견하게 됐습니까?

범패를 배우던 25년 동안 왜 범패에는 악보가 따로 없을까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조선 중후기 풍속을 그대로 담아낸 감로탱에서 힌트를 얻었지요. 감로탱에서 연주하는 스님들이 촛불을 밝히고 경전을 들여다보며 범패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를 힌트로 저녁 불빛 아래에서 비스듬히 <묘법연화경>을 비춰보자 낮에 찾아볼 수 없었던 각필의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각필악보를 발견하는데 큰 도움이 된 감로탱은 영산재 의식과 무용, 복식 등을 복원 재현하는 연구 자료로도 큰 역할을 하는 귀중한 자료이지요.

▲ 앞으로의 계획은?

불교음악에 관심들은 많으나 전문연구가는 드뭅니다. 좀더 많은 학자들이 불교음악을 연구할 수 있는 이론적인 토대를 계속 구축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5편의 불교의식 관련 논문을 국내외에 발표했습니다. 7년 동안 40여 편 정도 내놓았는데 영산재를 비롯해 다른 불교의식까지 이론 정비작업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한국의 불교음악은 물론 외연을 넓혀 동양의 불교음악까지 연구하고 싶습니다. 일본 중국 티베트 남방불교에 이르기까지 불교음악을 총 집대성하는 것이 평생의 원(願)입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입니다. 1700년을 이어온 한국불교문화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들을 고취시키기 위해 보다 많은 공연을 선보이고 싶습니다. 올해도 일본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등에서 공연했습니다. 내년에는 2월의 오스트리아 공연이 예정돼 있고, 7월 이탈리아 등 다수의 유럽공연을 기획 중입니다.

글=강지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윤이상 관현악', 진언노래집 '만트라송1' 나와



진언노래집 '만트라송1'(위)과 '윤이상 관현악'.

불자들이 들어볼만한 음반 '윤이상 관현악' '만트라송(Mantra Song)1'이 최근 출시됐다.

'윤이상 관현악'은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천재음악가 윤이상 선생의 타계 10주기 추모음반이다. 신나라에서 출시된 이번 음반에는 윤이상의 대표적인 관현악 작품 '무악' '서주와 추상' '광주여 영원히' 등이 실렸다. 윤이상의 제자인 재일동포 지휘자 김홍재(51)의 지휘로 1989년 4월 7일 일본 산토리홀에서 열린 도쿄교향악단의 '윤이상 특집 음악회' 실황을 녹음한 것이다.

불자들이 보다 쉽게 진언염불을 할 수 있도록 염불에 음악을 가미한 '만트라송1'은 불교 음악들이 대체로 느리고 무거워 따라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 밝고 경쾌하게 만들어진 진언노래집이다. 미국 보스톤에서 학업중인 현수 스님이 노래하고 혜음 선생이 작곡 연주와 일부 노래를 맡아 제작했다.

보스톤 서운사 서광 스님의 후원으로 제작된 이번 음반에는 정구업진언(淨口業眞言), 준제진언(准提眞言), 정삼업진언(淨三業眞言), 약사여래대진언(藥師如來大眞言), 참회진언(懺悔眞言), 신묘장구 대다라니, 무량수불설 왕생정토주(無量壽佛說 往生淨土呪), 광명진언(光明眞言), 반야심경, 항마진언(降魔眞言), 보회향진언(普回向眞言) 등이 수록됐다.

동성 스님 선화展

(일본 한국문화홍보원서)

선화가 동성 스님의 일본순회 전이 11월 4일까지 주오사카 대한민국총영사관 관서 한국문화홍보원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후지산 달마의 염원' 등 총 5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동성 스님의 달마도는 동공의 점안을 통해 있음과 없음의 경계를 넘어 본질적인 참모습을 드러낸다고 미술평론가 박용숙씨는 말한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진여의 세계를 달마도의 점안으로 보여준다는 것.

스님의 달마도는 전통 수묵화의 양식을 따른다. 스님의 달마도의 화제는 '명일끽다활안간(明日喫茶活眼看)'은 내일 차 한 잔 드시고 밝은 눈으로 보라는 뜻이다. 스님의 달마도는 선불교의 선맥을 오롯이 이어가고 있다.


일본에서 전시회를 열고 있는 동성 스님의 달마도.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행복만선 Tel. 02)730-07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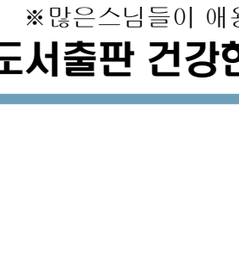
유람선으로 출발하는
중국 산동성 성지 순례 5박 6일 / 매주 수·금요일 출발
여행경비 : ₩ 450,000원 (화동페리 이용)

일 자	도 시 명	교 통 편	순 례 일 정
제1일	인 천 석 도	화동페리	인천 여객터미널에서 17시 승선, 인천항 출발, 선내 휴식 08시 석도항 도착 / 입국 수속 후 청주로 이동
제2일	청 주 치 박	전용버스	불교 문화 유산이 잘 보관된 "청주 박물관" 관람 "타산석굴" 참배후 치박으로 이동 호텔 휴식
제3일	치 박 제 남 태 산	전용버스	제남으로 이동 명대 4대 사찰인 "영암사" 순례 후 태안으로 이동 고려조 만공대사께서 창건하신 "보조사" 순례 케블카 이용 태산 등정 후 호텔 휴식
제4일	태 산 제 남 유 방	전용버스	석가모니 부처님의 佛齒를 모신 "보광사" 순례 제남 경유 유방으로 이동 양가부 민속촌 관람 호텔 휴식
제5일	유 방 석 도	전용버스 화동페리	석도로 이동 장보고 대사께서 창건한 "적산법화원" 순례 석도항으로 이동 출국 수속 및 승선 18시 출항, 선내 자유시간 및 휴식
제6일	인 천		09시 인천 도착 입국 수속 후 해산



여행조건
1. 국제선박료, 현지 차량, 입장료, 식사비, 중국비자비, 현지 가이드 기서 팁 등 제 비용 포함(개인 경비만 제외)
2. 선내 2박은 다인실 기준, 현지 호텔은 2인 1실 기준
3. 출발은 10명이상 가능
4. 10명이상 단체는 타 페리 이용 출발요일 변경 가능하니 문의 요망

호화 유람선 선상에서 수륙제 및 소원성취 방생 대법회 가능 (진행 및 인원 상담)

신간


몸에 지니기만해도 병이 낫는 청혈기술
고혈압 동맥경화 걱정없다
이 재 복 편저
이책속에 귀하의 평생 건강이 있습니다.
100쪽 값 6,000원

- 죽음을 부르는 탁한피 당신의 피는 안전한가
- 꽉막힌 혈관 확 뚫어라
- 심혈관 질환의 주범, 고지혈증
- 고지혈증의 원인과 증상
- 증이라고 무시 했다간 큰코다친다.
- 한국인이 더 위험
- 심장병 환자에겐 시간은 생명
- 뇌졸증 주범은 뇌경색
- 몸에 지니기만 해도 병이 낫는 청혈기술
- 북한 의학박사가 발명한 방해석의 신비
- 18년간 1만명이상 임상시험
- 심, 혈관질환 치료율 98.8%
- 당뇨 합병증예방, 치료한다.
- 21세기 인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의학적 대발명
- 38년간 고생하던 두통이 하루만에 없어졌다.
- 불면증이 4일째부터 깊은 잠을 자게 되었다.
- 두통과 메스꺼움이 7일만에 없어졌다.
- 편두통에서 벗어났다.
- 두통으로 하루 8알씩 먹던 진통제를 끊게 되었다.
- 신우신염이 좋아졌다. - 이명증이 없어졌다.
- 하지 정맥류의 고통에서 벗어났다.
- 손, 발 저림이 하루 밤 사이에 깨끗
- 혈압 200-97이 3일만에 120-70으로
- 고지혈증이 없어지고 피가 맑아졌다.
- 소변에 혈흔이 나타나지 않는다.
- 극심한 생리통이 없어졌다.
- 25년간 복용하던 혈압약을 안 먹게 되었다.
- 숨이 차고 , 불안, 가슴두근거림이 없어졌다
- 심장 압박에서 벗어났다.

※많은스님들이 애용하신후 질병에서 벗어나고 계십니다.
도서출판 건강한 세상 : 02)3436-3206~7
신청방법
전화로 주문하시면 책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37>



최초의 사판승, 아난의 조건

부처님은 딱 누구라고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아난존자를 점찍어두고 계셨습니다. 이제 서서히 노년에 접어든 부처님.

누군가 곁에서 함께 있어드리며 사소한 일상의 일들을 챙겨드리고 거대해진 승단의 업무를 매끄럽게 처리할 사람이 필요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몇 사람이 시자 노릇을 했지만 들쭉날쭉하여 부처님이 오히려 불편할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을 알아챈 목련존자가 아난존자에게 갔습니다.

"아난존자,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부처님께서 당신을 시자로 삼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헤아려 부처님의 시자가 되어 주십시오."

부처님의 시자가 된다는 것은 인간과 천신의 스승인 어른의 비서실장이 된다는 것이니, 이 얼마나 큰 광영이겠습니까? 나 같으면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러겠노라고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난존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목련존자시여, 저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불세존은 모시기 어려울 때에 시자를 두시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에게 힘이 남아돈다면 시자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시자를 필요로 한다는 말은 이제 일을 쉬이 처리하기에 힘이 부친다는 뜻이 될 터이고, 그렇다면 그 시자는 상당한 능력이 있어야 부처님의 의중을 간파하고 원만하게 일을 처리할 것입니다. 출세간의 스승과 세속의 잡다한 업무와 사람들을 매끄럽게 이어줄 사람! 아난존자가 시자가 된다면 그런 막중한 직책을 감당해내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아차린 아난존자가 정중하게 거절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목련존자는 아난존자를 설득하고 또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아난존자는 세 가지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부처님께서 저의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저는 세존의 시자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저는 부처님의 헌 옷이건 새 옷이건 입지 않겠습니다.

둘째는, 따로 청한 부처님의 공양을 먹지 않겠습니다.

셋째는, 뵈올 때가 아니면 부처님을 뵙지 않겠습니다."

이 소원을 부처님께 여쭙자 부처님은 흔쾌히 수락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난존자는 부처님의 시자가 되어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드실 때까지 아무런 잡음 하나 들리지 않게 원만히 시자노릇을 감당해 냈습니다. 아난존자는 깨달음을 향한 자신의 수행마저도 잠시 늦추고 부처님께 봉사하고 대중에게 이바지하였습니다.

그런 아난존자가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에 슬픔에 잠겨 차마 곁에 있지 못해 모습을 감춘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사람들에게 아난존자를 불러오라 하셔서 그를 격려하신 일이 있는데 이 대목을 읽을 때면 언제나 제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아라, 슬퍼 말아라. 너는 나를 모시면서 몸과 입과 뜻의 행이 착하였다. 처음부터 두 마음이 없어 나는 한없이 안락하였다. 과거와 미래의 그 어떤 부처님도 너만한 시자를 두진 못하였으리라."(중아함 시자경)

'이판사판'이란 말이 불교에서 나온 말임은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출세간의 진리를 추구하며 오롯하게 수행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이판승이라고 한다면, 그런 수행자의 본분을 떠나지 않으면서도 세속에서 수도자와 범부들이 원만하게 어울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사판승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난존자가 최초의 사판승이 아닐까 감히 단정을 지어봅니다.

지난 9월11일 이른 새벽 불교계에 날아든 비보 – 조계종 총무원장이셨던 법장 스님의 갑작스런 입적소식은 모든 이들을 충격과 슬픔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온통 새로운 총무원장 소임을 어느 분이 맡을 것인가에 쏠려 있습니다. 종단의 행정에 무지한 저도 호기심이 동할 정도이니 그만큼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의 불교, 특히 조계종의 위상은 무시할 수 없는 큰 힘을 지닌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신문기사를 읽어보면 마음이 그리 유쾌하지 않습니다. 삭막한 현실세계 속에서 이제 겨우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정신이 한국 땅에 제대로 뿌리를 내릴 참인 요즈음, 그 모든 불사(佛事)의 '총대'를 멜 '사판승의 어른'을 모시기가 별로 순탄치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아난존자를 시자로 삼은 것과 총무원장 소임 맡을 스님을 선출하는 것은 분명 성격이 다릅니다. 하지만 최초의 사판승인 아난존자의 인품이 자꾸만 그리워지는 것은 아마 지금 총무원의 급박하고 어수선한 움직임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급박하게 돌아가는 총무원장 선거 지켜보자니
일심으로 시자 노릇했던 아난이 그리워집니다

나를 모르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



'부처라는 거울'로 자신을 비춰 보라는 무진장 스님은 나를 놓아버리고 타인을 공양할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지상 백고좌

무진장 스님

(동국역경원 후원회장)

동국대 건학 100주년을 200일 앞둔 10월 20일 동국역경원 후원회장 무진장 스님이 서울 동국대 정각원에서 대학생들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법문했다. 스님은 법석에 올라 조용히 눈을 감고 '여래십호(如來十號)'를 암송한 뒤, 좌중을 천천히 둘러보며 법문을 시작했다. 학생들 앞에서 50여분 간 계속된 법문은 시종일관 힘차고 명쾌했다.

일생을 전법에만 매진해온 노스님의 감로법문이 끝날 무렵 천둥 같은 박수가 이어졌다. 법석을 내려올 무렵 가만히 뒤에서 무진장 스님의 법문을 경청하고 있던 동국역경원장 월운 노스님이 큰절로 법사의 명법문에 감사의 예를 올렸다. 무진장 스님의 이날 법문을 정리 요약한다.

불교의 핵심, 자비와 지혜

부처님은 <화엄경>에서 말씀하시길 고요하게 살아라, 그 속에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화엄경>에 보면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만나러 갈 때 제일먼저 만난 것이 문수보살입니다. 53번째 만난 보살이 보현보살입니다. 문수보살의 지혜와 보현보살의 자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불교의 핵심이 자비와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재동자는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던 가장 위대한 법문을 문수보살에게서 듣습니다. 왜 그 법문이 위대한가 하면, 선재동자가 문수보살이라고 하는 거울속에 자신의 지나온 일생을 비춰 봤기 때문입니다. 선재동자는 문수보살이라는 거울에 비쳐봤을 때 자신이 대단히 교만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탐진치(貪瞋痴)'를 문수보살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였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앉은 분들도 법사의 말을 듣지 말고 부처님 앞에서 자신을 바로 보세요. 그리고 부처님이라는 거울로 자신을 비춰 보기 바랍니다. 불교를 공부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을 바로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불교는 믿는 종교가 아니라 깨달음의 종교며 지혜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그런 고귀한 법문을 듣고 실천하면 확실히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수행하는 것이지 어떤 절대적 존재인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부처님 앞에서 소원을 빌어서 행복해지는 그런 일은 절대일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 나이가 50~60대인 사람들은 상당히 통제된 사회를 살아왔던 사람들 일겁니다. 그러나 여기 앉은 젊은 대학생들이라면 좀더 개방된 사회를 경험하며 자랐을 겁니다. 통제된 사회에 살던 사람들은 개방된 사회에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뭔가 위태롭고 무질서해 보인다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개방된 사회에서 생활해온 젊은이들은 어른들을 보면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고리타분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 서로를 갈등하고 하나로 융합되지 못하면 사회는 더 불안해 질수 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창조적 인격상 만들자

그렇다면 오늘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것을 살펴봐야 할까요. 그 방편이나 도구가 필요하다면 어떤 것이 그에 맞는 도구가 될까요? 종이를 자르는 데는 가위가 필요하고, 마당에 서있는 나무를 베어내기 위해서는 도끼가 필요합니다. 또한 통나무를 자르는 데는 톱이 필요하지요. 스님의 머리를 깎는 데는 삭도가 필요합니다.

동양에서 유교사상을 경험하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유교의 핵심사상이 될 수 있는 '중용'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동양에서 불교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중도'를 모르는 이가 적지 않습니다. 불교의 중도는 연기를 말하지요. 다시 말하자면 오늘 여기 앉은 분들 가운데서도 '나'라는 존재가 어떤 연관 관계 속에 살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나를 모르고는 절대 행복해 질 수

Wellbling Life
장혜명 스님께서 15년간 환경보존연구와 미생물(효소) 연구 끝에 직접 생산하신
건강기능식품인 효소발효제품 아로하, 향적당
신진대사 활성
장내플로라 개선
체질 개선
활력있는 삶 웰빙 라이프
엄선된 국산의 유기농산물에 미생물(유산균)을 배양 발효시켜 효소, 아미노산, 미네랄, 비타민 등이 풍부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현대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 아로하 : 1개월분 (270캡셀) 12만원
• 향적당 : 1개월분 (270캡셀) 24만원
장(腸)이 건강해야 전신이 건강할 수 있다 !
■ 제조 및 판매 : 선농BIO식품(주)
전국 소자본 대리점 모집 (부처님 제자이시면 더욱 좋습니다)
■ 본 사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 2동 1219 ■ 공 장 : 충남 홍성군 은하면 덕실리 342-8
■ 홈페이지 : http://www.sunnong.co.kr ■ 소비자상담실 : 042) 531-0026, 531-0027 / FAX 042)523-3316
※효소는 신체를 구성하는 세포의 안과 밖에서 여러 생화학작용의 촉매역할을 하여 정상적인 세포는 더욱 더 활발하게 해주고, 비정상적인 세포는 도움을 주어 세포의 생체활동에 기능적으로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5000여종의 효소는 소모되어지기 때문에 보충해주어야 합니다.

연기와 화상 걱정에서 완전 해방된 새로운 쑥뜸용구 –
소자본으로 대박잡는 틈새업종 대리점 및 쑥뜸기 체험방 모집!
허준선생의 東醫寶鑑 - "약과 침으로 치유되지 않는 병은 반드시 뜸을 떠야한다."
■ 제품의 특징
● 회상과 연기의 위험없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쑥뜸을 할수 있다.
● 복부의 5개 혈자리를 동시에 뜸할 수 있는 획기적 효과가 있다.
● 타이머 장착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 온열판 내장으로 쑥의 원적외선 유효성분이 체내에 유입하는 효과 증대.
● 혈자리를 모르는 초보자나 노약자도 간편하게 쑥뜸을 뜰 수 있다.
오행쑥뜸기
■ 제품의 특징
각종 통증 완화
사용후 45분이면...
● 벨트를 이용하여 무릎, 머리, 어깨, 허리 등에 간편하게 고정 할 수 있어 집중 쑥뜸을 할 수 있다.
● 타이머 장착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음양쑥뜸기 (무릎관절)
■ 제품의 특징
● 좌훈기 내부에 온열판 장착으로 쑥의 원적외선 유효성분이 체내에 유입되는 효과가 증대 됨.
● 인체와 접촉되는 부위가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어 끓는 물에 살균소독이 가능하여 위생적임.
● 타이머 장착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 좌훈기에 등받이가 부착되어 편안한 자세로 뜸을 할 수 있다.
오행좌훈기
의료용구로 허가를 받은 믿을 수 있는 제품
대구 한의대 및 대구 한방병원 교수진에 의해 개발
특허등록
ISO 9001:2000
의료용구 제조품목허가 : 제 03662호
의료용구 제조업허가 : 제 1682호
전기용품 안전인증허가 : JC07019-3001
실용신안등록 : 제 0308642호
실용신안등록 : 제 0318970호
실용신안등록 : 제 0328900호
의장등록번호 : 제 0344295호
의장등록번호 : 제 0344295호의 유사 제 01호
ISO 9001 인증서번호 : 제 017269호
대리점 및 쑥뜸기 체험방 모집
오행쑥뜸기, 음양 쑥뜸기, 오행좌훈기 등을 핍질방 및 사우나, 피부미용실, 한의원 등에 독점 공급하실 분
※ 무경험자도 가능 (완벽한 본사의 교육)
문의전화
02)521-4453
www.moxa4u.com 오행쑥뜸·좌훈기/음양쑥뜸기 제품구입 문의 02)521-6353~4
DMI산업 대구한의대학교 한방바이오 창업보육센터

부처라는 거울로 나를 비춰보라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앉은 이 자리에서 행복해 질수 있는 방법을 일러 드리겠습니다. <금강경>에서는 '나 외에 모든 이들을 공양하라' 고 가르칩니다. 공양이란 불교식으로 나 말고 다른 이들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해 진다는 겁니다. 나만 위해 살면 행복해 질 수 없습니다. 자존심을 놓아버리라는 거지요. 지금 여러분 가슴에 있는 자존심이라는 것은 백년을 삶아도 향기가 나지 않는 놈입니다. 그런 것에 집착하는 한 절대 우리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혜와 인격을 갖추는 것을 '성불(成佛)'이라고 합니다.

성불이란 인격을 완성하는 거라 했는데 그럼, 인격의 완성은 불교인들만이 독점 가능한 것인가요? 모두들 대단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스스로 교만하고 자존심을 세우며, 영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불교를 믿는 것은 부처님을 닮기 위해 불교를 믿는 겁니다. 내가 따로 있고 부처님이 따로 있어 내가 부처님을 따르면 부처님이 내게 무엇인가를 해줄 것이라 착각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것은 불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내 불행을 부처, 예수, 노자, 공자가 해결해 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창조적 인격상을 만들어 부처님과 같은 이상적 인격을 갖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한생각 바꾸는 것이 '禪'

그런데, 입으로만 진리를 말해서는 만겁의 세월이 지나도 견성은 불가능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입으로만 말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입으로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처음 이 법당 안으로 들어와 보니 어둡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흔히 세속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법당 안을 환하게 밝힐까 논리적 · 학문적 연구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스님들은 이 깜깜한 방안에서 스위치를 눌러 단박에 어둠을 밝히는 '선(禪)' 공부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신구의(身口意)' 삼업으로 짓는 '사특한 지혜'를 가지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한 생각을 바꿀 때라야만 가능하며, 그런 면에서 '선' 이라는 것이 대단히 위대하다는 겁니다. 일평생 고민해도 해결되지 않는데 손가락 하나로 스위치만 누르면 법당 안이 환하게 밝아지는 이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선을 닦는데 어떤 자격이나 차별이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 닦는 데는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어요. '선' 이란 것도 따지고 보면 오직 한 생각 바꾸는 데 그 핵심이 있는 겁니다.

일체의 반야지혜가 다 자기 자신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반야지혜의 출발점은 여러분의 마음 한가운데 있어요.

지금 여기 앉은 이들 모두 한분도 빠짐없이 다 부처입니다. 그런데 다들 자신이 중생이라는 생각에 집착해 있습니다. 부처님이 성도하고 가장 놀라웠던 것이 일체중생이 부처인데 왜 중생의 탈을 쓰고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우주만물이 연기법에 의해 다 얽혀 있는데 오직 나밖에 모르는 중생심만 앞세워서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착각속에 살지말고 자기 성찰을

오늘 제가 말한 모든 것이 비단 불교만의 진리는 아닙니다. 혹시, 오늘 법회 나오기 전에 나는 불교를 안 믿으니 법회 안 간다 했던 분이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인류가 살아있는 동안 그 어느 누구도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인생의 문제가 없다면 종교가 왜 필요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종교가 아니라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입니다. 나는 불교 믿으니 기독교는 안 되고, 나는 기독교 믿으니 불교는 안 된다는 식의 사소한 집착에서 벗어나세요.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두꺼비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스님이 된 후에 만행을 많이 했어요. 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성지를 순례 했습니다. 그런데 두꺼비란 놈 한 마리가 그런 만행을 즐겼나 봅니다. 어느날 서울 두꺼비가 부산 구경을 가는데 중간지점이 추풍령이라고 합니다. 한참을 기어서 추풍령에 도착한 이 어리석은 두꺼비는 자신이 어디쯤 왔는지 확인 하고 싶어 환장을 합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앞다리를 번쩍 들고 벌떡 일어나 기지개를 한껏 켜서 부산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이 두꺼비가 보니 서울이나 부산이나 별로 다를 게 없더란 말입니다. 짐짓 "부산이라고 뭐 별거 아니네" 하면서 가던 길을 포기하고 서울로 되돌아 가버리더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놈의 눈은 앞으로 나있지 않고 위로 있으니, 벌떡 일어서면 부산이 아니라, 자신이 지나왔던 서울이 다시 보였던 것이죠(웃음).

여러분이나 저나 이 어리석은 두꺼비처럼 뒤집어진 눈으로 '전도몽상(顚倒夢想)'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 착각 속에 살지 말고 모두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살아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글=조용수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무진장 스님은 동국대 건학 100주년을 200일 앞둔 10월20일 정각원 법당에서 교직원과 대학생들을 상대로 반야지혜의 법문을 설했다.



권력 · 명예 멀리하고 전법 · 교학 연구에 일평생

무진장 스님은 무진장(無盡藏) 스님은 일생 동안 교학을 연구하고 전법에만 힘을 쏟아왔다. 조계종 포교원장을 맡았던 것 외에 평생 세속적 권력과 명예와는 담을 쌓고 살았다. 출가 후 오랜 동안 도심에서만 생활했으면서도 검약한 모습으로 불자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교학에도 경지를 이뤄 요즘도 전국의 수많은 불자들을 상대로 지혜의 눈을 열어주려 노력하고 있다. 언제나 밤색 승복을 입은 무진장 스님을 조계사 주변 책방에서 마주칠 수 있을 만큼 스님의 책에 대한 애정은 각별하다. 1933년 제주에서 태어난 무진장 스님은 1956년 범어사에서 동산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동국대 초대 교법사로 불교대학을 졸업하고 태국 와트 벤차마보핏 사원에서 남방불교를, 일본 경도불교대학원에서 천태교학을 연구했다. 현재는 조계사 한주와 동산불교대학 학장으로 있다.

금담 스님의
스님이야기



도업 스님

가끔 운수납자(雲水衲子) 생활이 그리워진다. 해제철이 되면 걸망을 짊어지고 주처없는 만행을 하다 수행하기 좋은 선원을 찾게되면 방부를 들이기도 하고, 더러는 조용한 암자를 찾아 홀로 정진을 하기도 한다. 동안거(冬安居)는 더욱 매력적이다. 적막한 산사에 불어닥치는 매서운 추위와 따끈한 구들장의 상대적인 환경은 모든 망상을 씻어주는 듯 화두가 더욱 성성해지고 선미(禪味)를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내가 도업(道業) 스님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80년대 초반이다. 강원도 어느 토굴에 있을 때 잠시 함께 생활을 했었다. 도업 스님은 이목이 수려하고 별로 말이 없는 조용한 성품이었지만 나름대로 기상이 있었다. 스님의 일거수일투족은,



그림 · 문병성

전생부터 많은 수행을 해온 듯 수행자의 이미지가 고스란히 풍겨났다.

당시 도업 스님은 도를 이루려면 건강한 몸을 가진, 그러니까 30대때 승부를 해야 한다며 자주 용맹정진을 했다. 그러다가 무리하여 건강이 좋지 않다 싶으면 병원을 찾기보다는 정진력으로 극복하고자 하던 눈푸른 납자였다.

스님은 수행환경이 좋든 나쁘든 그러한 것에 구애 받지 않고 살았다. 그렇다고 어느 절에서든 오래 안거하는 체질은 아니었다. 그저 인연이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거처하다가 어느 날 홀연히 떠나버린다. 아무런 미련도 아쉬움도 없이… 그러한 모습에서 자연과 하나되어 버린 무애자재한 수행자를 느낄 수 있었다.

1990년대 초, 조계종 총무원에서 종무행정의 전산화 작업이 필요함을 느꼈다. 나도 컴퓨터를 배우려고 286을 구입해놓고 학원에 다니려고 했다. 당시 종단이 꽤 시끄러워 세상의 이목을 받던 시절이라 학원 다니는 문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해제를 하고 우리 절에 온 도업 스님이 사무실의 컴퓨터를 보더니 흥미를 느꼈던지 배우고 싶다며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어느날은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며 게임을 가르쳐 주면서 배워보라는 것이다. 아닌게 아니라 종단이 안정되면 배워야겠다 싶었기에 몇날 며칠 망설였는데, 도업 스님이 쉽게 컴퓨터 익힌 것에 자극을 받아 나도 일찍 배우게 되었다.

도업 스님은 수행을 많이 해서 그런지 집중력이 좋다. 또 다재다능하다. 컴퓨터만이 아니라 운동도 탁월하게 잘 한다. 그리고 엉뚱한 면도 있다. 언젠가 스님이 운전을 배운지 얼마 안된 초보운전시절, 꽤 먼거리에서 찾아왔는데, 하는 말이 '걸작'이다. 오다보니 빨간불은 빨리 가고, 파란불은 안전하게 가라는 것 같다는 것이다. 초보운전에 누구나 달리고 싶은 심경을 그대로 표현한 말일 것이다. 수좌다운 말이라고 느꼈다. "그럼 노란불은 뭐꼬?" 물으니, 위험한 운전을 하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거 아닐까 대답해 서로 웃었던 적이 있다.

한때는 분중 절에 주지 소임을 맡게 되었다며 열심히 불사도 하고 포교를 하더니 어느날 주지 한만기(4년)도 마치기 전에 그만 두겠다고 한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너무 현실에 안주하는 것 같고 안일해져 수행에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소유 · 집착 하지 않으려는 정신적 여유 지닌 참수행자

이후, 걸망을 메고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인연이 다했구만 하였지만, 소유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려는 수좌가 아니면 어디 그런 마음이나 낼 수 있을까 싶었다. 무릇 수행자의 길이란 것이 무상(無常)의 본질을 성찰하고 그러한 깨달음을 물질적인 소유만으로 느끼지 못하는 가치에 대해 모든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든가.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내가 아니면 문중이 무너질 것 같고 절이 망할 것 같이 호도하는 이기적인 기득권자들의 추한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지 않은가. 승단의 질서를 위해 종헌종법을 만들어 놓고도 인사권자가 소임자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재임이라도 안 해주면 쫓겨난 듯 원망하는 풍토를 많이 본다. 이러한 일을 행정적인 시스템의 문제로만 돌릴 일일까.

진정 버려야 할 때 버릴 줄 모르는 수행자의 망각이 문제가 아닌지 되돌아 볼 일이다.

도업 스님같은 사람은 좀으로 멋지다. 수행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는 듯 하여 도반이지만 존경심이 느껴진다.

이제, 도업 스님은 구참이 되었다. 보통 구참이 되면 번거로운 대중생활을 벗어나 자유롭게 정진하고자 하는데, 스님은 게으름을 막겠다는 생각에서인지 아직도 대중선원에서 몇 철씩 난다. 나이가 들어도 불안하지 않고, 스스로 가난하려 하고, 때로는 전국을 만행하는 여유까지 가진 도업 스님. 많은 후학들에게 수행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다.

■ 남양주 무량사 주지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라마의 제3회 특별 법회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 라마의 제1회 특별 법회는 2003년 12월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 간, 티베트 망명정부가 자리하고 있는 다람살라 남갈 사원에서 있었습니다. 이 특별 법회의 의미는 참으로 큰 것이었습니다. 달라이라마께서 한국 불자에게 하신 최초의 법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한국 불자와 달라이라마의 만남은 많았습니다. 거의 개인적인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회는 달랐습니다. <입보리행론>을 교재로 삼아, 제1장 보리심 공덕 찬탄품부터 제4장 보리심 불방일품까지 한 구절 한 구절 달라이라마께서 그 의미를 짚어가며 읽어내려 가셨습니다. 경전 속 활자에 불과했던 샨티데바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샨티데바의 가르침에 달라이 라마의 숨결이 더해지면서 <입보리행론>은 수행지침으로 되살아 난 것입니다. 2004년 10월 델리에서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 라마의 제2회 특별 법회가 봉행되었습니다. 나흘간 진행된 이 법회에서는 <입보리행론> 제5장 호계정지품부터 제8장 선정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 라마의 제 2회 특별 법회 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일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의 제안으로 제2장 죄업 참회품을 독송을 하던 순간, 강당을 가득 메웠던 낭낭한 독송 소리는 조용한 울음으로 변했습니다. 티베트 학승과 티베트 불자까지 젖어들은 조용한 울음이었습니다.

**오는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 동안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 라마의 제3회 특별 법회가 다람살라 남갈사원 대법당에서 봉행됩니다. 달라이라마께서는 매번 법회를 시작할 때 <불교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법음을 열어갑니다.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인 달라이라마의 가르침은 우리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며, 신행의 목표점을 명확하게 제시해 줄 것입니다. 평생에 만나기 어려운 이 귀한 법회에 동참하여 좋은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입보리행론

<입보리행론>은 대승 불교의 꽃인 '보살의 길'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입보리행론>은 총 10장 – 제1장 보리심 공덕품, 제2장 죄업 참회품, 제3장 보리심 전지품, 제4장 보리심 불방일품, 제 5장 호계정지품 제 6장 인욕품, 제7장 정진품, 제8장 선정품, 제9장 지혜품, 제10장 회향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샨티데바의 <입보리행론>은 티베트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가르침입니다. 이를 반증하듯이 여러 종의 번역본과 종파 별로 수많은 주석서가 있습니다. 10세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입보리행론>은 대승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아주 쉽게 전달하고 있는 대표적인 논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행사일정

A팀 : 12월10일 – 19일(10일간) – 법회동참 일정 (동참금 220만원)
인천-델리-다람살라-델리-인천
• 장 소 : 인도 다람살라 남갈사원 대법당

B팀 : 12월 3일 -18일(16일간) – 불교성지순례와 법회동참 일정 (동참금 265만원)
인천-델리-아그라-바라나시-보드가야-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르-기원정사-다람살라(법회)-델리-인천
• 주 관 : 여수 석천사 (진옥스님 061-662-1607)

※ 참가신청 및 문의 : 본 행사는 법회진행비가 포함되어 있어 신청하신 분들만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락주시면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Silkroad (주)실크로드여행사 전화 : 02)720-9600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 앞)

수제화로 제작
滿 가득할 만 行 행 靴 화

상표등록 : 614981호
의장출원 : 제35872

■ 소재특징 : 방수 극세사 원단. 논스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사계절 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

방한용 털신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

기능성 지압 깔창



• 규격 : 215-290mm(크기에 따라 조절가능)•
• 가격 : 20,000원

좋은점

만행 포행시 단정함 유지, 색상에 따라 사부대중의 선택, 발건강을 위한 3cm 굽 높이로 만들어져 발로 인한 몸 건강에 도움을 주며 특히 지압식 '발바바' 깔창은 특수 항균 실리콘 고무로 만들어져 불교의 예절에 절을 많이 하시는 사부대중님의 발관절에 도움주는 특수 지압식 인솔입니다. 어떠한 신발에도 지압 인솔을 착화하시고 걷는 것만으로도 발바닥을 지압하여 운동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주문전화 :
02)927-5715, 011-9000-5715
(보시용으로 10족이상 주문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제품을 받아보시고 구입결정 송금하세요



폐교 맞아요?

폐교 개조해 만든 다양한 문화공간

늦가을은 유난히 사람을 쓸쓸하게 만든다. 굴러가는 낙엽에도 마음이 울적해지는 때, 살짝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현장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몇 년 전부터 농촌지역의 폐교를 이용해 조성한 다양한 문화 공간들이 생겨나고 있다. '폐교' 라고 하면 을씨년스러울 것 같지만 오히려 아늑함을 안겨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부모 세대에게는 시골 학교의 정다운 추억이 살아날 정도. 아이들에게도 새로운 경험을 안겨주기 안성맞춤이다. 폐교 문화공간들이 대체로 한적한 농촌에 있다보니 현대인들의 원초적 향수를 자극하게 되는 것이다. 폐교 문화공간들을 들르기 위해서는 사전 예약 또는 연락이 필수다. 가끔 전시물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예고 없이 휴관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거기다 꼼꼼하게 폐교 문화공간이 위치한 지역들을 둘러볼 수 있도록 지역 정보를 확인해두면 즐거운 '폐교 여행' 을 할 수 있다.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울산들꽃학습원



울산교육시과학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울산들꽃학습원. 5800평 대지에서 자라는 오동나무를 비롯한 300여 종의 수목, 금낭화를 비롯한 230여종의 화초, 농작물 70여종까지 약 600여종의 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곳이다. 주로 남부지방에서 볼 수 있는 야생초들을 직접 만나보는 들꽃의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아동 · 성인을 위한 다양한 학습프로그램도 마련돼 식물에 대한 전문적 지식도 쌓을 수 있다. 메모지와 필기도구는 필수. 11월 4일과 18일 열리는 들꽃교실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052)211-9163, www.uesri.re.kr

강화은암자연사박물관



강화 양당초등학교 자리에 문을 연 강화은암자연사박물관은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공룡의 모습부터 심상치 않다. 아이들에게는 공룡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인기 만점. 자연사박물관이지만 너무 무겁지만은 않은 분위기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볼거리를 다양하게 갖추고 있다. 아울러 마련된 7개의 전시실에서 조류, 곤충 등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박물관이지만 자연 생태계를 관찰할 수 있는 물웅덩이 등도 마련돼 있다. 다음사이트에 개설된 카페를 이용하면 강화은암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032)934-8872~3, http://cafe.daum.net/eunammuseum

양평 가루니 장승촌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당산할아버지, 법수. 이는 모두 장승을 일컫는 말이다. 양평 단월초등학교를 개조해 장승박물관을 만든 장승촌에 가면 장승의모든 것을 볼 수 있다. 직접 장승을 깎는 '촌장' 채용병씨는 "장승을 통해 우리 민족의 숨결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다. 장승촌에서는 채씨가 만든 지역별, 유형별 장승들도 만나볼 수 있지만 직접 깎고 만드는 과정까지 경험할 수 있다. 만드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민속공예를 경험하는 와중에 '우리 것' 의 소중함을 느끼게 된다.

(031)775-3422, www.garuni.com

화성 창문아트센터



아이들에게 단체로 미술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 화성 창문아트센터는 창문초등학교에 세운 곳. 어린이들을 위한 벽화그리기, 찰흙 빚기, 놀이터 만들기 등 산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창문아트센터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아이들의 꿈, 상상력을 지켜주는 것이다. 기교보다 마음껏 표현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을 위한 미술교육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여기서 어린이들의 농촌체험도 가능하다. 창문아트센터는 단체예약을 통한 교육만 가능하나, 11월 6일까지는 '창문자연예술제' 가 열려 관심 있는 이들의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

(031)355-2206, www.changmoonart.com.ne.kr

영천 시안미술관



탁트인 외관, 아늑한 까페테리어 같은 실내공간. 정말 이 곳이 학교였나를 궁금하게 만드는 곳은 99년 폐교된 영천 화산초등학교 가산분교를 리모델링해 이제 지역 미술관으로 우뚝 선 시안미술관이다. 2004년 개관했지만 굵직한 미술전들을 통해 유명 미술관의 반열에 올라섰다. 그러나 문턱이 높은 미술관은 아니다. 시안미술관은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면서 작가가 직접 이야기해주는 '전시 프리뷰 프로그램' 등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지미술과 섬유예술전' 이 열리고 있다.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 휴관.

(053)338-9391, www.cyanart.co.kr

정선 추억의 박물관



폐광촌에서 고향을 지키는 박물관.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선아리랑학교 추억의 박물관' 은 '향수' 그 자체가 된다. 이 박물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자료들은 민요, 고문서 등 다양한 우리 옛것이다. 여기에 폐광촌이라는 점을 살려, 광업에 관련된 자료까지 구비하고 있어 이색 박물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박물관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인근 신동읍에서 물건을 2000원 이상 구매해야 한다. 그 영수증이 있으면 박물관 입장권과 교환이 가능한 것. 지역 박물관과 상인들 사이의 훈훈한 인심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033)378-7856, www.ararian.com

이영화 어때요?

환상-공상-현실 오가는 무의식의 세계

스테이 감독: 마크 포스터 출연: 이완 맥그리거, 나오미 왓츠 장르: 스릴러 상영시간: 100분 등급: 15세 이상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적으로 해석할까? 불교의 화엄법계로 접근할까? 영화 '스테이' 를 100% 소화하려면 이 두 개의 화두부터 풀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영화 '스테이' 는 시 · 공간을 초월한 무의식의 세계를 환상과 공상과 현실의 트라이앵글에 몰아 놓고 매우 복잡하게 사건을 풀어 간다. 다시 말해 이 영화는 분명한 캐릭터 설정과 명확한 시 · 공간적 배경을 비웃기라도 하듯 시종일관 어지럽기만 하다. 복선과 등장인물과의 연결 고리는 예측 불허며 영화 속에서 꿈은 현실이 되고 현실은 곧 환상으로 변하는 매우 복잡하고 난해하며 미묘한 심리 과정을 그린다.

맨하튼에서 정신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샘은 예지 능력과 기시감을 지닌 헨리에게 흥미를 가지게 된다. 그러던 중 헨리는 3일 후 자신의 21살 생일날 자살하겠다는 충격적인 말을 남기고 사라진다. 헨리를 구하기 위해 그를 찾아 나선 샘. 그러나 그 순간부터 샘은 초현실적인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죽은 헨리의 어머니와의 만남 등 삶과 죽음의 경계와 혼란에 빠지고 기이한 일들은 계속 벌어지는데….



인간은 자신의 무의식의 세계를 영원히 알 수 없으며 '억눌려 있던 무의식의 욕구가 충족되는 상태' 가 바로 '행복' 이라고 말하는 이 영화. 과연 영면에 잠든 프로이드를 눈뜨게 할 만큼 정신분석의 논리를 정확히 접목시켰는지는 의문이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전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나무

11월 2~8일 '자연의 초상-김경렬전'



김경렬씨 작품 '겨울나무-희망을 기다리며'.

우리나라의 나무를 주 소재로 우리 삶의 모습을 되새겨보는 전시 '자연의 초상-김경렬전' 이 11월 2~8일 인사동 인사아트센터 3층에서 열린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화하는 나무의 4계절이 김경렬씨의 손끝에서 되살아났다. 경남 하동 뽕나무의 봄, 전남 순천의 꽃 맺힌 매화나무, 삼척 음나무, 서울 구기동 은행나무, 서울 진관외동 은행나무, 충북 괴산 느티나무 등이 모델이 됐다.

증명사진을 찍듯 정면으로 나무와 구름을 그렸다. 나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나 성격, 지나온 역사를 끌어내기 위해 나무 표면을 두터운 물감의 질감으로 롤러를 이용해 처리했다. 사실적인 묘사는 최소한으로 그쳤다.

미술평론가 이주헌씨는 김경렬씨의 나무 그림에서 희망의 기운을 찾는다. "그의 나뭇가지는 영적인 분위기마저 느껴진다"며 "간혹 표현되는 구름 이미지는 세상을 향한 나무의 희망"이라고 설명한다. (02)736-1020 강지연 기자

공연

한-일 전통 타악과 춤이 만난다

무용음악극 '하얀 도성사'



한국무용가 김혜리씨의 '살풀이 춤'.

한국의 전통 타악, 사물놀이와 창이 일본의 대표적인 전통 타악 노(能)와 만났다.

사단법인 한울림(대표 안숙선, 예술감독 김덕수)이 주최하는 무용음악극 '하얀 도성사' 가 11월 3일과 4일 호암아트홀에서 공연된다.

한일수교 40주년과 한일우정의 해 2005 기념사업공연의 일환으로 이뤄진 이번 공연은 재일동포 2세 한국무용가 김리혜(무형문화재 27호 승무, 97호 살풀이춤 이수자)가 각색과 안무는 물론 춤까지 선보인다.

'도성사(道成寺)' 는 일본 최초의 역사서인 고지키(古書記)에 나오는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설화이다. 일본에서 대표적인 공연 장르인 노(能), 가부키(歌舞技), 분라쿠(文樂)의 형식으로 자주 공연되는 등 사랑받는 작품이다.

이번에 공연되는 '하얀 도성사' 는 한국적 시각으로 일본 전통 설화를 재해석하여 한국 춤으로 공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얀 도성사' 는 2003년 일본 초연 후 한국 무대에 처음 올려지는 작품. (02) 2232-7952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Btn 불교TV — sky-life:161, 케이블: 지역방송사 문의

31일 06:25 오늘은 좋은 날	31일 21:10 한국의 명찰
1일 05:10 '참 부자의 깨달음'	1일 02:40 불교TV스페셜
2일 15:00 음악의 마을	2일 15:50 열린마당
3일 11:05 아름다운 초대	3일 19:30 TV법회
4일 21:05 영화음악실	4일 15:10 휴먼다큐
5일 22:05 마음으로 듣는 음악	5일 07:30 조선불교탄압사
6일 18:15 불교 음악의 세계	6일 16:50 디스커버링부디즘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불교 음악의 세계(11월 6일 18:15~19:00) '세계 불교음악 백화점' 에서 불교음악의 모든 것을 만나보는 시간. 찬불국악, 불교관련 명상음악, 찬불동요, 중국 · 티베트 · 베트남 등의 불교관련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불교음악 한 소절은 지친 당신의 마음을 감싸주는 시간이 될 것이다.

■**불교텔레비전**: 엄앵란 장미화의 행복충전(11월 5일 17:30~18:30) 연예계의 입담꾼으로 통하는 엄앵란 장미화가 말하는 세상사는 이야기. 불자 연예인 등 각계 인사를 스튜디오에 초청해 삶의 지혜는 물론 생활속 재밌는 해프닝도 소개한다.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2004-8218~9



황금 달마도 액자

달마도가 필요했던 불자들에게 희소식이 있다. 마하몰에서 도형 김완규 화백의 황금달마도를 판매하는 것이다. 유명 화가가 직접 정성스럽게 그려낸 작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더욱 좋다.

달마도의 모양은 황금감투를 쓰고 있는 달마와 일반 달마의 모습 두 가지로 선택할 수 있다. 크기 또한 다양하게 준비 돼, 4호(41cm x 54cm), 6호(49cm x 60cm), 8호(55cm x 66cm), 선택의 폭이 넓다. 가격은 6~8만원. 액자까지 포함된 가격이다.

게시판



노인복지센터서 대학생 작품전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지완)는 11월 8일까지 홍익대 조소과 학생들과 공동으로 '안국역 5번출구' 졸업작품전을 연다(사진). (02)739-9501

청담문화원 어린이 교실 청담종합사회복지관(관장 혜성)에서 운영하는 청담문화원에서는 매월 1일 피아노 교실, 영어교실, 속셈교실등 지역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02)806-1377

독거어르신돕기 바자회 의정부 송산노인종합복지관(관장 석봉)은 11월 2일 지역 독거 어르신돕기 바자회를 연다. 의류, 신발, 생필품, 먹거리 등이 출품된다. (031)852-2595

복지타운 건립기금마련 장터 승가원(이사장 종범)은 11월 2일 봉은사에서 자비복지타운 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장터를 진행한다. (02)928-0750

어르신 노래선생님 모집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전승범)에서는 매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1시간동안 어르신들에게 노래를 가르쳐줄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02)3494-4755

급식봉사자 모집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명궁)은 10월 30일부터 11월 15일까지 주간 급식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봉사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02)989-4215

20면 상식 퍼즐 정답

만	리	장	성			
복			선	무	당	
사	미		설		랑	
	관				권	법
	말					치
	직	접	선	거		국
				상	종	가

기도로 맺은 인연

한희정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3동)

몇 년 전부터 남편과 함께 주말마다 관악산 등산을 하게 됐다. 등산을 다니던 어느 날부턴가 목탁소리가 내 귀에 들려오고 향내음이 몸을 감싸는 느낌을 받았다. 강렬한 느낌은 아니었지만, 왠지 불교를 알고 절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했다.

그동안 절에 다닐 기회가 없었는데, 때마침 아들의 대입 수능시험이 닥쳐와 간절한 마음에 기도를 해볼까 하고 동네에 있는 대원사를 찾아 갔다. 법당에 들어간 것은 그때가 처음이라 부처님 앞에 삼배만 드리고 수능 기도는 하지도 못한 채 황급히 절을 나섰다. 그렇게 절과의 짧은 인연이 끝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후 나에게 큰 시련이 닥쳐왔다. 딸아이가 사춘기로 인해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딸과의 대화는 단절됐고 집안에는 서먹한 분위기가 흘렀다. 그때 문득 대원사가 생각났다. 다시 절을 찾아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로소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그날 처음으로 주지 도성 스님을 친견하게 됐다. 처음에는 엄두가 나지 않아 스님을 뵙는 것이 많이 망설여졌지만, 힘들어하는 딸에게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스님은 내 마음속에 있는 자식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딸과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해주셨다. 그리고 딸을 위해 100일 기도를 해 볼 것을 권해주셨다.

혼자 100일기도를 한다는 것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기에 자신과 굳은 약속을 하고 해내야만 했다. 난생 처음 해보는 기도라 생소하고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기도하는 법과 절하는 법 부처님 앞에 해야 할 행동, 불교에 대한 교리공부까지도 스님께서 자세히 알려주셨다.

100일기도가 거의 끝나갈 무렵, 한 번은 도무지 절로 향하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은 적이 있다. 그날 밤 같은 절에 다니는 관음행, 관불심 보살이 꿈에 나타나 전화를 해줘 비로소 꿈에서 깨어났다.

다음날 스님께 말씀드렸더니 관세음보살께서 바른 길로 안내해 주신 거라고 하셨다. 스님께서는 꼭 108배를 해야만 기도가 아니라며, 절에 와서 삼배만 하더라도 성심껏 열심히 마음을 다스려서 한다면 천배를 한만큼의 진정한 기도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스님 덕택으로 100일 기도를 마칠 수 있었다. 스님께서는 법회 날 여러 도반들 앞에서 100일 기도를 혼자 끝낸 것을 격려해 주셨다. 사실은 기도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100일 기도를 끝냈지만 마음은 무척 흐뭇하고 편안해졌다.

100일 기도를 마치고 스님께 자성심(自性心)이라는 법명으로 계를 받았다. 그리고 기도를 생활화해야 한다는 스님의 말씀에 힘입어 200일 기도를 시작했다.

그럴 즈음 수능 시즌이 다가와 다른 도반들과 수능 기도를 같이 시작하게 됐다. 이번에는 여러 도반들과 기도를 했기에 혼자 100일 기도를 할 때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었다. 며칠간은 힘들었지만 무사히 기도를 마칠 수 있었다.

300일 기도를 다시 시작하면서 스님께서는 1000일 기도라 생각하고 마음 조급하게 먹지 말고 하루하루 정진하라고 하셨다. 1000일이라는 큰 숫자에 나에게는 너무 힘겨운 생활이 아닐까 생각하고 겁을 먹고 고민하던 중에 스님께서는 지금처럼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격려하셨다.

300일 기도를 시작하고 나면 오전 내내 절에서 보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막막하기만 했고 다시 해낼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다. 함께 기도하는 도반들과 서로 더 열심히 기도하자며 마음을 다졌다. 서로 화합하여 격려해주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해 가며 300일 기도를 거의 끝낼 쯤, 몸이 무거움을 느끼면서 머리가 아파왔다.

수험생 딸과 군대 간 아들위해 108배
기도 생활화 후 시련과 고통은 희망으로
열심히 공덕 쌓으면 가피 입을 것 확신

그러던 어느 날 꿈속에서 우리 아들 딸이 동자승이 되어서 스님을 뵈러 간다는 것을 못 가게 했는데 뿌리치고 가는 것을 차마 잡을 수가 없었다. 부처님께서 우리아이들을 부처님의 자식으로 이끌어 주신 것 같다. 그 후부터 아이들도 모두가 마음이 편해지고 딸도 메이크업을 시작해 열심히 학원을 다니고 있다.

300일을 끝내고 400일 기도가 시작되었다. 부처님 오신날이 다가오기에 연등을 만들기로 했다. 처음으로 연등을 만들기에 연잎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아서 만들었다.

연등이 완성돼 법당에 매달린 모습을 보니 모든 중생들의 시련과 고뇌가 함께 달려 올려지는 것 같았다. 스님의 목탁소리에 시련과 고뇌가 하나하나 벗어 버려지고 희망이 달려 있을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큰 보람이 느껴졌다.

연등 하나하나에 불이 켜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불빛이 밝혀질 때, 바라보고 있는 가슴은 벅차오르고 말로 표현할 수없는 기쁨이었다. 기도를 같이 하고 함께 연등을 만들어 법당에 달아준 도반들에게 감사하며, 작은 포교원이지만 따뜻한 마음과 변치 않은 불심으로 도반들과 항상 함께 하고 싶다. 그곳에는 엄격하시면서도 인자하신 스님이 항상 자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지난 3월 15일에 군에 간 아들을 생각하며 만든 연잎은 연등이 되어 아들을 앞날을 밝게 비추어줄 것이다. 메이크업을 시작한 딸은 2급, 3급 필기와 실기 시험에 합격하는 영광을 얻었다.

500일 기도를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생활이 되었다. 나 스스로 행하면 이루어지듯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많은 가피를 입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해 할 줄 알아야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열심히 해야 하고 눈앞의 작은 이득보다는 앞을 보고 큰 것을 쌓아가는 숨은 노력에 부처님은 손을 잡아주실 것이라 생각한다.

내 큰 상처보다 다른 사람의 작은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불심을 키우고자 한다. 중생이라 가끔은 힘들다는 생각도 들고 짜증이 날 때도 있다. 그럴 때마다 옆에서 지켜봐 주시는 스님과 도반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셨다. 정말로 감사한 일이다.

8월 18일 지장재일날, 500일 기도를 끝냈다. 이제 기도가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다. 나의 작은 기도로 대원사가 신도 번창하여 모든 중생들에게 복을 지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끝)



그림 · 문병성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승광불교전통미술원

귀의 삼보 하옵고....

대덕 큰 스님의 성원으로 불교미술 발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수 있도록 지도 편달 바라옵니다.



•불 상 •탱 화 •개 금
•원형조각 •불사상담 •천불삼천불
•불교용품

전화 02)491-5336, 02)494-7478 / 공방 031)595-6557, 031-595-6558 / 휴대폰 011-226-5336 e-mail : 0112265336@nate.com 목우 손동술 합장

탈종공고

● 사찰명 : 보현사
● 주 소 : 서울 광진구 자양동 770번지
● 주 지 : 법명(문춘자)

● 사찰명 : 원심사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귀래리 362번지
● 주 지 : 원심(김성옥)

상기 보현사와 원심사는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2005.11.2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장 법하

웰빙시대 우리집 건강지킴이
신비의 황토침대 · 황토손 · 황토불판

황토는 오랜 세월동안 태양에너지를 흡수하고 있는 규소성 광물로서 흔히 '태양에너지 저장고'라고 불립니다. 표면이 넓은 벌집구조로 수많은 공간이 복층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구멍안에는 원적외선이 다량 흡수, 저장되어 있어 열을 받으면 발산하여 다른 물체의 분자활동을 자극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황토손 · 황토불판은 살아있는 생명체라 하여 엄청난 약성을 가진 무병장수의 흙으로 사용되어온 황토의 장점을 고스란히 담은 우리집 건강 지킴이입니다.

사찰이나 가정에 황토방을 시공해 드립니다.



손의 혈액순환을 위해 황토손 위에 올려놓은 모습

황토손의 탁월한 효능
1. 정화작용 및 해독제 역할
2. 인체의 순환작용
3. 통증의 완화작용
4. 신진대사 촉진

황토침대에서 숙면을 취하면 기운이 되살아나 건강을 지키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황토불판에서 맛품 요리의 맛을 느껴 보십시오.



황토불판에서 고기를 굽는 모습

● 제품 가격 : • 황토침대(1인용) : 1,500,000원 • 황토손 + 황토수건 : 20,000원
• 황토불판 + 황토쇠판 : 25,000원 • 황토손 + 황토불판 셋트 : 45,000원
● 입금 계좌번호 : • 농 협 : 178990-56-003521 (이점숙)
• 대구은행 : 023-07-473126-001 (이점숙)
● 구입 문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543-1 중앙시장 108호 대구 · 경북지사장
011-817-9364 · 017-804-0215 · 053-585-9364 이노사나 합장

일곱 번째 완성자
우리 곁에 오신 미륵



원통 지음 | 신국판 | 394쪽 | 값 9,600원

이 책이 던지는 여덟 가지 질문
1 아함경에서 설하는 인수 팔만 사천 세의 의미는 무엇인가?
2 소승경전의 무상성과 대승경전의 항상성은 어떠한 관계인가?
3 12연기법의 무명과 대승불교의 광명사상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4 법화경의 일불승 사상은 중생이 부처되는 교설인데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인가?
5 화엄경의 세계는 실세계인가? 아니면 상상의 세계인가?
6 주역에서 설하는 선천 · 후천의 개벽사상에 대한 불교적 해석은 무엇인가?
7 극락세계는 진정코 서방세계에 있는가?
8 최근에 지진이나 해일 등 자연재해가 잦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책은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여덟 가지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드립니다.

이 책의 주요내용
1. 무명(無明)이 없으면 죽음도 없다.
2. 무명(無明)을 없애는 것은 밝은 광명(光明)이다.
3. 광명(光明)은 법신불의 지혜가 근본이 된다.
4. 성불은 사람의 지혜와 법신불의 지혜가 합쳐져야 완성된다.
5. 따라서 선가의 견성은 성불이 아니다.
6. 아함경에 서술된 사람 수명 팔만사천세와 말세의 대병겁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 전국 유명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구입문의 : 해조음 053) 624-5586 / 저자직강 053)653-9124

수입차, 어떻게 골라야 할까? 기생충알이 검출된 김치와 표백제가 포함된 찐쌀 등 중국산 수입식품에 비상이 걸렸다. 차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이승신)이 지난 9월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차(茶)를 대상으로 실시한 성분검사에서 다량의 납과 농약 성분이 검출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수입차를 구입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짚어본다.

식품위생법 한글표시 확인을



수입차를 구입할 때는 원산지와 주요성분, 수입원 등이 우리말로 표기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사진은 인사동 한 차판매점에 쌓여있는 중국산 보이차들. 현대불교 자료사진

납·농약 파동, 중국산 차 구입요령

국내 유통 중국차 납·농약 성분 초과
허술한 관리감시 등 문제점 드러나

한국소비자보호원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뢰 검사한 중국차에 대한 안정성 검사 결과는 수입차에 대한 허술한 관리 감시 체제를 드러내 보였다.

소비자호보원은 이번 검사 결과 인터넷 쇼핑몰과 대형할인점, 소매점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입산 차 제품 30종 중 중국산 7개 제품에서 납과 농약이 허용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특히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중국산 차 1개 제품에서는 납(Pb) 성분이 잔류허용기준(5.0ppm)의 23.4배인 117.22ppm이 검출됐고, 다른 1개 제품에서는 살충제인 비페스린(Bifenthrin)이 잔류허용기준(0.3ppm)의 3.2배인 0.96ppm 검출됐다. 납은 만성적으로 중독될 경우 식욕부진과 두통 등을, 비페스린은 호흡곤란이나 경련 등의 증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중국산 국화차와 우롱차, 대잎차, 야생고정차 등 5개 제품에서는 카드뮴(Cd)이 0.05~0.47ppm 검출됐고, 일본산 원료를 사용한 국산 가루녹차 1개 제품에서는 농약성분인 할펜프록스(Halfenprox)가 검출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중국산 차 1개 제품에서는 농약성분인 엔도설판(Endosulfan)과 싸이퍼메트린(Cypermethrin)이 검출됐으나, 이 성분들에 대한 차의 잔류허용기준은 아직 설정돼 있지 않은 상태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차를 수거해 검사하고 불법제품 판매를 단속하기로 했다. 또한 수입 신고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잔류농약검사를 강화하고 중금속 중 기준이 설정된 납과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카드뮴, 비소, 수은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차는 국내산과 수입산 모두 제품명 · 업소명이나 소재지 · 내용량 등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은 판매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 수입산 차의 경우 전체 30종 중 60%(18종)가 한글표시를 전혀 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었다.

이는 대부분 쿼터 초과 수입량에 대해 부과되는 500%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음성적으로 수입 · 유통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이다. 일명 '보따리 장사'들이 국내로 들여오는 차의 경우 정식 수입절차와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업소명·소재지 등 표시 없으면 의심
등록업체 이용, 직접 상품 확인해야

식약청 관계자는 "수입차를 구입할 경우 제품명과 식품유형, 수입업소명 및 소재지, 제조업소명 등이 한글로 표시되었거나 포장지에 인쇄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가 있다 하더라도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은 다시 한 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차는 유통기한이 2년을 넘지 않는데 이를 표기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판매되지 않은 차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글표시와 실제 내용물 종류, 양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살피고, 반품 및 교환장소가 명기되어 있는지도 확인한다.

가게 등에서 구입할 경우 가능하다면 직접 차의 냄새를 맡아 봐 습기가 찼거나 곰팡이가 피지 않았는지, 묵은내가 나지 않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차의 종류에 따라 고유의 향이 거의 나지 않는다면 오래된 차일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해서는 정식으로 등록된 차 수입업체를 이용하고, 길거리나 간이 매장에서 판매하는 차는 가급적 구입을 피한다.

정인오 교수(한서대 차학과)는 "입소문이나 차 수입상의 말만 믿고 수입차를 구입하기 보다 소비자 스스로가 차에 대한 기본지식을 쌓아 품질변별력을 기르는 것이 제일 안전한 보호막"이라고 강조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제2회 차 품평회, 경남 하동서

제2회 대한민국 차 품평회가 11월 6일 오후 1시 경남 하동군 녹차체험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대한민국 차품평대회 조직위원회 명원문화재단, 한국차문화협회, 한국다도협회, 한국명선차인회, 경상북도신기술포장연구센터가 주최한다. 대한민국 차 품평대회 조직위원장 여연 스님(일지암 암주)은 "품평대회를 통해 과학적 품질기준을 제시하고 소비활성화 및 차 재배 · 생산 · 유통 등 국내 차 산업경쟁력 강화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대회의의를 밝혔다. 품평대회 이외에 다선(茶禪) 영화제, 차 시연 등도 마련된다.

대한민국 차 품평회는 지난해 7월 1회 대회가 열려 봉황다원의 세작월광이 우수품질상에 선정됐다. (054)977-1092

강진 다산초당, 초가로 복원

조선후기 대표적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과 다성(茶聖) 초의선사의 차 인연이 맺어진 전남 강진군 도암면 다산초당(茶山草堂, 사적 107호)이 초가(草家)로 복원된다. 다산초당은 지난 1957년 다산유적보존회에 의해 기와집으로 복원됐었다. 강진군은 최근 "수많은 방문객이 초가가 아닌 기와집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어 이번에 문화재청과 협의, 복원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초의선사가 그린 '다산초당도(1812년)'에는 다산초당이 흙으로 나즈막하게 쌓아올린 담 안에 연못 2개와 초가가 어우러진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강진군은 2007년말까지 복원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며, 현재의 건물은 해체한 뒤 초당 입구 귤동마을로 옮겨진다.

조선시대 ㉓



'동다송' 우리차 장점 · 정신 담은 중요 다서
차생활에 부용당 죽서당 금원당 등 등장

한재(寒齋)의 드높은 차 정신이 펼쳐진 후 350여 년 동안 우리에게 이렇다할 다서 하나 없는 실정이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다산이 썼다는 <동다기>가 나왔으나 널리 알려지지 못하고 소실되고 말았다. 이 시기에 이르러 비로소 <만보전서>에 나오는 <다록>을 옮겨 적은 <다신전>이 나왔으니, 차의 가장 보편적인 이론이 보급된 셈이다. 이어서 초의 선사의 <동다송>은 대부분 기존 다서의 중요 부분을 발췌한 내용이지만 우리 차의 장점과 올바른 차 정신에 관한 것도 실었다.

한편 새로운 정신과 학풍이 펼쳐지면서 여류와 서얼 및 평민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특히 차생활에는 부용당, 죽서당, 금원당 등이 등장한다.

중국의 차의 생산, 수출이 주요 정책이었으니 외교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은 비로소 옥로(玉露)가 개발되었다.

① 진작의궤(進爵儀軌): 차를 올리는 다정(茶亭)이 주정(酒亭) 옆에 설치되고, 연회 중간에 차를 올리는 의식이 포함되어 있다. 또 각색다식(各色茶食)이며 삼색다식도 들어 있다.

② 금령(錦舲) 박영보(朴永輔)가 쓴 글이다. 그는 차를 좋아해서 신위(申緯) 신헌(申櫶) 초의 등과 교유했다.

③ 산차(散茶)에 관한 기초적 내용이므로 차를 처음 접하는 사람은 보아둘 책이다.

④ 최한기가 쓴 책으로 차와 차탕에 관한 얘기가 나온다.

⑤ <부용집>에 시 200여수가 실렸고 다시고 몇 수 있다.

⑥ 금릉(강진의 옛 지명)의 월출산에서 났던 차로 다산이 가르친 제다법으로 만들었으며 가로 6cm, 세로 15cm의 종이 봉투에 붉은 상표를 찍었다.

⑦ 해거도인 홍현주의 청으로 만든 송(頌)이다. 끝에 우리 차의 우수성을 강조한 것이 이채롭다.

⑧ 금원당 김씨(1817~?): 운초, 죽서 등 여류문인들과 시문을 즐겼으며 다시가 전한다.

⑨ 임점매(1821~1868): 대만 차인으로 문인들의 차생활이 좀더 활기차도록 유도했다.

⑩ 완복(阮福)이 쓴 것으로 보이 차에 관한 다사(茶事)를 기록했다.

⑪ 손동원(孫同元)이 쓴 글로 하권에 자신이 담배와 술을 끊고 차를 좋아하는데 용정차가 색향미에서 뛰어나다고 썼다.

⑫ 여간신: 청대 다상(茶商)으로 홍차 제법으로 차를 만들었다. 기문(祁門)을 중심으로 크게 성공해 기문홍차의 명성을 얻었다.

주문치: 청대 다상으로 성격이 곧아 20여 년간 노력했으나 많은 손해를 보았다.

⑬ 황본기(黃本驥)의 저술로 호남의 세공 차 양과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차종을 기록했다.

⑭ 매다옹(賣茶翁) 고유외(高遊外)의 차생활을 비평했다.

■성균관대 예절다도학

@ 표는 약(about)

	한 국	중 국	일 본
조선시대	1827 진작의궤에 차를 올림 ① 1828 진작정리의궤 1830 남차병서(南茶幷序) ② 〈다신전(茶神傳)〉 ③ 〈농정회요(農政會要)〉 ④ 1831 일지암 지음 @ 부용당 김씨(芙蓉堂 金氏) ⑤ @ 월산차(月山茶) ⑥ 1836 다산의 타계 1837 〈동다송(東茶頌)〉 완성 ⑦ @ 금원당 김씨(錦園堂 金氏) ⑧ 1840 김정희의 제주 유배	1821 임점매(林占梅)의 출생 ⑨ 1825 〈보이차기(普洱茶記)〉 ⑩ 1828 차의 밀무역 엄금 1832 차겨루기(복건 지방) 1833 〈영가견문록(永嘉見聞錄)〉 ⑪ @ 인도와 기술제휴 1838 임측서의 흠차대신 @ 여간신(餘幹臣), 주문치(朱文熾) ⑫ 1845 〈호남방물지(湖南方物志)〉 ⑬	1822 매다옹다기도보 1824 전중학옹(田中鶴翁) 1826 뇌산양 ⑭ 1836 옥로차 개발 @ 차의 외국 수출 증대
청대			
강호시대			





말없이 한 발짝 떼어놓을 수 있어야!

남들은 불사를 해서 신도분들을 춥지 않게 하는데, 저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추운데도 저 바깥에 서 있어야 하고 애들은 울고 그럴 때 보면 제가 부족해서 마음이 착잡합니다. 여러분이 추운 데 서 있는 걸 보니깐요. 허허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서로 다 한자리에 앉아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도반이 돼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걸 볼 때 참 감개무량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일체 만물만생을 볼 때 동물이든 또 고등 동물인 사람이든 누구나가 차원은 다르고 모습은 다를지언정 모두가 특기 하나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비하게, 어떻게 그렇게 골고루 말은 뒷발을 주고 소는 앞 뿔을 주고 이렇듯이 말입니다. 생긴 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자연의 법칙으로 그렇게 된 것을 생각하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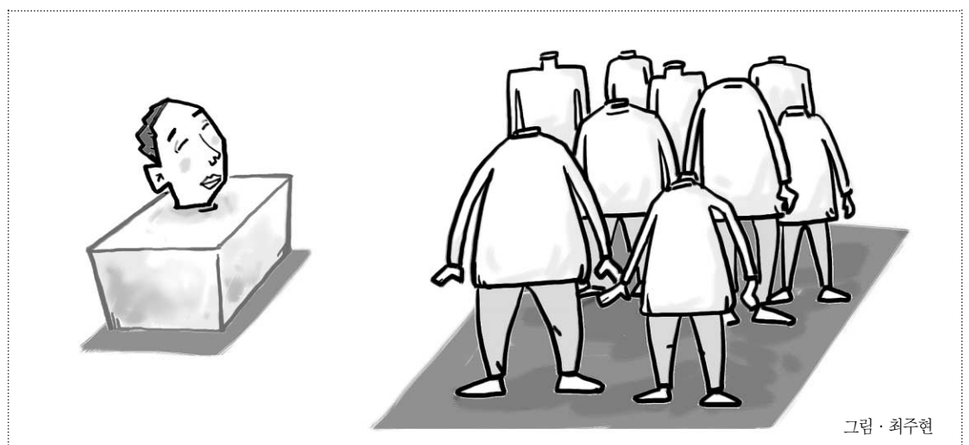
인간은 인간대로 일체 만법을 객관으로 들여서 주관에서 소화하고 또 배출시키고 하는 그 능력이 인간에게는 주어졌죠. 이 모두가 고등 동물인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99%는 부처라고 일컬어 말합니다. 그 기능을 모두 소화시킬 수 있고 모두 배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음으로 그런 걸 그렇게 능히 소화시켜서 배출시킬 수 있으련만, 그거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죠. 물론 인간도 천차만별의 차원이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로봇을 작동시키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컴퓨터가 없으면 그 로봇은 운영을 못합니다, 뿌리가 없으면 나무가 자라지 못하듯. 그거와 마찬가지로 인간도 인간의 두뇌가 컴퓨터라면, 몸은 바로 로봇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인간의 두뇌가 전체를 다 흡수해서 배출시키는 그 영향력을 다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안 그렇다고 그래야 나도 배우죠. 허허허.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을 어디다가 중심을 두고 믿습니까? 누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뺏어가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누가 가엾은 나를 도와줄까요? 누가 내 아픈 가슴을 어루만져 줄까요? 누가 내 가난을 알아서 해결해줄까요? 누가 내가 병이 들어서 죽어갈 때에 어루만져줄까요? 이 모두가 바로 머리 두뇌가 컴퓨터라면 내 몸을 작용시키고 어루만져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다 송두리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두뇌 컴퓨터를, 즉 오신통(五神通)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컴퓨터라고 이름 지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섯 가지의 문제를 통틀어서 원자라고 한다면 그 원자 속에서 다 소화시켜서 배출시키는 그 영향력을 가진 게 바로 자기 두뇌 컴퓨터입니다.

이래서 부처님께서도 누구를 믿느냐? 허허! '너 먼저 찾아라! 본래 있는 건데, 찾는 게 아니라 바로 발견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믿고 발견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가상한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라는 거를 한 번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겁니다. 우리가 보통 '아이고! 이렇게 바쁜데 그거 찾을 사이가 어딨어? 또 이렇게 큰 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주인공 이름 부르고 있을 사이가 어디 있느냐!' 이러겠지만, 그거는 본래 그렇게 다섯 가지의 오신통이 한데 합쳐져서 컴퓨터라고 이름을 짓는다면, 일체를 내부에서 받아들여서, 외부의 모든 것을 일체 받아들여서 소화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겁니다.

컴퓨터는 입력된 것만 해결해서 로봇이 움죽거리겠지만, 우리는 자동적인 컴퓨터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어떠한 것이 들어와도 소화시킬 수 있고 어떠한 것이 들어와도 배출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두뇌는 첨단을 요한다. 여러분 자신으로서는 '나는 못나서, 나는 죄가 많아서 이래!' 이러겠지만, 그거를 아예 무시하고 들어가라는 얘깁니다. 왜? 이 두뇌의 기능은 천 년을 걸어가든 하루를 걸어가든 일 초를 걸어가든 똑같다는 얘깁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그렇게 돌아가는 그 경우에 우리가 이거는 길어서 못한다, 이것은 짧아서 잘된다, 이것은 커서 들 수가 없다는 둥 이런 건 말이 안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이지,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가 없단 얘깁니다. 체(體)가 없는 내 마음은 바로 그림자와 같고 빛과 같아서 어디에 불어서 돌아가지 못하고 어디에 불어서 돌아가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천지에 끝간 데 없이 불기둥이 있다면, 그 불기둥을 끼고 수레가 중간에서 돌아간다면, 그 기능이 다 거기에 소유돼서 배출이 되고 또 들고 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으로 이건 멈추고 구르고 그러는 것이지, 그 수레는 여전히 누가 이러든 저러든 말없이 그냥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림 · 최주현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 그냥 놓고 그냥 더불어 같이 돌아갔으면 좋으련만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수레는 그냥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데 이 사람의 마음은, 체가 없는 마음이요,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요, 마음대로 응용할 수 있는 마음이요, 마음대로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올 수 있는 마음이요, 마음이 천차만별로 할 수 있건만, 뭐가 그렇게 걸려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자기 마음을 자꾸 막습니다. '이건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그것이 바로 수억겁을 거쳐 오면서 차근차근히 쌓여 있는 바로 의식이라는 거죠. 번뇌 망상이라고 그거를 일컬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컴퓨터에 쌓이고 쌓여서 자꾸 나오니 말입니다. 차근차근히 차례차례로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것을 없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홀렁 마음이 뛰어야 될 텐데 뛰질 못해요.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있건만 마음을 마음대로 못하니 그거 무슨 연고냐 이겁니다.

옛날에 어느 사람이 한번 이런 예가 있었죠. 남한테 보증을 서고서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런데 어음 받은 것을 쥐고서 벌벌벌 떨고 병이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당한 사람들도 아마 적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네들 것이지 당신 게 아니다.' 라는 얘기요. 마음으로 다 버릴 수도 있고 다 가질 수도 있는데, 어차피 버려진 거라면 그냥 버렸으면 마음이나 편안하지 않겠느냐고요. 그래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생기지 버리지 않고는 도저히 몸을 살릴 수도 없거니와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생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어차피 없어진 것, 아니 본래부터 자기가 그렇게 없애놓고 뭘 그렇게 애원합니까? 자기가 한 일이라면 뒤끝이 맑아야죠. 어차피 자기가 해놓은 거니까, 자기가 버린 거니깐 자기가 버린 걸로 그냥 놔야죠. 어차피 버려진 거를 그걸 마음으로 붙들고 늘어진다면 그건 벌써 컴퓨터에 붙잡고 있는 입력이 들어가선 몸뚱이의 모든 의식들을 점체시킵니다. 이게 알고 보면 인간 중세계에서 아주 무서운 도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깐 인간 기능을 모두 마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잘해라. 생각을 잘해서 입력이 된다면 앞서 잘못한 입력이 없어진다. 생각 한 번을 잘하면 대뇌를 통해서, 즉 말하자면 소뇌와 대뇌와 서로 맞먹으면서 중뇌에서 그걸 책정해가지고 명령과 더불어 사대로다가 통신을 합니다. 이건 의학적으로만 알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려면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남이 다 해줄 때를 바랍니까? 남의 손을 빌릴 때는 빌려야 하지만, 남의 손은 20%나 30%밖에는 빌릴 수가 없으니 내가 하는 게 70%, 80%가 돼야 합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 앞에서 좀 웃고 즐기는 이런 말은 안 하고, 만날 이런 말만 한다고 그러시겠지만, 우리가 시급한 게 그거니깐 할 수 없습니다. 시급하니까요. 우리가 이 몸뚱이를 가지고 얼마나 지탱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명령을 조달해서 받고 움죽거리는 로봇이라면, 바로 명령을 내리는 사람한테 기대야죠. 그죠? 명령을 내리는 근본에 의지해야지, 그래서 근본에서 정확하게, 거기에 의지하면 정확하게 '어! 의지하는구나.' 하고선 거기 입력이 돼가지고 그대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딴 데로, 수레가 돌아가면서 딴 데로 자꾸 바깥으로 의지한다면 아무것도 근본에 입력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입력이 되지를 않는 겁요. 거기다 입력을 안 했는데 어떻게 입력이 됩니까? 그러니까 허사무사가 되죠. 그러니까 공덕이 없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무리 네가 그렇게 했어도 공덕은 하나도 없느니라.' 한 이치가 그러합니다.

속가인들은 '왜 부처님의 공부를 해서 해탈을 못하느냐?' 이런 말들은 잘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살림에만 얽매여서 그렇게 하시니까 못한다고 하죠. 왜냐하면 절 살림이든 바깥의 살림이든 뭐가 다릅니까? 누구나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남의 것을 바라지 말고 내가 생산해서 쓸 수 있는 대로 해야죠. 행복을 누가 갖다 주나요?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거를 누가 갖다 주나요? 또 뺏어갈 수 있나요? 뺏어갈 수도 없고 갖다 줄 수도 없는 겁니다. 대신해줄 수도 없는 겁니다. 죽으나 사나 내가 해서 내가 낫고, 내가 하고 내가 살고, 내가 이렇게 작용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살아생전에 그렇게 하고 살던 그 사람들이 자기가, 왜 탤런트들이 자기 소임을 맡아가지고 탤런트 노릇 하다가 막이 내리면 탤런트들은 자기가 탤런트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분수를 알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게 소임을 맡아서 잘합니다. 해가지고 끝이 납니다. 막이 내립니다. 그러면은 아주 다 벗어난 듯이 좋아서 집으로 또 돌아갑니다. 탤런트들은 죽었다고 하는데 그냥 거기서만, 무대에서만 죽었지 도로 자기네 집에 와서는 아주 그냥 한잔 하면서 좋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보십시오.

우린 지금 탤런트들이 그 소임을 맡아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소임의 행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하든 못하든 우리가 소임을 맡은 거를 잘, 어떤 차원의 소임을 맡아서 잘하나 그걸 봐서 그 다음에 또 소임을 줍니다. 안 그렇습니까? 죽는 역할을 잘하면은 죽는 역할의 소임을 주고, 거지 노릇을 잘하면은 거지의 소임을 주고, 왕의 소임을 잘하면 왕의 소임을 주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그림자처럼 모두 펼쳐져서 돌아가는 사실을 우리 눈으로 현재 보고 듣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못 느끼십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느니라. 너희가 소임을 그렇게 맡아가지고 너희 차원에서,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소임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네 모습은 다시 주어지느니라.' 오간지옥이니 또, 그림으로 보여주는 영화에 독사지옥이 있고 그렇잖습니까? 독사굴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거 보셨죠, 모두?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그림으로만 볼 게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우리가 컴퓨터에서 로봇을 시키듯이 정확하게, 그렇게 그 혼백을 그냥 독사굴에다가 집어넣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독사가 돼서 나오지 딴 게 돼서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었는데 한순간에 그냥 독사로 변해가지고 이 세상에 출현을 한단 말입니다.

천차만별로 그렇게 변하고 모습이 바뀌어지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입신여기고 어떠한 것을 귀중하다고 하겠습니까? 우리 생명만 중하고 저 하(下)의 동물들의 생명은 우습게 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생명이요 우리들의 모습인데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천차만별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감옥이 따로 있어서 죄를 받는 게 아니고요, 그냥 독사지옥으로 넣으면 독사로 모습을 가지고 나오게 돼 있고, 소로 넣으면 소가 돼서 나오고, 곤충에 넣으면 곤충이 돼서 나오고 이럴 뿐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모두가 역행을 하고 돌아가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일체 법계의 바다와 같은 그 속에서, 티끌마저도 전부 윤회가 돼서 즉, 바퀴로 돌아가서 바퀴의 굴림을 굴린다, 모든 보살(菩薩)들이 말입니다. 부처님은 명령만 하는 거지, 명령을 하되 보살들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가 부처님이라면 입자들이 전부 보살들입니다. 그런데 입자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바로 원자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자가 돼서 나가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그것이 입자가 원자가 돼서 크게 또 이루고 이루고 이루고…, 지금 현재 우주 상태가 그러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한 말 되하고 한 말 되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세상만사가,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가, 과거 · 현재 · 미래가

☞30면으로 계속

누구나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남의 것을 바라지 말고 | 내가 생산해서 쓸 수 있어야 해요! 행복을 누가 갖다주나요?


그림 · 최주현



그림 · 최주현

자기가 진짜 실행을 하고 자기가 진짜 해봐야!

☞29면에서 계속

한데 합쳐져서 지금 같이 돌아가고 있는 이 상태가 그렇게 혼란하고 그렇게 광대무변하고 그렇게 천차만별로 돈다 이겁니다. 이렇게 천차만별로 돌아가는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공덕이 될 수 있느냐? 즉 한마음으로 한손으로 한몸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이러죠. 수많은 빗방울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한바다에 넣으면 한바다니라. 한몸이 되려면 이렇게 되죠. 일체 만물만생의 마음을 한마음에 넣는다면 그게 부처예요. 한마음에 넣었다가 거기에서 또 입자로 배출을 하면 그냥 보살들이 전체 이 공간 안에 허공에 꽉 차 있죠.

그런데 사람이 원하는 대로 원을 하면 그냥 거기서, 지금 전력이 들어와서 불이 켜지듯이 그대로 가설이 되는 거예요. 가설이 돼서 그냥 쭉쭉 나가요. 그래서 보살은 일체 평등한 이름이지만 그 보살 중에서 배출되는 거는 또 이름을 바꾸어서 나갑니다. 아버지가 금방 남편이 되듯이, 남편 노릇을 하려면, 아버지가 남편 노릇을 하려면 남편으로 금방 화하고 금방 아들로 화하고 이렇듯이 그 보살이라는 평등한 이름 속에서 그 이름이 약사도 되고 관세음도 됩니다. 그래서 이름 없는 이름을 수없이 다 몽땅 가졌으니까 바로 금강좌라고 합니다.

이 모두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냥 얘기하면 받아들이면서 그냥 이렇게 가지만, 오늘도 혜수 스님이 떡을 몇 개 가지고 올라왔어요. 내가 '나대신 맛 좀 봐라. 맛있나 맛이 없나.' 그랬어요. 그러니깐 혜수 스님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요, '제가 맛을 봐서 맛이 좋다고 할 수도 없고 맛이 나쁘다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스님이 맛을 보셔야죠.' 이러는 겁니다. 그러듯 여러분이 자기가 진짜 실행을 하고 진짜 자기가 그렇게 해봐야, 진실하게 해봐야 떡이 맛이 있는지 없는지를 감지할 수가 있단 얘깁니다.

말만 듣고 이름만 듣고 이론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론만 알고 '내가 이만큼 알았으면 됐지.' 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난 그냥 묵묵히 얼굴만 쳐다보고 있죠. 어떻게 뭐 말을 할 수가 없죠. 말없이 한 발짝 떼어놓는 것이 우주 전체를, 한 바퀴를 돌고도 남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요. 우리가 가정에서 애가 아프든지 어른이 아프든지 야파서 한번 응할 때는 벌써 주인공에 관하면서 할 때, 그게 업으로 만약에 병이 됐다거나 인과성으로 됐다거나 이런다면 반드시 과거를 들러야 되거든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과거로 들러서 오는 겁니다. 과거에서 없어져야 현실에 없어지는 건지 이게 잘 떨어지는 건지 잘 들리는 건지 모릅니다, 아주 안 해보면. 이것을 그래도 잘못되든 잘되든 그냥 꽂아보니까, 이게 안된 것도 알고 된 것도 알죠. 그러니 우리 모두가 실천을 해보지 않는 사람에게 한해서는 나의 마음의 발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생활의 발전도 없을 거고, 우리의 한생각이 나라를 발전시킬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도 법 안되는 것도 법' 이런 소리를 왜 했겠습니까? 싸움터에 가면 후퇴하는 것은 왜 있으며 전진하는 것은 왜 있겠습니까? 후퇴하는 것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후퇴하는 거지 죽이기 위해서 후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살이가 이렇게 복잡다단한데, 우리 몸뚱이의 생김생김도 그렇게 복잡하고 다단하게 생겼습니다. 명주 고름 같은 실에 가설돼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이 두뇌에 다 담겨 있는지 많은 것이 담겨 있는 그 근본 자체에서 모두 하달을 하고 움죽거리게 하니깐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정신세계 즉, 무(無)의 세계에서 한마음으로 입력이 돼서 나가는 배출은, 뭐 말로는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내가 보고 듣고, 행하고 알고, 그래서 이런 거 (가슴의 핀 마이크를 가리키시며)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가 해보지 않는다면 이게 잘못 떨어지는 건지 이게 잘 떨어지는 건지 잘 들리는 건지 모릅니다, 아주 안 해보면. 이것을 그래도 잘못되든 잘되든 그냥 꽂아보니까, 이게 안된 것도 알고 된 것도 알죠. 그러니 우리 모두가 실천을 해보지 않는 사람에게 한해서는 나의 마음의 발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생활의 발전도 없을 거고, 우리의 한생각이 나라를 발전시킬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빗방울이 떨어진다 해도 한바다에 넣으면 한바다니라!

그런가 하면은 또 이런 게 있죠. '야! 이게 어디로부터 이게 나온 것인가? 이 사람네 없애봤자야 그쪽에서 나오는 건데 아이구! 내버려두자!' 그냥 자기네들이 짓고 자기네들이 모두 하는 거니까, 그건 참견할 게 없죠. 왜냐하면 뺏어올 수도 없고 넣어줄 수도 없는 거니깐요. 자기 스스로들 알아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부처님께서 모두 그렇게 잘못되는 거를 잘되게끔 하신다 이러면, 그저 당시에만 좀 빤했다가 도루묵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그 사람네들 근본 자체가 그렇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생활을 남이 대신 해줄 수 없죠. 남이 좀 돈을 보태서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갖다가 해주고 난 뒤에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은 도로 그 생활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모두 각자한테 그냥 말겨버렸습니다. '너희들이 잘하면 선의 인과를 가질 것이고, 악으로 저지른다면 악인이 될 것이고, 또 마음공부를 하는 사람은 악과 선을 다 버리는 것도 너희 마음에 다 닿아 있느니라. 악과 선을 다 버리지 않는다면, 선으로만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악이 범해지고, 악으로 가는 사람은 선이 범해지고 이러기 때문에 둘이 아니다. 이 둘 아닌 도리를 다 버렸을 때에 비로소 보살의 역할을 하며 부처라는 이름을 바로 떨치느니라.' 그건 자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지 누가 갖다준 게 아닙니다. 누가 빼앗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똥 누는데 똥 누는 거 대신 똥 눠주는 사람 봤습니까? 온 근본 속에서 모두가 이뤄지는 것이 바로, 근본 능력은 몽땅 거기에 다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컴퓨터도 물질적인 컴퓨터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입력을 한 것만 나오지, 인간의 두뇌의 컴퓨터처럼 자동적으로 이렇게 들고 나고 아주 천차만별로 다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못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자동적인 컴퓨터가 얼마나 광대하고 무변한 겁니까? 이 세상을 다 집어삼켜도 손색이 없으리만큼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중세계 · 하세계가 지금 동일하게 돌아가고, 지금 대천세계가 이렇게 같이 동일하게 돌아가다가, 우리 중세계라고 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그냥 대천세계로 그냥 돌아간다면, 우리 인간은 이 공기주머니에서 아마 벗어나서 평화스러울 겁니다. 모두가 달라질 겁니다. 앞으로 달라져야죠. 새삼스럽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달라지는 거죠. 우리 한생각, 한생각으로써 조그마한 일을 실천으로 옮겨보세요. 조그마한 내 가정으로부터 내 몸으로부터 실천을 해보다 보면 우주를 삼키고도 남음이 있어요. 그러니 그러한 마음들이 전부 펼쳐질 때 이 허공에 빛보다 더 빨리 펼쳐지면서 돌아갈 때에, 모든 사람에게 은연중으로 배합이 돼서 불국토가 되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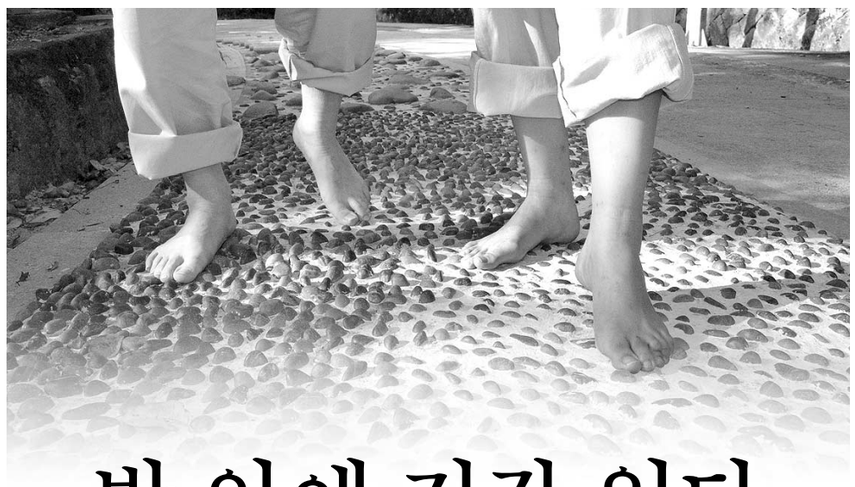
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세요.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4년 12월 18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차명상 전문 수련원
草衣茶瞑想
초의차 명상에서는 차를 통해 현대인에 맞는 명상법을 실천하여 실제적으로 참 행복으로 가는 길을 제시 할 것입니다.
11월 8일
오전 11시 30분
개원
■교육내용
다도(茶道) 명상부
다도(茶道) 문화부
차문화 교양반
■교육코스
기초반(3개월)
중급반(3개월)
고급반(6개월)
지도자반
社團法人 草衣茶文硏究院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두산 위브 빌딩 203호(종로구청 옆)
www.teanmind.com
TEL (02) 733-7209. FAX 732-7209
※ 차를 마실 수 있는 다완(茶碗)과 다도구(茶道具)매장운영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병을
약사여래부처님의 원력으로
장애를 가진 스님이기에 몸 아픈 이의 고통이 그대로 전해져 옵니다.
고경사 자광스님은 오불전 약사여래부처님을 모시고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어려운 난치병을 부처님의 원력과 스님의 지극정성 기도로 치료합니다.
불치병, 난치병, 각종 신병 - 친견 상담 환영
자광스님
스님 자신은 장애자이지만 정상인으로 오히려 장애자를 돌보는 듯했다. 뒤늦게나마 확인되어 알려진 청산자광스님의 부처님의 지극한 불심은 불치병에 걸린 모 종합병원 의사의 어머니가 후
대구경북신문 2004년 12월 21일자 5면
화제의 스님 탐방기사 중에서
두암말기로 현대의학으로 고칠수 없어 아들과 함께 고경사에 와서 먹은거라고는 겨우 스님이 준 사탕 2개를 먹고 완치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물론 그냥 나을리는 없지만 스님이 가르쳐준 지켜야 할 일을 병행해서겠지만 아무튼 기적이 아닌가?
원인모를 병으로 서울 등지의 유명의원을 전전해 오면서 생을 포기하고 환자의 집으로 돌아온 남편을 마지막으로 가산 정리를 위해 1주일만 더 살 수
종합 newskorea 2005년 1월 5일자 37면
기사 중에서
있도록 해달라는 환자 부인의 애원으로 학가산에서 가족과 함께 기도로 완치되어 주위의 사람을 놀라게 하기고 했다.
부처님의 원력과 가피력으로 마음의 문을 열면 모든 것이 들여다 보인다
세상 모든 만물이 적용되는 방향이 있어, 골라서 처방하고...
인간에게 잡귀가 스미면 잡아 몰아내야 하고... 병이 나으려면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아무리 독한 병일지라도 지성이면 감천이라, 지극정성이면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 〈약사경〉
대한불교본원종 고경사 (찾아 오시는 길 : 풍기IC에서 20분, 서안동 IC에서 25분)
경북 영주시 평은면 지곡2리 89번지 전화 054-638-8886. 8887 핸드폰 011-507-8885



발 안에 건강 있다

발 마사지로 건강 챙기기

발은 '제2의 심장' '오장육부의 축소판'이다. 때문에 발관리에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비타민이나 보약을 먹는 효과 이상으로 몸에 좋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발은 26개의 뼈와 수많은 관절 · 인대 · 신경 · 혈관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발지압만 잘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발의 피로를 풀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올바른 마사지법과 그 효과를 소개한다.

치유 △다리부종 치료 등이 있다. 다시 말해 발마사지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피로를 없애주고, 체내의 독소나 노폐물을 배출시켜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준다. 또 신진대사를 강화시켜 저항력과 면역력을 키워준다는 것이다.

또 발지압을 하면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누적된 피로를 풀 수 있어 심신이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므로 각종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 · 순환돼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따라서 긴장의 연속인 직장인에게 안정과 여유를 되찾아줘 재충전의 효과와 직무능률이 배가될 수 있다.

 # 발마사지 어떻게?

우선 마사지를 하기 전에 뜨거운 물에 발을 10~20분간 담가 근육을 이완시키고 크림이나 오일을 바르고 편안한 자세로 앉아 발전체를 주무른다. 산소와 양분을 공급하기위해 두 손으로 발을 감싸 쥐고 발목에서 발가락까지 10회 정

노폐물 배출로 신진대사 강화

10~20분간 담근후 강하게 지압

42~43℃ 적당, 훈훈해질때까지

볼펜 등 활용 어린이는 크림 이용

도 훑어 내린다. 역으로 심장을 향해 노폐물을 보내기위해 두 손으로 발을 감싸 쥐고 발가락에서 발목으로 10회 정도 훑어 올린다.

그런 후 한손으로 발목을 잡고 다른 한손의 엄지손가락으로 작은 원을 그리듯이 나사모양으로 움직이면서 발바닥 전체를 골고루 지압하면서 어루만진다. 양손의 엄지를 이용하여 발가락 사이의 골을 따라 강하게 지압을 한다. 이 동작이 끝나면 발가락을 하나씩 잡고 잡아당기면서 회전을 시킨다.

또 기구나 엄지손가락을 이용해 뒤꿈치에서부터 발가락 방향으로 발바닥의 움푹 패인 부분을 힘주어 강하게 문지른다. 한손은 발목을 잡고 한손은 발끝을 잡고 360도 돌려 회전하는 동작을 10회 반복한다. 각 과정마다 아픈 통증이 있는 부위는 가급적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 좋다.

 # 주위 물건도 지압봉으로

발지압용 봉이 아니더라도 주위의 물건을 얼마든지 발마사지에 활용할 수 있다. 대나무, 맥주병, 볼펜, 이쑤시게 다발, 브러시, 골프공 등이 그것. 의자에 앉아 맥주병이나 골프공을 굴려주거나 이쑤시게 다발과 볼펜으로 발바닥을 가볍게 지압해 주는 것도 지압봉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주의할 점은?

쉽고 간편한 발마사지도 주의할 점은 있다. 식전이나 허기가 질 때, 몸에 심한 상처 및 종기가 있거나 병을 치료한 직후에는 마사지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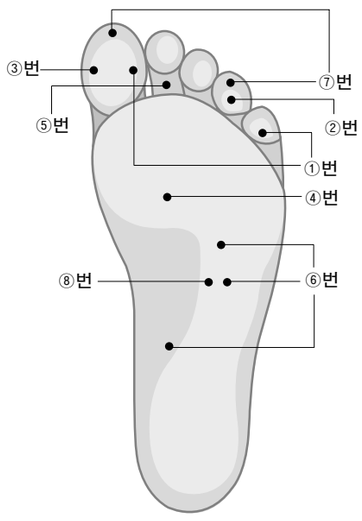
또 왼발-오른발 순서로 발바닥에서 심장쪽으로 지압하며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되도록 마사지가 끝난 뒤 미지근한 물을 1잔 마신다. 어린이나 노약자에게는 지압봉 대신 크림을 묻혀 가볍게 마사지한다.

 # 그 밖의 발 건강법은?

족욕은 42~43℃ 내외의 약간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그되 복사뼈 바로 위까지 물에 잠기도록 한다. 이 상태로 몸 전체가 훈훈해지거나 겨드랑이나 등에 땀이 살짝 날 때까지 유지한다. 녹차, 쑥, 소금, 생강, 아로마 등을 첨가하면 더욱 효과적.

공원 등지의 지압보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공원, 유원지, 관광지에 '황토' '지압돌' 등의 다양한 체험공간으로 조성된 지압보도는 발바닥을 자극해 혈액순환 작용과 면역기능을 회복시켜 자연치유력을 강화시킨다.

글=노병철 기자, 도움말=고광석 한국경혈지압학회장



혈자리로 건강 챙겨 보세요

*두통, 집중력 저하- 엄지발가락을 강하게 비비거나 새끼발가락을 돌려준다. ①번 혈을 누른다.

*어깨결림, 고혈압, 빈혈-약지발가락을 자극 ②번 혈을 누른다.

*목덜미가 뻐근할 때- 엄지발가락 ③번쪽 혈을 누른다.

*위장 장애-엄지와 검지사이 쑥 들어간 '합곡', ④번 혈을 눌러준다.

*눈의 피로 · 충혈-검지발가락 첫 번째 마디에 있는 ⑤번혈을 젖히고 비벼준다.

*숙취 해소-발바닥의 간 · 위 · 신장 부분인 ⑥번 혈을 누른다

*피로회복 또는 몸살- 엄지발가락과 약지발가락 끝 부분 ⑦번 혈을 누른다

*감기 예방-⑧번 혈을 누른다



'아가야, 너는 나의 심장과 같단다'

분만 후 아이 혀에 리(HRIH)자 써 지혜 염원

첫 돌때는 불·법·승 삼보에 헌물 보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티베트에서도 부모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아이들이 아무 탈없이 태어나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이다. 그래서 티베트에서도 신생아는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지극한 보살핌을 받으며 새 삶을 맞이한다. 산모에게는 힘든 일을 시키지 않는 배려도 각별하다. 탯줄(제대)이 상체에 감기고 머리가 길쭉하며 천문이 좁혀져 있으면 순산이 된 길조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머리부터 나와 나오자마자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엄마의 젖을 힘차게 빨아대면 건강하다는 신호이다. 다리나 엉덩이가 먼저 나오거나 천문이 좁혀져 있지 않다거나 젖을 빨지 못하면 무언가 정상이 아니라는 징조이다. 탯줄이 하반신에 감겨있거나 태어날 때 벌써 이가 나있어도 상서롭지 못한 비정상적 분만의 징후이다.

아이가 건강한 몸으로 정상 분만되면 부모는 아이의 행운을 비는 간절한 축도를 올리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축원을 암송해야 한다.

'아가야, 너는 나의 심장과 같단다. 너는 만수를 누리고 더할나위없이 훌륭한 스승들을 만나

아이는 강렬한 직사광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여야 한다. 가리개도 없이 아이를 햇빛에 노출시키게 되면 눈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천문과 발바닥도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잘 보호해야 한다. 머리는 신경의 바다와 같아서 머릿속 여러 감각신경들과 연결되어 시각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끔씩 적당한 정도의 햇살에 쪼여주면 아이의 발육과 혈액순환 그리고 활력을 북돋는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 아이를 다룰 때는 너무 일찍부터 곧추세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이들의 등뼈는 제 머리를 지탱할 수 있을 만큼 아직 단단히 굳지 않아 자칫 잘못하였다가는 척수를 다쳐 어려서부터 곱사등이 되기 십상이다.

아이들은 젖니가 날 때 잇몸이 몹시 아프고 온몸이 편치 않다고 한다. 티베트의서에서는 이때를 어린 공작의 머리에 깃털이 돋을 때의 아픔과 비슷하다고 비유하고 있다.

아이의 불쾌감과 잇몸 통증을 진정시키기 위해 티베트에서는 약초로 만든 연고를 쓰는데 주로 들국화를 원료로 한 것이다.

생후 12개월에는 첫돌잔치를 열어 불 · 법 · 승 삼보에 헌물을 보시한다. 티베트에서는 첫돌 외에는 일생동안 생일을 기념하지 않는 전통이었으나 최근 망명생활과 외래문화와 접촉하면서 달라지고 있다.

소아과질환은 두 갈래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선천성 질환이다. 발생학을 다룰 때 언급한 바 있듯이 임신 첫 3개월 동안의 산모의 섭식과 행실은 아기의 건강과 안녕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술과 담배는 물론 먹던 약도 끊고 X선 검사나 치료는 가급적 피해야 한다.

그리고 난삽한 성행위나 괴이한 체위로 무리를 해서는 매우 위험하다. 그런 것들은 모두 세 기본에너지의 균형을 망가뜨리고 혈액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세 기본에너지는 태아의 발육에 절대적으로 중요해서 균형이 깨지면 귀머거리 실명 말더듬이 절름발이 척추기형 그리고 언청이와 같은 선천성 장애들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선천성장애들은 모두 치료가 어렵다.

너의 인생은 부귀와 건강과 영화로 가득할 것이다. 살아가는 동안 너의 앞길에 아무런 걸림돌도 없이 승승장구하기를 바라고 바랄 뿐이란다!'

축원이 끝나면 산파나 가족이 탯줄을 자르고 털실로 묶어 그 자리에 당목향 가루와 참기름을 발라준다. 그런 다음 얘 받는 사람이 아이를 미지근한 향수로 씻겨준다. 그리고 나서 아이의 혀에 사푸란 가루로 티베트의 성음(聖音) 리(HRIH)자를 써넣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아이에게 지혜와 언변이 좋아진다고 한다.

티베트에서는 옛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아이는 당연히 엄마의 사랑스러운 젖을 먹고 자라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야 젖이 잘 나오고 탈이 없다고 한다. 산모의 젖이 나오지 않으면 건강하고 자상한 유모의 젖이라도 먹여야 한다.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는 온 가족이 상의하여 좋은 이름을 고른다. 티베트에는 이름에 성이 따로 없다. 생후 8개월이 되면 귀에 구멍을 뚫게 되는데 남아는 오른쪽 귀에 여아는 왼쪽 귀에 구멍을 낸다. 티베트에서는 남녀 모두 전통적으로 귀고리를 한다.

■아주대교수 · 한국티베트의학원장

대원불교대학
불교방송 다보빌딩 학사 이전 기념 장학 혜택

대원불교대학이 2006학년도부터 마포 BBS불교방송 다보빌딩으로 학사를 이전하여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 2의 개교를 합니다. 이번 학사이전 기념으로 전 학생 20% 특별 장학 혜택(1학기)를 드립니다.
또한 2006학년도부터 새로이 **불교심리상담학과**를 개설 운영하오니 많은 분들의 동참바랍니다.
(단, 장학혜택은 2006년 1월 31일 이전 원서 접수자에 한함)

2006학년도 신입생 모집 안내(서울·부산)

불교입문과정
- 주, 야간 50명 (주 1회 출석, 6개월 과정)

대 학 과 정
- 불교학과 : 주, 야간 각 100명(주 2회 출석, 주간 오후 2시, 야간 오후 7시)
- 불교심리상담학과 : 주, 야간 각 100명(주 2회 출석, 주간 오후 2시, 야간 오후 7시)

대학원 과정 (불교대학 졸업자 및 해당학력이 인정되는 자 응시 가능)
- 불교학과 : 야간 30명(주 2회 출석, 오후 7시)
- 원서교부 및 접수 : 2005년 12월 12일 ~ 2월 20일
-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학업계획서 및 졸업증명서 1부 (대학원과정만 해당)
- 합격자 발표 : 2006년 2월 21일(대원불교대학의 전 과정은 서류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교학과 서울 (02)754-1613, 부산 (051)583-7811~2 로 해 주십시요.

30년 전통 대원불교대학의 자랑
- 부부 입학 시 1인 50%, 학업우수자 50%, 불교성직자 30% 장학혜택
- 재학생 전원 불교사이버대학 수업료 면제(동영상 강의 시청)
- 졸업 후 소정의 고시를 거쳐 법사 및 불교심리전문상담사 자격증 취득



학사이전 기념 동문 · 재학생 초청 대법회 및 축하 리셉션
- 일시 : 2005년 11월 26일(토) 오후 5시
- 장소 : BBS불교방송 3층 다보원 큰법당

※ 주소가 바뀐 동문님들은 학교로 연락바랍니다.



▲ 부산대원불교대학 학사 전경

◀ 서울대원불교대학 학사 전경

대중불교운동을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 · 대학원
www.idaewon.or.kr / www.buddhaschool.or.kr

우리의 대표브랜드-삼성

바람의 옷을 짓던 손이 만들어 낸 디자인 코리아



패션의 본고장이라 불리는 프랑스에서는 우리 옷 한복을 '하늘을 가르는 바람의 옷'이라 극찬합니다. 선의 흐름과 색채의 조화를 염두에 둔 우리의 디자인에 세계가 놀란 것이지요. 이렇듯 우리 민족은 뛰어난 디자인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디자인 감각으로 세계에서 천만 대도 넘게 팔린 휴대폰을 2가지나 만들어 냈고, 세계를 누비는 LNG선박의 반 이상을 건조해냈고, 세계의 눈을 사로잡는 자동차를 만들어 냈습니다. 21세기는 디자인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더 밝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가 극찬한 디자인 감각을 지니고 있는 민족이기에 ...

우리 민족의 저력을 믿습니다

또 하나의 가족 삼성전자 SAMSUNG